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작게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금융에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 따라 상품기간이 최고 5년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온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6월 2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뜨거운 날씨 만큼이나 4박5일 단기출가에 나서는 불자들의 수행발심도 뜨거워지는 때가 여름이다. 이 때문이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수행을 통해 삶을 더욱 살찌우게 하는 각종 여름수련대회가 우리를 향해 손짓한다. 수련대회 참가도 중요하지만 앞서 수행의 자세부터 챙기도록하자.
〈편집자 주〉

수행은 깨달음의 씨

박학(博學)하더라도 수행(修行)하지 않으면 무식한 것과 같으니, 먹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배부르게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능엄경〉

오직 박학만으로는 여래의 가르침에 들어갈 수 없으니, 사람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스스로는 굶주려 먹지 못하는 것 같으며, 남의 약을 잘 지어 주면서도 제 병은 못 고치는 것 같다. 가르침을 닦지 아니하면 박학도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 〈화엄경〉

네가 비록 수행을 했다 해도, 수행한 것을 스스로 믿고 자랑하는 생각을 일으켜 남을 업신여기니, 이것이 네 수행을 따라 늘어나는 번뇌다. 〈나구타법지경〉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행을 귀히 여기고, 수행하지 않음을 귀히 안 여긴다. 그러므로 오직 능히 애써 수행하면 비록 아는 것이 적다 하더라도 깨달음에 먼저 들어간다. 〈대지도경〉

온갖 것을 수행하는 사람은 온갖 악을 끊고 온갖 선을 닦음으로써, 십지를 뛰어넘어 최상의 경지에 이른다. 〈석마하연론〉

만약 보살의 위대한 뜻을 일으켜 최상의 반야의 실천을 수행한다면, 성문 · 연각의 경지를 뛰어넘어 속히 부처님의 본성을 깨닫게 되리라. 〈불모반야경〉

수행은 씨를 키우는 것과 같다. 〈대집비유경〉

만약 보살이 있어서 굳건히 여러 수행을 닦아 게으름이 없을 때는, 마땅히 최고의 무애묘지를 얻게 될 것이다. 〈화엄경〉

중생의 진여법 또한 그 체성은 공적 · 청정하다 해도, 끝없는 번뇌의 더러움에 뒤덮여 있는 터이므로, 설사 사람이 진여를 염한다 해도 그것으로는 족할 수 없고, 적절한 방법에 의해 갖가지로 닦지 않는다면 역시 청정해지지는 않는다. 〈기신론〉

만약 사람이 백년을 살면서 산림의 화신에 제사지낸다 해도, 잠시동안 몸을 관찰하고 수행을 쌓는 것만 못하다. 〈법집요송경〉

삼천대천세계의 온갖 중생이 모두 변해 악마가 된다손 쳐도, 수행자에게서는 엿볼 틈을 찾아내지 못한다. 〈물모출생경〉

관련기사 2 · 11면

교계 소비자보호 나섰다

종단협 소비자委 가동결의…총지종 재정확보등 주관

7월10일 현판식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맞아 생산자중심에서 소비자 권익보호가 요구되고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처음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향상을 위한 소비자단체를 결성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지난 17일 정기이사회에서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장 효감 · 총지종 법장원장)를 가동키로 결의하고 사업방향과 재정확보 등을 총지종에 일임했다.

이에따라 총지종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위해 오는 7월10일 총지종 청사에 사무실을 마련, 현판식을 갖고 불교소비자보호단체 출범을 공식선언한다.

이날 종단협 회장 월주스님은 "그동안 불교계가 소홀히했던 소비자보호에 불자들이 앞장서야한다"며 법종단차원으로 펼치는 소비자보호운동에 불교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총지종은 소비자보호운동의 활동방향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자 보호시책 건의 △물품에 대한 시험, 검사 △용역의 거래 · 방법 조사 △소비자문제 조사 등으로 정하고 세부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총지종은 1차사업으로 소비자교육과 계몽운동을 실시하고 금년내에 소비자 피해창구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 가입하고 지역청년회와 사찰을 중심으로 지부를 조직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효감 위원장은 "소비자보호위원회의 활동은 곧 불법실천이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상에서 일어나는 모든일을 함께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소비자보호단체는 소비자보호원과 10여개의 민간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기독교를 비롯한 타종교계가 30여년전부터 소비자보호에 앞장서왔다. 〈이준엽 기자〉

대한불교경승단(총재 월주)은 경승활동의 활성화와 경승포교역량의 재충전을 위해 오는 27일, 28일 양일간 화성 신흥사에서 전국경

전국경승단 연수회

27 · 28일 화성 신흥사

승단 연수회를 개최한다.

전국경찰서 위촉 경승과 신규경승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경승포교지침과 경승포교사례 발표, 청소년 범죄예방에 대한 강연이 펼쳐진다.

"세계일화 만민동체 이루자"

20일 조계종 해외포교 30년 기념법회

종교 · 정계 인사등 1천여명 축하동참

조계종 해외포교 30년을 기념하는 대법회가 지난 20일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조계종원로 석주 · 청하스님, 월주 총무원장, 설정 중앙종회의장, 원산 교육원장, 성타 포교원장등 종단과 각 사암주지, 강원룡목사 김동은신부등 타종교지도자, 김영수문체부장관, 김명윤 · 권익현의원등 불자국회의원, 주한 외국인대사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료됐다.

설정스님의 경과보고에 이어 월주총무원장은 대회사에서 "한국의 선불교를 세계각지에 홍포해 온 숭산스님의 큰 원력을 받들어 한국불교를 더욱 널리 홍포할 수 있는 해외포교사양성, 기금조성 등에 종단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숭산스님(화계사 조실)은 30년 해외포교를 회고하며 "세계일화 만민동체를 이루자"고 감조했다. 이날 숭산스님의 해외포교 30년을 기린 월하 조계종종정스님의 공로패 수여가 있었으며 묘각 양일 광옥 도문 삼우 태연스님등 해외포교에 공이 큰 21명의 스님에 대한 총무원장과 포교원장의 감사패 수여식이 각각 있었다.



◇조계종 해외포교 30년을 기념하는 대법회가 20일 힐튼호텔에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숭산스님은 해외포교 30년을 기린 공로패를 받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동쪽나라' 복간대책등 논의

조계종 121회 종회

조계종 제121회 임시중앙종회(의장 설정)가 지난 18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열렸다. 〈20일 현재 · 차주상보〉

종법제 · 개정등 22개의 안건이 상정된 종회는 개회 첫날 총무원이 상정한 호법부장 설송스님의 임명동의안을 비밀투표에 부쳐 부결시키고 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 의원들은 국립박물관에 위탁전시되고 있는 성보문화재 관리 대책과 자금난으로 휴간위기에 처한 교계 유일의 어린이잡지 〈동쪽나라〉의 복간을 촉구했다.

분과위 활동보고에서 호법분과는 종무원의 승탑, 이중호적 등을 조사해 다음종회에 보고토록 결의했다. 또한 종정감사특위는 감사 지적 사항을 집행부가 조사해 처리토록하고 불교방송특위와 함께 특위를 해체했다.

총무원, 전신회에 대화 제의

조계종 중앙신도회 합류원칙 재표명 할듯

조계종 전국신도조직이 사실상 중앙신도회준비위와 전국신도회로 양분된 가운데 통합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18일 제121회 임시중앙종회 인사에서 신도회 조직개편과 관련 "전국신도회가 도덕적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각 시도지부와는 대화를 통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의 '전국신도회 해체후 중앙신도회 합류'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전국신도회에 대화를 제안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대해 전국신도회는 가까운 시일내에 월주 총무원장을 예방, 전신회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전신회 손안식 사무총장은 "아직 월주스님의 진의를 알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대화제의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손 사무총장은 또 "조계종 신도회가 분열되는 것은 막아야 하며, 특정인에 대한 평가를 전신회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데생용 미륵반가상
전국 중 · 고교에 보냅시다

등참해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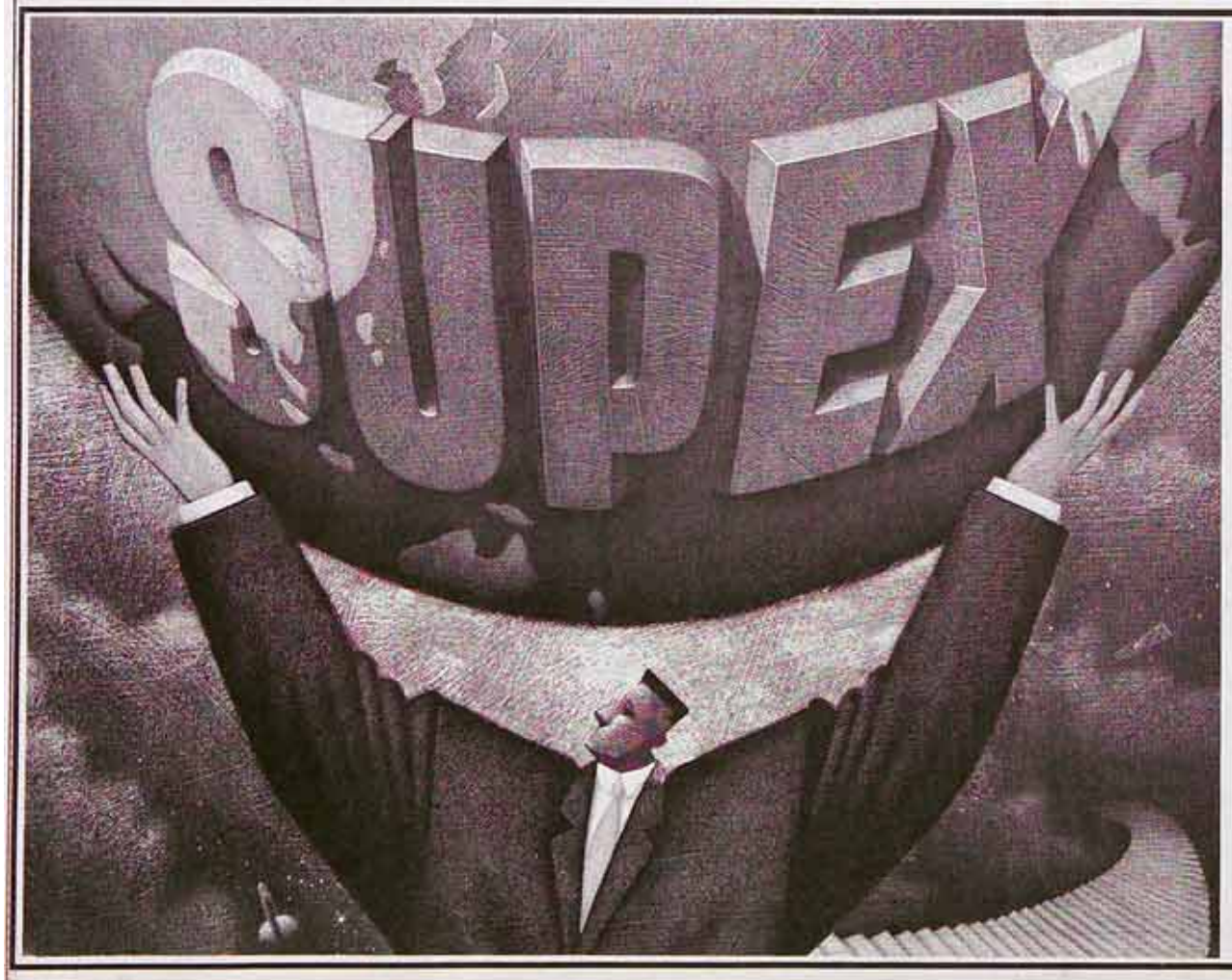
△월여 해인사스님: 합천 야로고(1구좌) △중흥 천주사주지: 문경 동로중(1구좌) △이승지: 경남여고(1구좌) △이현숙(안동유치원장): (3구좌) △이훈용: 부산 안락중(1구좌) △김양정: (2구좌) △송양복: 부산 동주중(1구좌)
〈1996년 6월20일 현재 총312구좌 접수〉

◇보급기간: 1996년 12월31일까지
◇구좌단위로 참여(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습니다(지역 학교 · 출신모교 ·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 온라인계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은행입금후 반드시 본사로 연락바랍니다.

특별기획—경주남산 재조명 3면
6 · 25 인터뷰 해인사 지킨 법흥스님 5면
소쩍새마을 첫 수계현장 11면
봉영사 약수터 독서방 새명소 15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전자게시판 부다피아 모뎀번호 732-1330-3



SUPEX
SUPER EXCELLENT

선경의
세계화전략은
SUPEX추구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 시대는 이제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세계가 보호막 없는 단일 시장으로 바뀌고
세계 각 기업들이 무한경쟁에 돌입합니다.
선경은 이러한 시대를 앞서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계화 전략으로 수펙스를 추구해왔습니다.

수펙스(SUPER EXCELLENT 수준)추구 —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수준에 도전하는
선경의 경쟁우위 전략입니다.

SUNKYONG
鮮京그룹

사 설

기다려지는 여름 단기출가

이번 여름에는 각 사찰이 단기출가 수행 등 수련대회들로 꽉차게 될 전망이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해수욕장이나 관광지를 찾기보다는 승가의 엄격한 법도와 용맹정진을 체험하며 의미있게 보낼 재가불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4박5일 정도의 일정으로 불자들의 심신수련을 목표로 개최될 수련대회에 참가할 지원자들이 이미 수용의 한계를 넘고있다는 소식이다.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등 삼보사찰들은 모집인원보다 훨씬 넘게 참가신청서가 접수되어 마치 입학시험처럼 서류전형에 통과해야 된다고 한다.

단기출가 여름수련대회를 가장 먼저 실시했던 송광사는 이미 3대1 정도의 경쟁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역사성 만큼이나 규율이 엄격하고, 강원·율원·선원을 모두 갖춘 총림이란 점에서 꾸준히 관심을 끌고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가불자들만 열심히 찾는 것이 아니다. 10년 넘는 기간동안 축적된 산사수련의 유익함과 감동은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심정적인 불자 혹은 무종교인에게도 인기가 높다니 더없이 반갑고 다행이다.

이렇게 한여름의 휴가와 방학을 산사의 범종소리와 함께 출가정신을 갈고 닦는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도심속의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오염된 심신을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불자들의 참여를 권장한다. 다만 이러한 단기출가제도를 포교차원에서 정착되는 것은 물론이며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를 개선·보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선 종단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종합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첫째, 종단차원의 통일된 수련대회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련대회의 참가범위가 다양한 연령·계층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수련내용과 프로그램도 다양함과 함께 전문성, 적법(適法)성이 요구된다. 한국불교의 3대 목표인 역경·포교·도제양성 가운데 특히 포교의 방편으로 이를 시행한다면 포교원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과 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각 사찰별로 전통과 수련환경 등의 특성은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되, 기본적인 틀은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불교중흥을 이룰 수 있는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종단차원에서 인적·물적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수련대회나 단기출가를 과학적으로 기획·지도할 승가·재가의 전문강사등 인재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까지 산사수련대회는 해당 사찰의 몫으로 이뤄내 호평받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제는 진일보한 전문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종단차원에서 수련시설의 확충등 재정지원도 고려할 때이다.

셋째,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제도화시킬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기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인적자원의 홍보를 위해 불자들의 의식조사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재가불자들은 이러한 수련대회등 단기출가가 얼마나 필요하고도 중요한가를 새삼 인식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개인차원 뿐만아니라 가족 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부처님의 정법을 올바르게 깨우치고, 이를 생활화·사회화할 수 있는 발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1600여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국불교가 명실공히 우리문화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한민족의 자랑스런 유산으로서 제구실을 다할 수 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자.

열린마당

북한동포 식량지원 범종추 공청회 지상중계

정부의 3백만불 북한 지원발표 등으로 다시 북한수재민 돕기가 종교계 안팎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김영삼대통령이 조건없는 대북식량지원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도 정부와 종교계는 대북지원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범종단북한수재민돕기추진위원회(이하 범종추)는 지난 14일 '북한동포 식량지원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의 기조강연과 토론을 통해 정부와 종교계의 쟁점을 파악하고 종교계의 입장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군량미로 사용않는 투명성 전제돼야

김학준 〈단국대 이사장〉

북한 수재민돕기 활성화야말로 남북의 화해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적대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보낸 식량이 굶주린 북한동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군량미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투명성이 우리 국민 대다수에게 납득되어야 북한지원은 활성화될 것이다.

굶주리는 북녘동포 돕는건 당연지사

이윤구 〈범종추 실행위원장〉

'원수에게도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 종교의 가장 높은 가르침이다. 종교인은 겨레사랑의 빈곤과 정치적으로만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중병에 걸려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하물며 동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다. 행여 통일이 갑작스레 올 때 어떻게 낯을 들고 북녘 동포들을 대하겠는가.

종교단체 식량지원 남북통일에 일조

스티브 린튼 〈美유진벨재단 이사장〉

식량지원이 북한체제의 수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핵무기 경쟁이 극심할 때도 미국은 소련국민을 도와줬다. 종교단체의 식량지원은 북한체제가 무너질 때 오히려 남북국민을 자연스럽게 화합시키는 등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남북의 신뢰가 구축될 때까지는 UN이나 외국의 구호단체를 활용해야 한다. 언젠가는 직접 전달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정부입장 北 공식요청시 본격지원…민간 창구단일화

△북한당국이 식량지원을 공식 요청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한반도내에서 개최하며 △남한에 대한 비방중지가 이뤄지는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대북지원을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를 단일창구로 하되 지원품목을 확대, 쌀을 제외한 곡물 지원을 허용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방침이다.

남북종교인 교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송영대 통일원차관은 지난 14일 한 종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북지원에 관한 신한국당내의 분위기도 신중론에서 적극론으로 흐르고 있다.



◇북한의 한 주부가 유진벨재단을 통해 전달된 9kg짜리 쌀포대 2개를 들고 집안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 유진벨재단 제공)

북한 식량사정

홍수등 재해 겹쳐 영·유아 52만명 영양실조

북한의 식량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은 냉해피해를 입었던 93년부터이다. 북한의 곡물생산은 80년대에는 1년 소비량인 5백50만톤을 유지했지만 93년에는 4백만톤 이하로 떨어졌다. 이처럼 식량사정이 악화된 것은 냉해와 홍수 등 자연재해의 원인도 있지만 관개시설 부족, 토질산성화, 비료와 농약 농기계의 부족도 지적된다. 또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는 사회주의 농업관리방식(집단농장)이 한계에 이르렀음도 원인이다. 지난해 홍수는 북한농업의 구조적 모순에 자연재해까지 겹친 것이다.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는 북한의 식량사정을 심각하다고 보고하면서 "5세 미만의 영유아 52만5천명이 영양상태가 실조에 가깝고, 황해북도의 극심한 수해지역은 35만5천여명에게 보건의료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 10만명의 영양실조 예방은 시간을 다투는 긴급사업"이라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토론내용 北개방적 수용 선결과제 창구단일화 '정치논리다'

이날 토론의 쟁점은 투명성 확보문제와 민간단체 대북지원의 대한적십자로의 창구단일화. 법타스님 김명혁목사 최기식신부 등 종교계 대표와 김운근 농촌경제연구소 북한농업연구실장 장원석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 정부관계자의 토론참여를 요청했으나 불참했다.

투명성확보 문제는 정부가 종교단체의 발목을 붙잡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직도 대북지원에 냉담한 정부의 관리들 사이에 퍼져있다.

정원석교수(단국대·경실련 통일협회 경제분과장)는 이에대해 "현미로 보내면 장기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군량미로의 전용은 어렵다"며 정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또 개신교쪽의 요청으로 두차례 북한에 식량을 전달한 미국 유진벨재단의 스티브 린튼 이사장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상주 직원이 컨테이너 도착부터 주민분배에 이르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아프리카보다 확실하다"" 평가했다.

대한적십자사로의 창구단일화는 토론자 모두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법타스님(조계종 전 총무부장)은 "아직도 정부는 냉전논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달방법을 다양화해 종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지닌 북한사람들을 서서히 변화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식 신부(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 총무)는 "배고픈 형제를 돕는데 방법을 놓고 힘을 낭비하고 있다. 정부의 정치적 논리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한 종교계의 대북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대표 등 1백여명은 결의문을 통해 "대북식량지원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에 대해 △식량제공의 범위를 민간 구호기관에 맡길 것과 △기업과 언론의 대북지원 허용을 촉구했다.

또 북한당국에 대해서도 남한의 지원을 직접 수령하는 개방적인 자세와 투명성 보장에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만평

박구원



현대판 신문고

목어

'썩은양심'을 소생시키자

사람들은 내일을 기다리며 거기 희망을 건다. 즉 내일이 있어 오늘을 살고 그래서 오늘이 더욱 소중하다. 오늘을 마구살면 내일은 무너진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마치 내일을 포기한듯 '환경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새겨야 할 말이다. 검은 폐수가 방류되고 있는 죽음의 강 한탄강을 보노라면 뻔뻔한 '썩은 양심'을 보는 것 같아 한탄스럽기만 하다. 도대체 살자는 것인가 죽자는 것인가.

주민들은 말한다. "한탄강의 신천오염은 하루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비만오면 어느 공장이 오·폐수를 무단방류 하는지 눈치채고, 10년전부터 관에 항의하다 지쳤다. 그래서 이제 사건화하는 것에 오히려 어이없을 뿐이다."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당국의 감시소홀, 무관심, 무능력, 고의적 은폐를 비난하면서 '환경사범'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언론이 떠들고 대통령까지 나섰으니 이제 한탄강을 다시 살리고 나아가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왠지 썩 믿기지 않으니 바로 그 점이 문제다. 지난 3월 김영삼대통령은 녹색국가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환경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도 눈뜨고 차마 볼 수 없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있지 않은가.

한탄강은 환경비상의 일부분일 뿐이다. '컴컴한 대낮'으로 관측된 서울의 대기오염은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그런데도 그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드디어 조순 서울시장은 사회각계 인사 1천명에게 편지를 썼다. "여러분 과감하게 차를 집에 두고 가까운 지하철 역이나 버스정류장으로 한번 가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환경운동단체 녹색연합은 더 늦기전에 '환경비상사태'를 선포하자고 촉구했다. 이느 교수는 이 위기를 넘기려면 정부·업체·시민 모두 혁명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불교계에서는 때마침 대도시 순회 '청정운동 실천대회'를 갖고있다.

이러한 운동과 외침과 호소가 헛되지 않아 '썩은 양심'을 소생시키고 '이기심'이 '보살심'으로 전환되길 염원한다. 그래야만 내일의 청정국토를 기대할 수 있다.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진정한 친구

"나는 너의 친구다" 말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말아서 도와주지 않는 사람, 그는 내 친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아함경〉

협찬 유마선원
원장 이제열
TEL.(02)597-9129

제23회
대한불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연수회
주제 : 부처님 마음·어린이 마음

■기 간 : 2540년 8월 3일(토) - 8월 5일(월)(2박3일)
■장 소 : 경북 김천 직지사
■주 최 : 대한불교 유아교육협회
■후 원 : 불교방송, 불교TV,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협 찬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포교원
■수강요령 : 유치원 교사, 어린이 집 교사 및 유아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분
■수강인원 : 250명(선착순 접수)
■연수회비 : 50,000원(수강료, 숙박비, 기념품 지급)
※연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교재와 불교유치원용 찬불가 테이프를 드립니다.
■준 비 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색종이수업준비물(양면색종이 5통, 풀, 가위, 색도화지 8절지 3장, 고무밴드, 테이프, 우유곽 2개, 빨대 3개, 종이컵 4개)
(법복바지가 있으신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수회장 : 경북 김천시 황악산 직지사 전화 : 종무소(0547-436-6174)
■교통안내 : 대형버스(부천석황사)가 당일 아침 6시 부천 북부역 출발
→7시 서울 삼성동 현대백화점 정문 경유
→11시, 12시 김천역(2회운행) →직지사 도착
■문 의 : 대한불교유아교육협회 사무국(부천석왕사 룸비니 유치원)
전화 : 032-652-0059

일자 \ 시간	3일 (토)	4일 (일)	5일 (월)
05:00 - 05:30		기 상	기 상
05:30 - 06:30		예 불	예 불
06:30 - 08:00		아침공양	아침공양
08:00 -09:00		불교유치원 행사 프로그램 소개 및 인형극, 구연동화	유아예절교육 (한마음유치원 서정희원장님)
09:00 - 10:00			불교와 유아교육(동국대학교 사범대 교육학과 박선영교수님)
10:00 - 11:00		유아의 언어표현과 지능발달 (이화여대교육심리학과 김재은교수님)	
11:00 - 12:00			폐 강 식
12:00 - 13:00		점심공양	재회를 약속하며(점심공양)
13:00 - 14:00	등 록	예쁜종이나라 (KBS/TV유치원 만들기 김영만강사님)	
14:00 - 15:00			
15:00 - 16:00	개 강 식	불교교재 활용법(옥천연화유치원)	
16:00 - 17:00	발우공양습의	불교유치원노래및 유아레크레에이션 (선재 이벤트)	
17:00 - 18:00	직지사에 대하여 (직지사교무 대혜스님)		
18:00 - 19:00	저녁공양	저녁공양	
19:00 - 20:00	저녁예불	저녁예불	
20:00 - 21:00	예불문강의 (범어사 무비스님)	우리의 전통문화 (마당놀이 극인 김중엽 강사님)	
21:00 - 22:00			
22:00 -	취 침	취 침	

대한불교유아교육협회 회장 임 영 담 합장

온 산에 부처님 미소 '인류의 보배'

특 별 기 획

경주남산 재조명

연재 순서

① 총 론
② 남산은 어떤 산인가
③ 남산 훼손실태
④ 남산을 가꾸는 사람들
⑤ 남산 이렇게 지키자
⑥ 남산으로 떠나자

삼릉골을 따라 오르다가 방향을 잃고 어느 쪽으로 가야하나 망설이며 고개를 들었을 때, 저기 자비한 미소. 아찔하니 눈이 부셨다. 삼릉골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마애관음보살상이다.

천년 전 저 바위를 쪼았던 이는 누구였나. 들어가고 나온 선에 담은 마음은 무엇이었나. 자꾸 1천년의 시간을 건너뛰려는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다. 바위가 부서져 모래가 되고, 쪼그려앉아 모래 한 알갱이 손가락 사이에 넣고 비비며 모래 한알의 무게를 깨치게 된다. 바위도 부처의 한 자락이다. 남산은 그런 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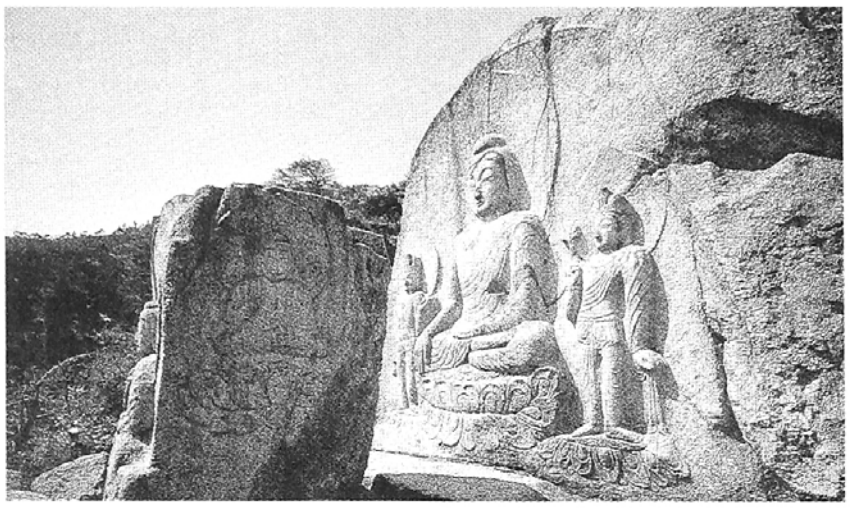
70여개 답사로 '작지만 큰산'

경주도심 남쪽에 자리해 남북으로 길게 거북형상으로 누워있는 남북 12km, 동서 4km, 해발 494m의 야트막한 산. 불교 전래 이전부터 남산은 신라인들에게 신령스런 대상이었다. 백성들의 고단함을 달래주고 삶의 희망을 주었던 암석신앙의 성지였으며, 신라건국설화의 현장이다. 남산 좌우로는 넓은 평야가 놓여 있고, 북으로는 신라왕족과 귀족들의 거대한 봉분, 동북편으로는 반월성 신월성 금성 등이 둘러싸고 있다. 서울의 남산보다는 조금 큰, 산으로 치자면 작은 산이다. 그러나 금오봉과 고위봉에서 흘러내린 수많은 봉우리들과 40여개의 계곡이 제법 깊어 안내자 없이는 목적지를 지나치기 일쑤다. 그러나 어느 길로 들어서든 작은 봉우리와 70여개의 답사로가 이어져 길을 잃을 염려는 없다. 작지만 큰 산. 이것이 남산의 비밀이다.

남산은 말 그대로 불교성지이다. 115곳의 절터, 87체의 불상, 71개의 석탑이 계곡과 능선마다 즐비해 가을앞에 모은 손을 내려놓지 못하게 한다. 그밖의 것까지 합한 불교유물유적은 422건에 이른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도 보물 제124호 남산동 3층석탑, 미륵골 석불좌상(136호) 등 22점이나 된다. 특히 탑골 마애9층탑(보물 201호)은 황룡사 9층목탑의 원형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탑이어서 목탑연구의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부처골 탑골 용장 사골 열반골 등 골짜기 이름만으로도 부처님나라이며, 남산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부처님 품에 안기는 것이다.

삼국유사의 기록들은 당시 남산에 깃든 부처님의 자취를 생생하게 복원해준다. 남산에 부처님이 계시는 곳임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효소왕 6년(697) 망덕사에서 낙성회가 열렸다. 몹시 허름한 모양의 한 비구가 '빈도도 이 재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고 청했다. 왕은 이를 허락하고 희롱하며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디 사는가.'



칠불암 마애삼존불(보물 제200호). 높이 5m 너비 8m로 병풍처럼 솟아있는 절벽바위면에 높은 돋을 새김으로 삼존불이 새겨져 있다. 남산불상 가운데 으뜸으로 손꼽힌다.

절터·불상·석탑등 즐비 '세계적 노천박물관'

자연과 어우러진 유물들 천년의 신비 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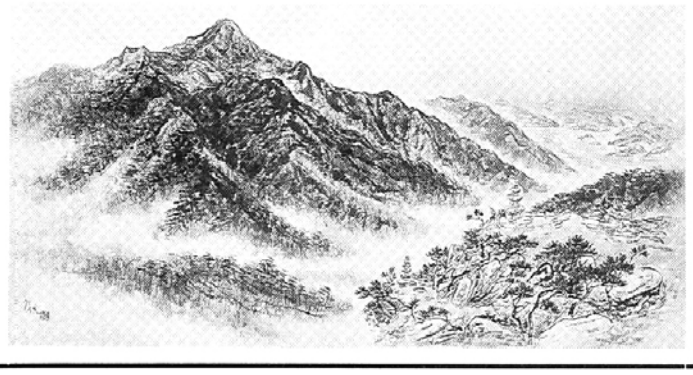
'비파암입니다.' 왕이 다시 말하기를 '이제 가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국왕이 친히 불공하는 재에 참석했다고 말하지 말라.' 비구승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폐하께서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진신석가를 공양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몸을 솟구쳐 하늘로 올라가 남쪽을 향하여 갔다."

남산에는 또 석기시대 유적을 비롯 박혁거세가 알로 내려온 신라 창건설화의 현장인 나정(羅井), 경애왕이 백제군에 쫓겨 죽음을 맞이한 포석정, 남산성이 있다. 한국고대사 연구의 탯줄로 사학도 고고학도라면 거쳐 가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그런가하면 예술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곳이기도 하다. 화가와 사진작가 시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김시습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집 〈금오신화〉의 고향이 금오산의 남쪽 능선에 자리했던 용장사였다.

한번오면 누구든 반해

처음 이곳에 온 사람들은 놀라움과 신비감에 사로잡힌다. 불교유적의 많음에 놀라고 바위에 붓으로 그린 듯 조각한 솜씨에 감탄한다. 이 조그마한 산에 어찌 저리도 많은 유물유적이 모여 있는 것일까. 신라인의 숭고한 신앙심과 예술적 감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국립중앙박물관 강우방 학예연구실장은 '경주남산론'에서 "한국인의 종교적 정열이 이처럼 한곳에 집중된 암석산은 남산 이외에는 없다. 계곡마다에서 불교신앙의 흔적을 보며 모든 암석들과 수목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속삭이는 것 같다"고 남산의 신비로움을 풀이했다.



◇용장계곡에서 바라 본 남산정상인 고위봉. 142×75, 95년. 〈그림=이호신〉

그런가하면 경주사적관리사무소의 김구석씨는 "남산의 부처님들은 석공들이 쪼아서 만든 것이 아니다. 바위속에 계시던 부처와 보살들이 석공이 정을 대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되묻는 말로 대답을 대신한다.

누구든 한번 오면 반하고 만다. 8년전 경주에 정착, 남산실측지도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 송재중씨(신라중 교사)와 석불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한국석불문화연구회'를 구성하고 10여년 넘도록 남산을 찾는 이근후교수(이화여대 신경정신과)는 "부드러운 능선과 깊은 계곡, 기암괴석, 늘 푸른 소나무, 무엇보다 역사의 향기가 배였다는 것이 좋았다"라며 "자연과 함께 조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산"이라고 남산을 예찬했다.

불교유적은 대체로 7세기에서 9세기에 조성된 것들이다. 93년 작고한 김원룡선생은 "남산의 석불들은 7세기초 고신라 말기부터 시작하여, 10세기초 통일신라 말기까지의 약 3세기에 걸친 작품들이면서 많은 부분은 신라조각으로서는 전성기를 지난 8세기 후반과 9세기의 것들이다"고 밝혔다. 가장 오래된 부처님은 부처골의 둥그런 달님같은 얼굴의 감실석불좌상이다. 남산은 3백년 역사를 한몸에 간직한 유일한 곳, 세계적인 노천박물관이란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니다.

경주의 향토사학자 윤경렬선생은 이곳 남산을 "인류의 보배"라고 표현한다.

"부처님 얼굴은 또렷히 조각했으면서도 아래로 내려오면서 흐지부지 선으로 처리했는데, 산 그대로의 모습과 조화시킨 절묘함이다. 사람의 손길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자연과 조화를 꾀하려했던 신라인의 심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부처님이 가르친 삶의 지혜와 도리, 아름다움의 전형이 남산에 있다."

정성운 기자

시 론

이기고 지는 도리를 아십니까

— 여의도에 띄우는 편지

인사치레의 서두는 생략하겠습니다. 불쑥 본론부터 꺼내는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그동안 삼척동자도 뻔히 아는 본론은 감추고 장황한 논리를 앞세워 명분 싸움만 해 온 정치인들에게 신물이 난 터라 필자는 거두절미하고 속에 있는 말을 먼저 털어 놓는 것이 차라리 신선할 것 같아서 입니다.

명분싸움만 하는 선량들

선량들이여, 하루 속히 입법부를 구성하십시오.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입법부의 공백은 단 하루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여당의원들께 말 하겠습니다. '국회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여당의 주장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샅바 싸움 때문에 국회가 의장단 선출 조차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은 양쪽 모두를 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이야 죽건 말건 재판에 이기기 위해 양쪽에서 잡아 당기기만 하는 두 여자는 둘 다 생모가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김 재 성
〈서울신문 출판국 차장〉

서기 2000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15대 국회는 20세기를 매듭짓고 21세기를 여는 의미 깊은 국회입니다. 또한 우리는 통일이라는 민족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국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은 새삼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민주주의의 묘미는 대화와 타협에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복수정당제도를 택한 소이도 개인이든 세력이든 어느 한쪽의 일방통행을 막기 위한 것입은 두말 할 필요도 없겠지요. 이는 '나는 속절없는 중생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만일 권력을 독점하면 독선에 빠져 나도 위험하고 국가도 위험하고 국민도 불행해질 것입니다'라는 겸허한 고백을 제도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군자(君子)는 목적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有所不爲) 소인은 목적을 위해 하지 못하는 것이 없음(無所不爲)이 군자와 소인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인류는 위정자가 군자이기를 바라는 것보다 차라리 권력을 분점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Check & Blance)을 유지하고 복수정당을 두어 경쟁하면서 협력하고 대립하면서 타협하는 유한정치(limited policy)를 창안해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위정자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만 잘 지키면 군자의 왕도정치를 펼치는 셈이 됩니다. 참으로 지켜 볼만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숲 속에 파묻힌 사람이 숲을 못 보듯 너무나 상식적인 해법이 선량들에게만 안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필자의 기우일까요? 어쨌거나 정치의 A, B, C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이고 보면 그것이 저만의 기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언하자면 중생은 누구든지 자기 입장에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인 일파의 독주를 제도적으로 막아 놓은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히 따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면 어떨까요? 가령, 여당이 먼저 '국회의 개원이 협상의 대상일 수는 없지만 입법부 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므로 원 구성의 정체조건으로 내세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칩시다. 과연 여당이 지는 것일까요? 야당과의 힘 겨루기에는 졌을지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는 이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은 솔로몬보다 현명

반대로 야당이 먼저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를 인위적으로 바꾼 국회는 원상회복이 돼야 하지만 더 이상 입법부의 공백을 방치할 수 없으므로 일단 원 구성부터 해놓고 싸우겠다'고 선언한다면…? 아마 전투에 지고 전쟁에 이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모래판의 씨름은 샅바 싸움에 밀리면 본게임에서도 밀리지만 정치의 씨름은 샅바 싸움에서 지는 것이 본게임에서 이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솔로몬보다 더 현명합니다. 아이를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차마 당기지 못하고 놓아 버리는 쪽이 진짜 생모인 것을 국민이 왜 모르겠습니까?

원력과 서원 기도가 함께하는 정중선원

고승 초청 영가 천도법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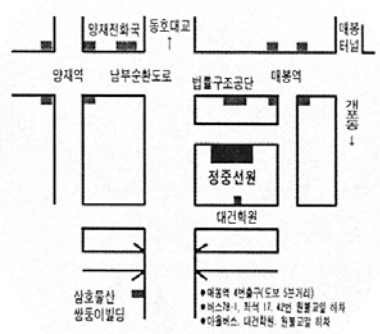
영가 천도제 왜 하여야 하나?

지난 4년 동안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영가천도 금강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저희 정중선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격주로 대덕 큰 스님을 모시고
"천도 시식 왜 하여야 하며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 라는
주제로 천도법회 법문을 듣고져 합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의 많은 원선과 수희 동참을 바랍니다.

금강법회 초청 법사

- 6월24일 월 성 큰스님(본선원 원장)
- 7월 1일 월 주 큰스님(조계종 총무원장)
- 7월 8일 무진장 큰스님(전 포교원장)
- 7월22일 종 범 큰스님(승가대 교수)
- 8월 5일 혜 정 큰스님(청계사 회주)

찾아오시는 곳



강남구 도곡동 518-7 영재빌딩 / 전화 578-8506번

정중선원 주지 광진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큰스님 초청 대법회

● 주제 :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란

모든 중생과 더불어 불국토 건설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보살도를 실현하려는 자비의 실천 운동입니다.
왜 우리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는가?
불교 사회화 운동의 기수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께서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큰스님 초청법회

- 일 시 : 1996년 7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강남구 도곡동 정중선원
- 법문내용 :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대하여

법회 안내

정증선원(02)573-8506

고승초청 영가 천도법회
오전10시30분
7월1일 월주스님
7월8일 무진장스님
7월22일 종범스님
8월5일 혜정스님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30분
금강법회 매주 월 오전10시30분
교리법회 매주 수 오후1시

미타사(02)662-4736

신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지장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철야참선 매주 토 저녁10시

도선사 포교당(02)352-5405

신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미타재일 매월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24일(음) 오전10시

덕명사(062)365-0367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30분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청년부법회 1·3주 일 오후4시

전북 불교회관(0652)77-3497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주 목 오후7시
대학부법회 첫째 월 오후6시30분
일반신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광주 금륜회관(062)224-0175

중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고등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5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저녁6시
정기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자광사(042)822-9219

신중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화엄법회 매월7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성지순례 매월15일 오전6시
교양대학 매주 일 오전9시30분
거사림법회 첫·셋째 수 오후7시
철야기도 매월 셋째 토 오후7시
학생법회 매주 토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혜진선원(032)693-3326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법회 15일(음)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예천포교원(0584)654-6788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중고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법회 매주 수 오후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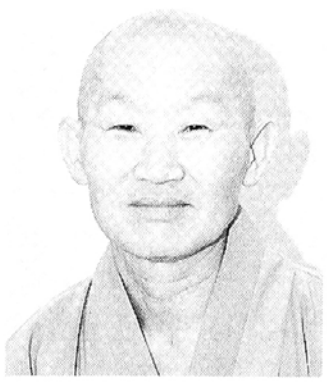
용천사(032)502-6058

화엄기도 매월1일(음) 오전11시
합창단법회 매주 금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보살심으로 동참한 이들에 감사 지장전·청소년수련장도 세울터"

국내최대 3층목탑 보탑사 통일대탑 회향한 지 광 스님



"단청장 한석성 할아버지는 공사비로 받은 2천만원 모두를, 조희환 대목은 1천만원을 도로 내놨어요. 시공을 맡았던 지헌건설의 문화재담당 김영일상무는 자기집을 잡혀 직원들 월급을 줬답니다. 여기서 일한 사람들은 서까래 하나씩이라도 동참했답니다. 모두가 보살님들입니다. 저절로 큰절을 올리고픈 심정입니다."

지난 9일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3층목탑을 완공하고 3층의 미륵불에 이어 1층에 동서남북 4면에 12분의 부처님을 모신 보탑사주지 지광스님(삼선포교원장). 그래서 끝내 기쁘고 고마워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통일대탑을 두고 크기만 말해 국내최대라고 하는데, 그것말고 황룡사 9층목탑을 세운 선조들의 장인정신과 기법을 재현한 것과 사방불 신앙의 복원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사방불신앙은 동서남북 각 방향에 부처님을 모시는 신앙형태인데, 한국불교 초기에 나타났다. 이는 한국불교의 전래가 중국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 불교를 전해준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역사 바로세우기'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

보탑사 통일대탑은 공사기간 40개월, 연구·설계까지 합하면 5년이 걸렸다. 연건평 152평짜리 건물이면 6개월에 지을 수 있다며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통일대탑은 현존하는 다른 목탑과는 다르다. 다른 곳은 1층만 올라갈 수 있을 뿐 그 이상은 출입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까. 1천년전 우리 조상들은 황룡사 9층탑을 세웠는데….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탑과 중국 일본의 고탑을 연구했다. 현지답사도 수차례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보덕학회의 연구비지원 2천만원을 받아 〈탑과 사방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펴내기도 했다. 설계를 맡은 박태수씨(태창건축설계 대표)는 한 트럭분량의 파지를 만들어내야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또다른 시작이다. 2층 법보전에 신라시대 이후에 맥이 끊긴 석경을 모실 일이 남아 있다.

사방불신앙 재현 … 법보전에 법화경 석경 봉안추진

"999장의 석판에 한글 법화경 18만자가 새겨집니다. 이미 석주큰스님이 글을 써주시기로 했고, 1자 1만원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법화경을 택한 까닭은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설한, 가장 간절함이 깃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보탑사가 있는 보련산 기슭 90만평 부지에 요사채와 종각 산신각 지장전을 지어야 온전한 마무리이다. 3차 계획은 청소년수련장 건립이다.

그러나 시작의 때는 정해져 있지만 끝은 스님 스스로도 모른다고 답한다. 그렇다고 결코 서두르지는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적으로 불자들의 시주에 의존하니 빠르면 1년안에도 되고, 늦으면 다음 대의 스님으로 이어지겠지요. 서두른 걸음은 반드시 발을 헛딛습니다."

한편 지광스님은 오는 8월15일 해라시아 문화연구소(소장 신영훈)가 보탑사에서 개최하는 '한국의 사원건축' 강좌에서 '보탑사 세운 뜻'을 주제로 강연한다.

정성운 기자



◇왼쪽부터 김동흔 인동일 강문규씨, 송산 시현 환월 종후스님.

구호기구 '이웃을 돕는 사람들' 창립

세계기아, 질병, 아동 국제기고 활동을 펼칠 '이웃을 돕는 사람들(회장 송산스님)' 창립대회가 지난 14일 조계종 총무원 1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성타(조계종 포교원장) 정덕(자비의 전화회장) 스님을 비롯 경불련, 한국시민단체등 불교계 시민단체의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법산스님, 허길룡 목정배 김생빈씨, 녹원 혜초 원산 성관스님, 홍윤식교수.

병원 건립위한 동국불교미술인展

동국대학교 부속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마련 제2회 동국불교미술인전이 지난 19~25일 관훈동 공평아트센터에서 성료됐다. 지난 19일 오후4시 거행된 개막식(사진)에는 법흥 보광 범하스님등과 서돈각 황수영 김종규 정영호 오형근교수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 축하했다.



제5회 불교인권상 시상식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한상범)가 제정, 시상하는 불교인권상 시상식이 지난 17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법당에서 개최됐다. 조계종 종회의장 설정스님 포교부장 원혜스님을 비롯 민가협 회원등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시상식은 올해로 다섯번째 맞는 것으로, 前 철도노조의장 김창한씨가 '96 불교인권상을 수상했다.



청암스님 '불교, 절에 대한…' 출판회

청암스님(금하선원장)의 불교교양대학 입문서 '불교, 절(寺)에 대한 바른 이해' 출판기념법회가 지난 17일 서울 소피텔엠배서더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문화사회부장 성관, 동국대 동림동문회장 성웅, 수국사 주지 자용, 우리출판사장 무구스님과 고전무용가 김지연씨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교차로

노사문제 원만해결 축구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9일 로얄호텔에서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목사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통신과 서울지하철공사등의 노사문제와 관련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뉴욕 퀸스칼리지서 특별법문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은 22일 뉴욕퀸스 칼리지 콘서트홀에서 열린 특별 대법회에서 뉴욕시민과 불자들을 위해 법문을 했다. 지난 19일 도미한 스님은 라디오 TV등 방송에 출연 법문과 대담을 했으며, 한마음선원 뉴욕지원 수계법회도 참석했다.

장기이식법 추진위원에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권기종교수(동국대 불교학과)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의 '장기이식법률 제정추진협의회(위원장 이기호복지부차관)'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장기이식법률 제정추진협의회에는 종교 의료 법조 소비자 등 각계 인사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태조산서 자연보호 활동



법등스님(도리사 주지)은 오는 30일 도리사 신도회원과 중·고등학생등 5백여명과 함께 경북 태조산 일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연보호 홍보활동을 펼친다.

불교문화센터 다보법회 법문

혜달스님(선우도량 상임대표)은 26일 오후2시 불교문화센터 다보법회에서 법문한다.

황금보전 노사나불 점안식



자용스님(수국사 주지)은 지난 20일 황금보전 노사나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스님은 26일부터 수국사 제2기 황금불교교양대학을 연다. (02)359-6297

보훈의 달 영가천도재



마일운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교육보조자)은 6월 원호의 달을 맞아 지난 8일 '보훈의 달 마일운스님 영가천도재'를 민속박물관 2층강당에서 봉행했다.

민불협 창립11돌 기념법회



법혜스님(민족통일불교 중앙협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부산 그랜드호텔에서 창립1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종협 사무총장 퇴임

박래선법사는 구리시 관음정사 지도법사로 포교활동에 전념키위해 종교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난 5월말로 사퇴했다. (0346)67-2812

하계교육·법사 품수식



목정배학장(법사원 불교대학)은 '96 하계 소집교육및 법사품수식을 당초 일정보다 늦춰 8월8일~11일까지 경북 김천 직지사 수련원에서 봉행한다.

'불자가례 어떻게…' 세미나



류진수씨((사)부산불교신도회장)는 오는 7월2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부산불교교육대학 총포교사회 후원으로 '불자가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민족 예의 선양회장 유임



덩형관씨는 지난 15일 한민족예의도덕선양회 총회에서 회장에 유임됐다. 이날 총회는 새 이사 7명을 선임했다.

'오오문화상' 수상



김종상씨(아동문학가, 유석초등학교 교감)는 지난 13일 한국청소년기금이 제정한 제2회 대한민국 오오문화상(문학부문)을 수상했다.

오오문화상은 어린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게시판

▲'불보신문' 창간 사원 모집=봉도사는 주간 '불보신문'에서 근무할 경력·수습기자 및 광고·업무 직원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 제출 6월22~25일. (0525)83-8553

▲조계사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조계사는 문화강좌 7월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강좌는 불화그리기, 서예, 사군자, 판소리, 단소, 가요부르기, 수지침, 꽃꽂이, 다도, 선체조 등. (02)720-1390

생생한 법어, 생생한 불교사료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 !!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창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1호 를 발간하였습니다.
■ 합본호 1집 :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10.15) ▶ 제59호(95.12.27)
■ 가 격 : 50,000원 (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생활속의 불교 ⑦⑧

마음의 오체투지 - 열쇠를 받는 길

손님이 얌전하지 않으면 이발사는 머리를 깎아 줄 수 없다. 환자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의사는 수술을 할 수 없다. 원하는 결과를 보려면 그렇게 내어 맡겨야 한다.

충직한 하인은 주인을 믿고 따른다. 일체를 주인의 결정에 맡긴다.

성실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승의 모든 것을 전수하게 된다.

만약 스승을 불신하는 제자, 주인을 못 믿는 하인이 있다면 그는 이미 제자나 하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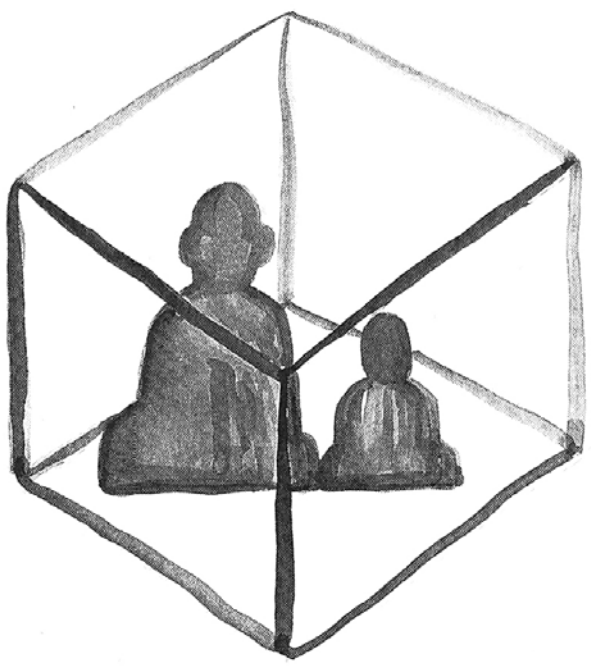
믿음, 맡김. 그것이 없이는 열쇠를 받을 수 없다. 주인이 곳간 열쇠를 넘겨줄 리도 없고, 스승은 땀의 결정을 대물림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믿고 맡기는 지극한 정성이 있을 때 비로소 스승과 제자, 주인과 하인 사이엔 서로가 둘이 아닌 교감이 가능해진다.

아기가 배고픔을 느끼면 엄마의 유선(乳線)은 저절로 부풀어 오른다. 송아지가 어미 소 곁으로 다가서면 어미 소의 젖에선 우유가 흘러 내리기 시작한다.

어미와 아기 사이엔 완벽한 믿음과 맡김이 있기 때문이다. 터럭만큼의 의심이나 불신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과 맡김이 부족하면 젖은 흐르지 않는다.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지 않는 환자를 어떤 의사가 반기겠는가. 스승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제자에게 어떤 스승이 비방(秘方)을 내어 놓겠는가. 주인을 불신하는 하인에게 어떤 주인이 곳간 열쇠를 맡기겠는가?

가령 자기를 내세우면서 열쇠를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다만 어리석음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리석음인 줄 모른다면 남는 것은 삼독의 마음이요, 고통의 삶일 것이다.



오체투지(五體投地). 그것은 믿음이요, 맡김이다. 지심귀명례이다. 나를 버리고 일체를 버리면서 귀의하겠노라는 마음의 다짐이다. 삼계의 도사이신 부처님께 하찮은 제자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알몸으로 엎드린다는 뜻이다. 송아지가 어미 소 곁으로 다가가는 것이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이다. 거기에 자기라는 상은 없다. 나의 생각이라는 어리석음도 없다.

완벽한 오체투지만이 열쇠를 받는 길이다. 그밖에는 어떤 길도 없다. 있다면 그것은 외도의 가르침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법을 스승 삼고 너 자신을 스승으로 삼으라고 가르치셨다. 자성삼보에 귀의하라는 말씀이다. 형상 있는 그 어떤 것, 심지어는 당신의 색신까지도 부정하셨다. 귀의할 곳은 오로지 다르마와 진여 자성뿐이라고 하셨다. 오체투지는 바로 이 진여 자성을 믿고 일체를 내어 맡기는 것이다.

어떤 구세주도 내 마음 안의 구세주 진여 자성만 못하다. 따라서 형상을 믿고 이름을 믿고 허공을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나 귀의가 아니라 어리석음이요, 탐심일 뿐이다.

믿고 귀의할 곳은 오로지 진여 자성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어미요, 나의 뿌리요, 본래면목이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고 수학문제가 안 풀리면 스승을 찾듯이, 아이가 어미를 찾듯이, 하인이 주인을 따르듯이 그렇게 나의 뿌리 - 불구부정의 영원한 생명에 귀의한다면 삶은 분명 편안하고 싱그러워진다. 어미의 품속에 안긴 아이의 삶처럼 그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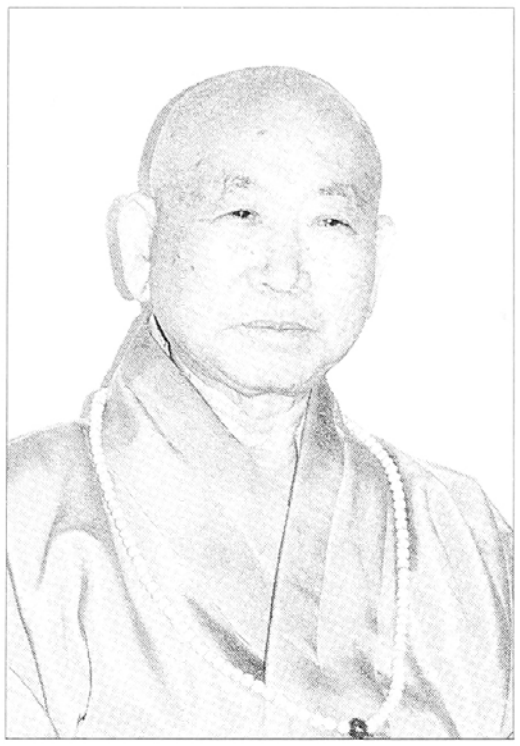
진여자성, 나의 주인공을 믿고 일체를 맡기는 삶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삶이다.

협찬: 주 인 공

6·25 특별인터뷰 원효종 종정 **법홍스님**이 말하는 해인사 소실위기

"80여 대중 호법의지 대장경 사수"

6·25전쟁 당시 해인사 원주로 있으면서 해인사를 폭파·소실의 위기로부터 구해낸 원효종종정 법홍스님(82세)을 스님이 주석하는 부산 금수사에서 만났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천진동안(天眞童顔)에 정정함을 잃지않은 스님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법보종찰 해인사와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국보 32호)이 오늘까지 지켜질 수 있었던 실화를 듣는다. 〈편집자 주〉



◇6·25 당시 해인사 원주 소임을 맡아 인민군에게 고초를 당하며 해인사를 지켰던 일을 회고하는 법홍스님.

산내암자 군사작전지로 사용
북한군 800명 경내훼손·스님구타

-먼저 북한군이 해인사로 진입하던 당시 상황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32세 되던해에 인연이 닿아 해인사로 갔었어요. 효봉큰스님께서 방장, 혼해스님(입적)께서 주지로 계시던 때였지요. 당시 해인사에는 구산스님 원명스님 보성스님 등이 계셨습니다. 그때 나는 절 안살림을 보는 원주 소임을 맡게 됐는데 얼마후 6·25가 발발했어요. 장경각을 사수하기 위해 약 80여 대중들과 더불어 피난도 안가고 남아 있었습니다. 7월14일로 기억됩니다만 김천에서 남하하던 북한군 8백여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젊은 인민군들은 저녁공양을 마치고 11시가 지나자 퇴설당에 계시던 20여 노스님들을 모아 놓고 회초리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백성의 피를 빨아 먹는다"고 막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섰지요. 마음공부하면서 자체적으로 농사지어 먹고 사는 노스님들에게 행동이 지나치다고 달랬습니다. 또 폐병걸린 분들도 많다고 설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6·25때 산속에 위치한 대부분의 전국 사찰은 전화를 입었습니다. 폭격이나 방화로 소실된 곳도 수없이 많았는데요. 당시 해인사는 어떠했습니까.

▲당시 산내 암자는 군사 작전지로 활용됐던 것 같았어요.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었겠지요. 특히 국일암에는 군사조직부가 결성됐을 정도이고 젊은 스님들은 징발당해 낙동강전선 등으로 보내졌습니다. 합천일대는 완전히 북한군으로 적화된 상태였었고 아주 살벌했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법보종찰을 온전하게 구하셨는데 그때 경위를 말씀해 주시죠.

▲내 혼자 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불보살님의 가피이며 80여 대중의 호법의지였지요.

당시 UN군 비행기는 북한군만 보면 폭격했습니다. UN군의 폭격을 모면키 위해 피를 냈습니다. 북한군들을 약수암·삼성암·국일암 등 각 암자로 분산시켜 숙식토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5일만에 북한군 책임자와 내무서장이 부르더니 "왜 김일성수령을 반대하느냐", "왜 아군이 오면 암자에 재우느냐"며 금방이라도 죽일 기세였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김일성수령이 세계적 보물인 고려대장경을 잘 보호하라는 지령을 인편으로 하달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령의 명령이라는 말에 어쩔도리가 없었던지 "앞으로는 아군이 오면 본사에 재우라"고 명령하고는 돌려보내줬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얼마있으니까 이번에는 본사에다 야전병원을 설치하겠다는거예요. 내무서장에게 진정서를 내도 효과가 없어서 합천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묘산에다 야전병원을 내게 됐는데 일주일도 안돼서 UN군 폭격을 받아 초토화가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벌벌 떨리더라구요.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되고 북한군이 후퇴했을 때도 해인사가 무사하지 않았을텐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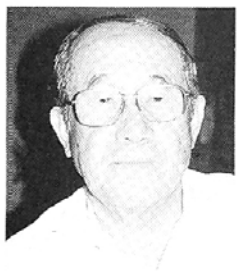
▲그랬습니다. 북한군이 보물창고(장경각 등) 열쇠를 내놓아라고 해요. 하는 수 없어서 내방으로 가자고 하고서는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관음전 근처 돌계단에서 한명이 걸려 넘어지자 뒤따르던 군인도 엉켜서 넘어졌어요. 이때다 싶어 담을 넘어 극락전으로 뛰었습니다. 따발총을 마구 갈겨대더군요. 정신없이 뛰어 대밭에 이르러 기절해버렸습니다.

-전란의 시기에 원주소임을 맡아 법보를 지켜낸 배경에는 스님과 해인사간에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소견으로야 될 일입니까? 불보살님의 무한한 가피력이 있었던 게지요. 호국안민·국태민안을 염원하며 고려대장경을 조성하던 옛조상님들의 원력이 전란으로부터 법보를 구해낸 것입니다. 그 정신 길이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이윤호 기자

"UN군 폭격때 암자마다 공산군 분산 숙식유도"



"성보에 폭탄 떨어뜨릴 수 없었죠"

해인사 폭격명령 거부한 **장지량** 씨

"해마다 이때쯤이 해인사에 가고 싶어집니다. 장경각에 들러 경판들도 보고 법당에서 부처님께 절도하고 싶어 집니다."

6월이면 유난히 해인사를 가고 싶다는 장지량(72·前공군 참모총장) 한국군사학회 회장. 그는 故김영환대령(54년 작고)과 함께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지킨 호법신장이다.

1951년 7월에 그는 한국 제1전투 비행단 참모였다. 경남 사천비행장에서 그는 상부로부터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인민군 3백여명이 해인사로 숨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부단장인 김영환대령과 함께 "이 명령을 수행할 경우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이 잿더미가 된다. 어차피 인민군은 3~4일후면 식량이 없어 절에서 나갈텐데 우리 민족의 자랑인 대장경을 폭격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투기를 이륙시키지 않았다. 때문에 미군군사고문관 윌슨대위와 설전을 벌어야 했고 이승만대통령의 노여움까지 사야 했다.

"해인사에 가면 모든 것이 부처님 가피였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팔만대장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을때 저는 전쟁당시를 생각하며 밤잠을 설쳤었습니다."

장회장은 해인사를 폭격에서 구한 이야기를 지관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과의 대담으로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시간을 통해 들려준다. 방송은 25일 오후 5시10분. 〈태〉

세번 죽어야 하는 의미는

문 스님의 법문집을 보니까 불법공부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셨는데 요지는 '세번 죽어야 한다'인 것 같습니다.

제 나름으로 이해하기엔 첫째, 참나의 발견 둘째, 불이법의 터득 셋째, 보살도의 완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세번 죽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현·충북 음성군 대소면〉

답 첫째는 죽어야 나를 본다 한 것이고 둘째는 나와 너가 함께 죽어야 더불어 둘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 것이고 셋째는 일체와 더불어 죽어야 나툼의 도리를 안다고 한 것입니다.

이 세 단계를 체험해야 비로소 구경각을 이루어 대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지요. 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일체만법이 나로 인해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그렇듯 모든게 나로 인해 벌어지니 나를 다스리면서 안팎의 경계를 다 내면에 놓으라는 것이지요.

놓는다 함은 곧 나라는 생각, 아상의 죽는 연습이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되겠지만 모든 헌 쇠붙이를 용광로에 쓸어 넣듯이 밖에서 오는 경계나 안에서 오는 경계를 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 나가다보면 뜻밖의 경계들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다 나를 공부시키려고 이러는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 또한 놓고가야 합니다. 그렇게해서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집착이 떨어져야 합니다. 죽어야 너를 보리라 한 것은 용광로에 헌 쇠붙이를 쓸어넣었더니 새 쇳물이 되어서 나오듯이 일체 경계를 나온 자리에 되놓으니까 참성품이 발현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고나면 또 나와 대상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위해 다시 놓아야 합니다. 참성품자리에는 너·나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자리에 놓고 너도 그 자리에 놓는 작업을 해야하지요. 나는 그 자리를 주인공이라 합니다만 네 주인공 내 주인공이 아니라 한 주인공이니 나·너를 둘로 보는 생각이 죽어야 불이(不二)의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둘 아닌 도리를 알았다면 둘이 아닌 나툼의 도리까지 터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건져달라고 할 때는 사람속으로 들어가 하나가 되고 소·돼지가 건져달라 할 때는 소·돼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무속, 풀속으로는 못들어 가겠습니까? 그쯤되어야 이름해서 구경각이라 할 수 있고 삼세·삼계를 통달해 자유자재하다 할 수 있지요. 부처님께서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신다 함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한 생각은 체가 없어서 물바퀴 불바퀴 속을 서슴치않고 드나들 수 있고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그대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놓으라는 말을 여러번 해도 사람들은 좀처럼 놓으려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잔뜩 움켜쥐고 착을 두고 욕심을 내면서 아상과 아집에 빠져 연방 '내가… 내가…'하며 살고 있으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요.

그래서 놓아라 놓아라 하다가 또 죽어라, 죽어야 본다고 하고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3단계도 이미 3단계가 아닙니다. 그냥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도 아니고, 내면이냐 바깥이냐도 아니고 모두가 아닐 때 비로소 나 아닌게 없구나 하며 통달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세가지 소식을 안다면 나와 일체가 같이 동등하고 우주 천하 전체가 도량아닌 곳이 없고 일체 천하 만물이 나 아님이 없고 모두 내 아픔 아닌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부를 잘 하시게 되면 이 중요한 시대에 살면서 마음의 법으로써 일체를 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그런 분들이 마음을 내고 들이는데 따라 그대로 참마음이 거기에 응해주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사탐을 건지려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미 둘이 아니기에 막강한 나툼의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내는대로 산신으로도 응하고 관세음보살로도 응합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지 다 참성품의 나툼인 것이니 상대로 보고 둘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나툼이란 부처님께서 한 발 내디디시는 보살행과 같은 것이기에 진실로 나와 너가 하나되고 세상의 아픔과 내아픔이 하나되는, 그야말로 차별이 무너지고 다같이 평등한 자리가 되는 그런 도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참도리를 증득했다하는 것은 결코 자기만의 개별적인 완성이 아니라 전체가 한데 합쳐진 다같이 돌아가는 완성인 것입니다.

고로 내가 죽어 나를 보는 첫단계를 공부의 전부로 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전부를 맛보는게 못되고 다만 일부를 아는데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구경각, 해탈 열반의 도리를 설하셨습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않는"

◎ 바라밀 쑥뜸기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탑 다라니 1매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시, 군 단위로 바라밀 쑥뜸기를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뜸쑥기둥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재래식 뜸쑥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받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받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서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억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엑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쑥뜸기 내용

1)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4)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구입문의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본원: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5동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 스님)
● 부설 :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 전화 : (051)864-3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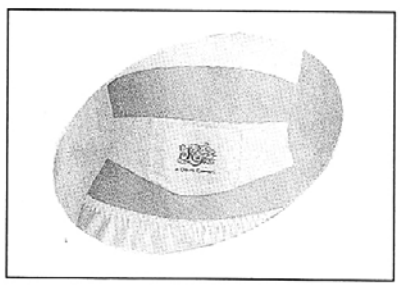
본회: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성지관음회
● 전화 :(0335)34-9490, 39-1906
야간/ (0342)706-3060

서울강남지회 : (02)597-7581
서울강북지회 : (02)747-7033
부산지회 : (051)516-2713(지장집사)
대구지회 : (053)323-2598
대전지회 : (042)222-4936
광주지회 : (062)228-8544
제주지회 : (064)22-3324
경기수원남부지회 : (0331)291-8549
경남진주산청지회 : (0596)73-0039
경남마산지회 : (0551)23-9016
경남울산지회 : (0522)74-7536
창원지회 : (0551)62-0076
제천단양지회 : (0443)46-3023
의정부지회 : (0351)873-0532
청주지회 : (0561)772-3255

A·Q·U·E·E·N·C·O·N·S·O·R·T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팔비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보물급 문화재 보존·관리 '구멍'

보존처리율 불과 16%…대부분 창고서 낮잠
지자체 실시이후 문화재 지정 오히려 반감

문화재관리국 자료 분석

최근들어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가 훼손되는 등 문화재관리국은 물론 각 시도 자치단체를 포함해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에 대한 운영 및 관리체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최근 문화재관리국의 관계자가 밝힌 자료와 자치단체의 문화재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밝혀진 것으로 우리문화재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의 한 관계자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81년부터 95년까지 15년간 문화재연구소, 국립박물관, 전국 각 대학박물관 등에 의해 발굴된 출토유물은 35만여점에 이르나 이중 보존처리대상의 처리완료율은 불과 15%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년 1만2천여점의 유물이 출토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엄청난 수의 문화재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각 시도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중앙정부에 보수·보존처리 등을 떠넘기는 경우가 생기고, 중앙정부 역시 똑같은 이유로 이를 거절함으로써 애써 발굴한 문화재가 그대로 썩어가는 일이 허다하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정하는 국보나 보물의 경우 외에도 각 시·도 지정 지방문화재의 경우 더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물급 문화재를 무단 방치하는가 하면,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라도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순천 선암사 경우 대각국사진영을 비롯 탱화, 경판 등 다량의 보물급 문화재가 창고에 방치되고 있으며, 지난 14일에는 경북 봉화군에 소재한 마애여래좌상(국보 201호)이 국보지정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원형이 거의 훼손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 지방문화재 관리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조차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현지확인조차 못한 것이 70%가 넘을 정도로, 지정만 했을 뿐 더욱 심각한 보존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지자제가 실시된 95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정된 각 시도별 유·무형 및 기념물 등의 지정문화재 건수는 모두 119건으로, 94년 7월부터 95년 5월까지의 212건보다 오히려 반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향토문화발굴 등 자치단체의 위상강화를 위해 지방지정문화재가 당연히 늘었을 것이라는 일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 도청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보존관리가 제대로 안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고, 한정된 인원과 예산이 과도한 문화재지정을 억제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무차별 방치되고 있는 이유로는 전문인력과 예산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일례로 우리나라 문화재연구소의 전문인력과 예산은 이웃 일본 문화재연구소보다 2~4배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각 시·도별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은 한두명에 불과하며 예산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재관리국 관계자는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우리문화재 보존실태는 그야말로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상식이하의 수준으로, 행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문화재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정비는 물론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난 실질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보존처리 대상유물 현황

(단위 점)

구분 / 기관명	출토유물	처리대상유물	처리완료유물	미처리유물	처리완료율(%)
문화재연구소 및 5대궁	68,629	44,729	12,431	32,298	27.8
국립박물관	200,265	60,000	4,450	55,550	7.4
대학박물관	87,095	39,849	6,066	33,783	15.2
계	355,989	144,578	22,947	121,631	15.9

(1981~1995.3.1 현재)



◇조선후기 목조불전으로 전남도 유형문화재 32호인 백양사 극락보전.

백양사

극락보전

阿彌陀佛在何方
(아미타불재하방)
着得心頭切莫忘
(착득심두절막망)
念到念窮無念處
(염도염궁무념처)
六門常放紫金光
(육문상방자금광)

아미타 부처님은 어느 곳에 계실까
마음에 간직하여 잊지 말 것이니
생각 생각 이어가다 생각조차 끊긴 곳에 이르르면
육근의 문에서 성스러운 금빛광명 찬란하게 나오네

해설 극락보전은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법당이다. 극락전이라고도 하고 무량수전, 아미타전이라고도 하는 법당이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극락전이다. 극락이란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이다. 삶의 고통과 번뇌가 없는 지극히 즐겁고 아름다운 곳을 극락세계라 한다. 극락세계 극락정토 극락국토라는 말들도 불자들이 가고자 염원하는 나라, 땅의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다.

극락은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난 곳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라 한다. 그러니까 극락보전에 모시고 경배하는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인 것이다. 때문에 오랜 세월동안 많은 중생들에게 극락왕생의 염원을 들어 온 부처님이기도 하다.

아미타불을 염원하며 그의 감화와 원력을 수행지표로 삼고 일심 정진하면 종내에는 성불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백양사 극락보전 주련의 내용이다. 여기서 주의해 생각할 대목은 '생각생각 이어가다 생각조차 끊긴 곳에 이르르면'이다. 생각이란 아미타불을 향한 간절하고 간절한 마음일 것이고 이 생각이 간절의 정도를 뛰어넘어 생각한다는 사실마저 여의는 경지까지 이르러야 성불의 소식이 올 것이란 뜻이다. 육근이란 사물과 현상을 인식하는 6가지의 식(識)과 경(境)의 근원이 되는 6가지 뿌리를 의미한다. 그 여섯가지 뿌리(根)는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다.

이 주련의 내용은 고려말의 고승 나옹화상이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안동 경안중 교사〉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생각 끊긴 자리서 광명이 솟네

인터넷에 평화운동 넘실

불교관련 논문 게재·국제단체 활동

최근 인터넷에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교관련 국제단체들이 세계평화 운동의 일환으로 불교를 비롯해 종교와 비폭력 운동에 관한 논문을 공개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 논문 중 니콜라스기어(아이다호 주립대학 철학·미국) 교수의 '비폭력 운동에 있어서 간디와 부처'와 알랜 앤더슨(커리대학 종교학과, 미국) 교수의 '새로운 사상운동' 등이 눈길을 끈다.

니콜라스 교수는 '비폭력 운동에 있어서 간디와 부처'에서 "역사상 비폭력운동을 최초로 이끈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로 두 종교는 인간의 마음 속에 도사리는 '혐오'를 불교는 자비로 기독교는 연민으로 다스렸다"고 지적했다. 알랜 교수는 '새로운 사상운동'에서 "동시대 인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다원화된 종교로서 이를 통해 인류는 보편적인 현실 속에서 자아를 찾아야 한다"며 '포스트모던'이라는 시대정신에 걸맞게 각 종교의 독선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다원화된 종교로서 시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마음의 증오를 자비 연민으로"
각 종교 전쟁·범죄 공동대응을

종교의 다원화 현상은 이미 작년 10월 '불교와 기독교:수렴과 이탈'라는 주제로 대만에서 열린 국제종교세미나를 통해서도 반증된 바 있다. 이 세미나에는 대만·스리랑카·태국·미국·이탈리아 등에서 20여명의 불교 및 기독교 종교학자들이 참여해 전쟁·빈곤·범죄·환경파괴 등의 지구촌 문제에 각 종교가 공동대응해 인류와 사회의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에는 '소카가카이 국제단체'에서 전개하고 있는 '불교 평화운동'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이 국제단체는 1960년에 일련종 사상을 통해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로 설립해, 현재 미국을 비롯 이탈리아·일본 등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유불회통 논리로 배불론 대응"

박경주 교수 '조선초 기화스님의 시문학' 분석
문자 긍정적 인식…경기체가 사용 유학층 포용

함허 기화스님(1376~1433)은 불교의 침체기이자 전환기였던 여말선초 철학적 논리로 불교배척론에 맞서고, 시가문학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철학적 논리를 문학작품의 형식과 내용에 투영시킨 독보적 스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경주교수(원광대 국문학)는 지난 15일 한국고전문학회 월례발표회에서 '전환기 불교가요의 문학적 대응 양상 고찰-조선초기 기화(己和)의 작품을 대상으로-' 논문발표를 통해 함허의 사상과 선초 불교억제책에 대한 사상적 대응, 함허의 가요가 갖는 문학사적 의의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교수가 가장 먼저 짚은 부분은 함허의 문자(文字)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다. 함허는 문자가 도를 나타내는 도구요 사람을 제도하는 방편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회통사상이다. 유·불·도 삼교는 근본은 하나이되 그 발현 양상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서로 도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함허는 불교우위론을 저변에 깔고 있었으나 선초 배불론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동적 방어인 유불회통, 나아가 삼교회통의 논리를 폈다는 것이 박교수의 설명이다.



◇박경주교수

또 조선초 승려의 가요문학에서 한문가요와 경기체가를 동시에 전하는 이는 함허스님뿐이라는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선가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승려들을 위한 한문가요와 억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타 교파에 대한 포용성의 논리를 펼치기 위한 방편으로 삼은 경기체가를 빌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기체가가 유학자층에 익숙한 장르였음을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유학자층을 의식했다는 점과 백성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우리말 가요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경기체가를 통해 유불회통의 사상을 문학적으로 발현시켜 보고자 한 함허의 노력은 그 성패를 따지기 이전에 노력자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박교수는 또 문자에 대한 함허스님의 인식 역시 당시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유교의 문자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기 보다는 자신의 문자관에 유가의 표현을 빌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우〉

불교춘추 3호 만공선사 중국활동 업적 소개

고서연구 13호 박영돈씨 회갑기념 논집 꾸며

○…〈불교춘추〉 3호는 조선의 승려로서 중국불교의 중흥조로 일컬어지고 있는 만공선사(1388~1463)의 업적을 새롭게 조명한 조영록교수(동국대)의 글을 실었다. 조교수는 중국 산동성 태산 보조사에 있는 '중개산비(重開山碑)'는 만공선사의 40년에 걸친 중국에서의 활동과 업적을 담고 있다면서 중국불교사에 명조(明朝)국사로 추앙받는 만공선사에 대한 활동상의 기록이 국내에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일연스님 연구에 평생을 몰두해온 재야 서지학자 박영돈씨의 화갑기념논집으로 꾸며진 〈고서연구(古書硏究)〉 13호가 나왔다. 여기에서 채상식교수(부산대)는 '보각국사(普覺國師) 일연碑의 현상과 복원의 문제' 주제의 기고에서 현재 일연비문의 완전한 탁본으로 인해 일연스님의 생애와 활약상에 관한 내용은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는 반면 일연비음(一然碑陰·일연비를 세우게 된 연원과 근거)은 완전한 복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비음의 완전한 복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우〉

해남 대흥사 대웅전·청신암 훼손 심각

전남 해남군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의 대웅전과 청신암(淸神庵)이 건물 기둥이 기우는 등 훼손이 심화돼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대흥사는 해마다 5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찰로, 대형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도 전면적인 개·보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4일 해남군과 사찰측은 50여평 규모의 대웅전이 10여년 전부터 대들보와 중앙기둥의 이음새 부분이 부실해져 8년전부터 보조기둥을 세워 지탱해오고 있으나 최근들어 기둥이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내부 중앙 기둥들도 연쇄적으로 기울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내에서 5백여m 떨어진 비구니 스님들의 수도도량인 청심암도 기둥이 10도 가량 기울면서 법당 용마루가 내려앉아 비가 새고 문짝이 뒤틀리는 등 붕괴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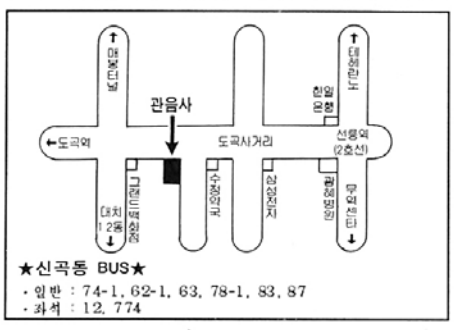
해전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

금번 관음사에서 불교 교양대학 모집은 현대의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날로 요구되는 때에 21세기를 대비하여 이론과 수행을 일체화 하여 초급반·중급반·고급반에 맞추어 전문법사·포교사·불교를 바르게 공부하고 싶은 여러 불자님께 진정한 공부가 성취되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교양대학을 다음과 같이 개설합니다.

1. 초급반
   ①기초교리 ②천수경 ③기도 바르게 하는법(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2. 중급반
   ①초 발심 자경문 ②반야심경 ③금강경(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 고급반
   ①육조단경 ②참선특강 ③단전호흡 ④선 체조 ⑤정신통일법(매주 목요일 8시)

※1년에 2번 수련대회를 실시함.

※ 모집방법
❶정규반 30명
❷수업료 : ₩50,000
❸기 간 : 6개월 과정
❹강의 장소 : 대치동 관음사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921번지 오성B/D 201-3호)
❺연락처 : 501-7870
011-574-8879 (핸드폰)



관음사 교육원장 鐵牛 合掌

본 강원은 사찰업무에 바쁘신 관계로 강원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기 어려운 스님들과(전문반) 재가 불자님들의 불교공부(교양반)를 돕기 위하여 통신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만든 강원제도입니다.

봉선사 불교전문 통신강원 수 강 안 내

1. 전문반(강원코스)
   ◦사미과=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치문
   ◦사집과=도서, 절요, 서장, 선요, 대승백법명문론
   ◦사교과=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경오가해, 원각경
   ◦의전과=기초의식(도량석, 종송, 예불의)
   상용의식(불공, 시식, 관욕, 대령)
2. 교양반(교양코스)
   ◦교리강좌=삼화표월지, 불교의 깨묵
   ◦경전강독=금강경강화, 운허스님의 능엄경강화
   ◦교양의식=삼화행도집
   ◦교양불교사=운허스님의 불교통사, 전등록 초
3. 수업요령
   ①입학금 : 3만원(재학기간 유효)
   ②수업료 : 각과목마다 월 2만5천원
   ③교재(카세트테이프)는 매월 8개씩 월초에 보내드림
   ④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원에 문의바람

문의처 : ☎ (0346)68-1957(교무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대한불교 조계종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원 장 金 月 雲

생사 벗어난 완전한 깨달음

보르헤스의 ⑱ 불교강의

불교교리—열반



◇열반 즉, '니르바나'는 생사의 윤회를 벗어난 완전한 자유를 뜻한다. 서구 지성인들이 그뜻을 매우 다양하게 해석하기도 했다. 사진은 만상이 여일한 호의 세계를 그린 玄楨거사의 작품 '그후 이어져 내려오니…'.

니르바나(nirvana, 涅槃)라는 말은 서구인들의 상상력을 한껏 자극하는 가장 매력적인 말이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부드러운 발음을 내는 용어의 깊은 뜻은 간과한 채, 너도 나도 현묘(玄妙)하면서도 이국적(異國的, exctic)인 이 말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유럽과 미주(美洲)의 작가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시인 루고네스(Leopolda Lugones)는 니르바나라는 말을 환각이나 혼돈이란 뜻과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까닭모를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그는 마침내 어렴풋한 니르바나에서

이라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꿈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주의 운행은 꿈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꿈은 아니다. 니르바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유럽의 학자들은 처음에 니르바나의 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오해했다. 달만(P. Dahlman)은 니르바나를 '무신론과 허무주의(nihilism)의 심연'으로 불렀고, 부르노(Burnouf)는 절멸(絶滅)로 번역했다. 이런 현상에 영향을 받은 쇼펜하우어는 니르바나가 무(無)의 완곡화법인줄 알았다. 또한 데이비드(Rhys David)는 생각하길, 니르바나는 이 땅에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인데,

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불교 궁극의 도달처

깨어나 글을 쓰기 시작했다

"눈이 아픈 자에게 달이 둘로 보이더라도
원래 달이 하나인 것을 아는 것처럼
깨달은 사람은 감각의 세계가
환영이라는 것을 안다"

니르바나는 산스크리트어인데 팔리어로는 닙바나(nibbana)로 발음되고 중국어로는 니판(ni-pan)으로 발음된다. 역시 니르바나라는 발음이 가장 듣기에 좋은데, 이는 어원적으로는 휴지(休止)나 소멸을 의미한다. 혹은 동사로 '사라지다'나 '종식되다'로 번역될 수 있다. 불교경전에서는 흔히 의식(意識)을 촛불이나 등불에 비유하는데 이 불꽃은 기름이 다하면 자연적으로 사그라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니르바나라는 말은 매우 적절한 용어로 보인다.

브처님은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한 이 용어를 차용했고, 자이나교에서 역시 이 용어를 사용했다. 고대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에 니르바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종종 브라마니르바나(brahmanirvana 브라만(神)에 녹아듬)로 변형되어 쓰이기도 한다. '신성(神聖) 속에 녹아든다'는 개념은 대양(大洋)에 합류하는 물 한방울이나 우주적 용광로 속으로 사라지는 작은 불꽃 등으로 상징되기도 한다.

힌두전통 속의 인도인들은 개인의 영혼이 우주적 규모의 대양이나 화염과 합치(合致)될 수 있다고 믿는다. 흔히 니르바나는 브라만 신이나 행복이란 단어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 브라만 신이 녹아든다는 것은 개인이 곧 브라만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불교에서는 의식과 물질, 주체와 객체, 영혼과 신성을 부정한다. 우파니샤드에는 우주의 순환이 신이 꾸는 꿈

그것은 의식의 소멸이 아니라 탐·진·치 삼독의 극복에 의하여 달성된다고 보았다. 피셀(Pischel)은 욕망의 소멸(Trishna)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죽음 이전에 니르바나에 도달한 성인은 이제 그의 행동의 업(業)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의 행위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로 인해 상이나 벌을 받지 않는데, 그는 이미 생사(生死)의 수레에서 벗어났고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리수 아래서 니르바나에 도달한 부처님은 40년 뒤 육체적 죽음을 통하여 파리니르바나(Parinirvana, 완전한 열반)를 이룬다. 논리적으로는 세계가 환영(幻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에겐 그 때부터 우주가 사라져야 한다. 신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본 사람은 죽어야 하듯이 끔찍한 계시를 받은 사람도 죽어야 한다. 베단타 경전에 적혀 있기를 마치 도자기가 완성되어도 도공의 회전 작업대는 계속 돌아가듯이 깨달음을 이룬 사람도 계속 살아간다고 한다. 그런데 그 삶은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쌓았던 행위의 관성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깨달음 이후의 행위는 또 다른 결과를 불러오지 않는다. 꿈을 꾸는 자가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 꿈이 진행되도록 두는 것처럼 지반묵티(jivan-mukti, 땅위의 學者)도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상카라는 이렇게 비유한다. "눈이 아픈 자에게 달이 2개로 보이더라도 그는 원래 달이 하나인 것을 아는 것처럼, 깨달은 사람은 감각의 세계를 지각하고 살지만 그것이 환영이라는 것을 안다" 달만은 인도의 고대 서사시를 인용한다. "성공과 실패, 생과 사, 육체적 쾌락과 고통… 나는 그런 허구(虛構, fiction)들의 친구도 적도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니르바나는 "안식의 문, 폭풍우 이는 바다속의 안전한 섬, 시원한 동굴, 피안(彼岸), 신성한 도시, 모든 병의 해독제, 욕망의 갈증을 가라앉히는 물, 열락의 음식, 생사윤회의 강(江)에 빠진 조난자들을 구제하는 대안(對岸)"이다.

〈미란다왕문경〉에서 말하기를, 니르바나는 비시간적이어서 감각적으로는 인식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러 생을 거친 뒤에야 겨우 그곳에 도달할 수 있지만, 니르바나는 사실상 그 생들을 선행하고 그 생들의 외부에 존재한다. 그렇지만 그 위치를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 불자들은 대개 그곳을 깨달은 사람이 편히 쉬는 곳이라고 형이상학적으로 인식하여 흔히 "열반에 든다"라고 표현한다.

오스트리아의 불교학자 에리히 프라우왈너(Erich Frauwallner)는 부처님 당시에 사용되던 니르바나의 뜻을 연구해서 이 말에 대한 서구인들의 이해를 향상시켰다. 우리들은 불꽃이 꺼지는 것을 불이 소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도인들은 불이 등을 켜기 전에도 존재했고, 등을 끈 뒤에도 지속한다고 생각한다. 불을 켜는 것은 불이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고, 끄는 것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지 불을 근절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의식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육체가 있을 때 우리는 의식을 느낀다. 죽을 때 육체는 사라지지만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니르바나를 묘사할 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해탈을 통해 열반에 드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친 교설의 핵심이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신비를 풀고 궁극적인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가 가르치고자 한 것은 속세(俗世) 즉 표피적인 세계로부터 해탈하는 방법이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이것을 겨냥하고 있다.

편 역 : 김 홍 근
〈외대강사 · 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이 재 운 〈소설가〉



나와 불교의 관계는 작품에서부터 드러난다. 〈사막을 건너는 사람은 별을 사랑해야 한다〉는 순수한 감성과 젊은 열정을 가지고 대학 2학년 때 〈화엄경〉을 염두에 두고 쓴 장편소설이고, 〈금강경〉은 2년 전에 〈금강경〉에 도전해 보자는 욕심으로 쓴 두 권짜리 소설이다.

불교라는 이름을 드러내놓고 쓴 소설은 이렇게 두 편이지만 실상 내 소설은 모든 작품이 다 불교적 소재가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를 아는 일반인들이 나의 대표작이라고 지레짐작하는 〈소설 토정비결〉의 경우 보조인물이 승려이며, 그밖에 여러 스님이 등장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올해 초에 발표한 〈갑부〉의 경우 불교적 사유체계를 일반화시킨 소설로 불법을 부도(富道)라는 개념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쯤되면 독자들은 내가 적어도 독실한 불교집안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원찰(願刹)을 세워 놓고 주말마다 다니고 시시때

"절에 가면 부처님 말씀 즐기고 와요"

불교적 사유체계 소설화가 나의 불심 표현

때로 다니리라고 상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뭔가.



생지(生知)라는 말이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알고 나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내 경우 불교적 정서면에서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당연한 것으로 몸에 배어 있었던 듯하다. 누가 시켜서 절에 가 본 적도 없고, 누가 권해서 불교 책을 읽은 적도 없다. 내 발로 절에 갔었고, 내 손으로 책을 사서 읽었다. 그뿐 누구도 나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누구보다 독실한 불교신자이다. 나는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물론 큰스님 한 분께서 "내가 불교를 버릴 수 있을 만큼 큰 진리를 만난다면 마땅히 개종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나 역시 나를 개종시킬 만한 큰 진리를 만난다면 몰라도, 아마도 나는 죽자마자 〈금강경〉이나 〈지장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할 것이다.

지난 부처님오신날에는 죽산에 있는 도안사에 갔는데,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다' 왔다. 절에 가서 즐기는 게 무슨 소리냐고 하겠지만 절에 가서 부처님 말씀을 즐기지 않고 그럼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진리를 깨우치자고, 진리의 감로를 받자고 간 절에서 환희를 만끽하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한판 출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과연 도안사에서는 이러한 나의 바램을 충족시켜 주었다. 법당에서 저 석굴암 부처님을 조성했을 옛 장인의 솜씨를 닮은 듯한 박찬수선생의 목불 조성 시연이 있었고, 번뇌를 걷어내고 쳐내고 두드려 부수는 듯한 승무가 있었고, 음률이라면 부처의 경계에 들어선 듯한 한 작곡가(정말 그 아름다운 이름을 왜 잊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의 자재로운 음악을 들을 때는 흥과 눈물이 같이 나왔다. 사물놀이패가 목탁소리를 내면서 절규하는 듯이 토해놓는 우리 소리에는 가슴이 너무 울렁거려 잠든 딸아이가 가슴을 두드리면서 장단을 맞추기도 했다.

그뿐이었다. 스님께서는 지루할지 모를 설법도 그만두셨다. 그 정도로 수용할 줄 아는 스님이시니 설법도 다르련만 그점이 좀 아쉽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법당에서 웬 소란이냐고. 그러나 부처님도 때 되면 밥 먹고, 세수하고, 옷 입고 벗고, 더러 눈물도 흘리고 더러 노래도 흥얼거렸을 것이다. 평생을 좌대에 앉아 있는 불상처럼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모처럼 도안사에서 즐거운 부처님오신날을 보냈다.

나는 불교책이라면 굉장히 많이 읽은 편에 속하는 불자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게 더 좋고, 즐거운 게 더 좋다. 내가 불교를 섭기는 게 아니라 불교가 나를 포근하게 끌어안아 주었으면 좋겠다. 세상살이 피곤하고 힘든데 절에서라도 다독거려 주지 않으면 힘들어 어찌 살까. 그저 이런 마음으로, 불자 중의 작은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불교를 배고 싶고 거기에 눕고 싶다.

자연 산삼

천종(자연산) 산삼을 채취하였습니다.

저희는 재배산삼이 난무하는 현 상황속에서도 천연 산삼만을 고집하는 심마니동우회 입니다.
그러던중 하늘의 은혜로 천종 산삼을 채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산삼으로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닿는 분께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 장뇌 산삼도 공급해 드릴수 있습니다

■ 연락처 : 심마니 동우회
전화 : 842-0094

불교인들의 만남,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자님들의 사랑으로 이자임 결혼연구원이 크게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성원에 다소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전화비 명목의 적은 비용으로 96년 4월부터 행사기간을 정하였던바 6월 30일까지 행사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의 초여름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가슴으로 스미는 계절입니다. 지성을 겸비한 청춘 남녀의 근사하고 멋스러운 분들이 기다립니다.

■ 구비서류
· 초혼남녀 주민등록 등본,졸업증명서, 사진(각1통)
· 재혼남녀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사진(각1통)
♥ 학력:(남) · 전문대졸 · 대졸이상 (고졸은 특별상담)
(여) · 고졸 · 대졸이상
♥ 연령:남녀(23세~70세 까지)
■ 초재혼 여(국졸,중졸 만-35세 까지 특별 무료 상담 환영)
■ 특수한분 정신장애,육신장애를 갖고 어렵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께 행복한 결혼의 도움이 되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남 전문대졸 · 대졸이상(고졸특별 상담)
· 여 학력제한없음(특별 무료 상담 환영)
♣ 부모님 상담 환영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大卒,초,재혼,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잔화로 연락바랍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心)
농협온라인구좌:112-01-021221 예금주 이 영 숙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02)634-4910~2

화제의 책

일붕 : 지안이도 머리가 희여 지는구나
지안 : 수미산 새벽 안개입니다.
일붕 : 엄동설한에 웬 도라지 꽃이냐?
지안 : 축생의 묘비인가 합니다.
일붕 : 잡초에 거름은 주었느냐 ?
지안 : 칭 솔가지에 불을 붙여 연기만 먹습니다.
일붕 : 대바구니에 물을 가득 담았는데…
지안 : 개구리 천지드니 쥐들이 날뛰겠군요.
일붕 : 빨래나 하려나…
지안 : 봉화대에 불 지필까요?
일붕 : 그려… 그럴꺼야.

해는 왜! 서쪽에서 꼭! 동쪽으로 지나

출판사 및 전국서점에서 판매





글쓴이 유 용 주

도서출판 무심

서울시 송파구 송파1동 19-8 임진각빌딩 3층 전화 : 02)416-2324 팩스 : 02)417-7781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②

萬緣放下 一念不生
만연방하 일념불생
是參禪的先決條件 我們旣然知道了
시참선적선결조건 아문기연지도료
那末 如何不能做到呢
나말 여하불능주도니
上焉者 一念永歇
상언자 일념영헐
直至無生 頓證菩提 毫無絡索
직지무생 돈증보리 호무락색

모든 반연을 놓아 한 생각도 일지 않는다는 이것이 참선의 선결조건임을 우리들이 이미 알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다를 수 없다하겠는가.
위에서 한 생각이 영원히 쉬면 곧바로 무생법인을 단박에 증득하여 털끝만큼도 매일 게 없다하였다.

其次則以理除事 僚知自性本來淸淨
기차칙이리제사 료지자성본래청정
煩惱菩提 生死涅槃
번뇌보리 생사열반
皆是假名 原不與我自性相干
개시가명 원불여아자성상우
事事物物 皆是夢幻泡影
사사물물 개시몽환포영
我此四大色身 與山河大地 在自性中

안위험이 일개치지도외
這樣才算放下 一放下一切放下
저양재산방하 일방하일체방하
永永放下 叫作萬緣放下 萬緣放下了
영영방하 규작만연방하 만연방하료
妄想自消 分別不起 執着遠離
망상자소 분별불기 집착원리

마치 바다에 뜬 물거품과 같아 (파도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걸림없는 본체는 일체 환영같은 일의 생주이멸을 따르지 않는다.
그런 생주이멸을 따라 일어나는 좋아하고 싫어하고 취하고 버리는 생각을 몽땅 내려놓아 마치 죽은 사람처럼 부동심이 되면 자연히 육근육진 식심이 사라질 것이며 삼독심·갈애도 없어질 것이다.
또 육신으로 오는 고통과 즐거움, 굶주림과 추위, 포만과 따뜻함,
영욕과 생사 길흉화복, 헐뜯음과 칭찬, 얻음과 잃음, 안위 따위를 모두 나와는 상관없다고 밀쳐놓도
이런 일에 셈을 따지는 것도 놓고 하나도 놓고 일체도 놓고
영영 놓아서 모든 반연을 놓았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게되면 (비로소) 만연을 몰라 놓은 것이다.

일체사물 다 나의 성품 가운데 있으니 생각 몽땅 놓으면 삼독심 자연히 소멸

아차사대색신 여산하대지 재자성중

(그렇게 한 생각 쉰) 다음에 이치로써 사물을 다스리면(경계를 놓아가면) 제 성품이 본래 청정함을 알게 될 것이다.
번뇌니 보리니, 생사니 열반이니는 이 모두 거짓 이름일 뿐이라 원래 나와 자성이 다르지 않다.
일체의 사물은 다 꿈·거짓·물거품·그림자 같은 것이다.
나의 이 사대색신, 산하대지는 다 나의 성품 가운데 있는 것으로

如海中的浮漚一樣 隨起隨滅 無碍本體
여해중적부구일양 수기수멸 무애본체
不被這一切事的生住異滅
불피저일체사적생주이멸
而起欣厭取捨通身放下 如死人一樣
이기흔염취사통신방하 여사인일양
自然根塵識心消落 貪嗔癡愛浪滅
자연근진식심소락 탐진치애민멸
所有這身子的 痛癢苦樂 飢寒飽暖
소유저신자적 통양고락 기한포난
榮辱生死 禍福吉凶 毁譽得喪
영욕생사 화복길흉 훼예득상
安爲險夷 一概置之度外

(그리되면)망상은 절로 소멸되고 분별심이 일지않으며 집착은 멀리 떨어져 나갈 것이다.

至此一念不生 自性光明 全體顯露
지차일념불생 자성광명 전체현로
至是參禪的 條件 具備了
지시참선적 조건 구비료
再用功眞參實究 明心見性才有分
재용공진참실구 명심견성재유분
日來常有禪人來問話
일래상유선인래문화
一切法本無法 一落言詮 卽非實義
부법본무법 일락언전 즉비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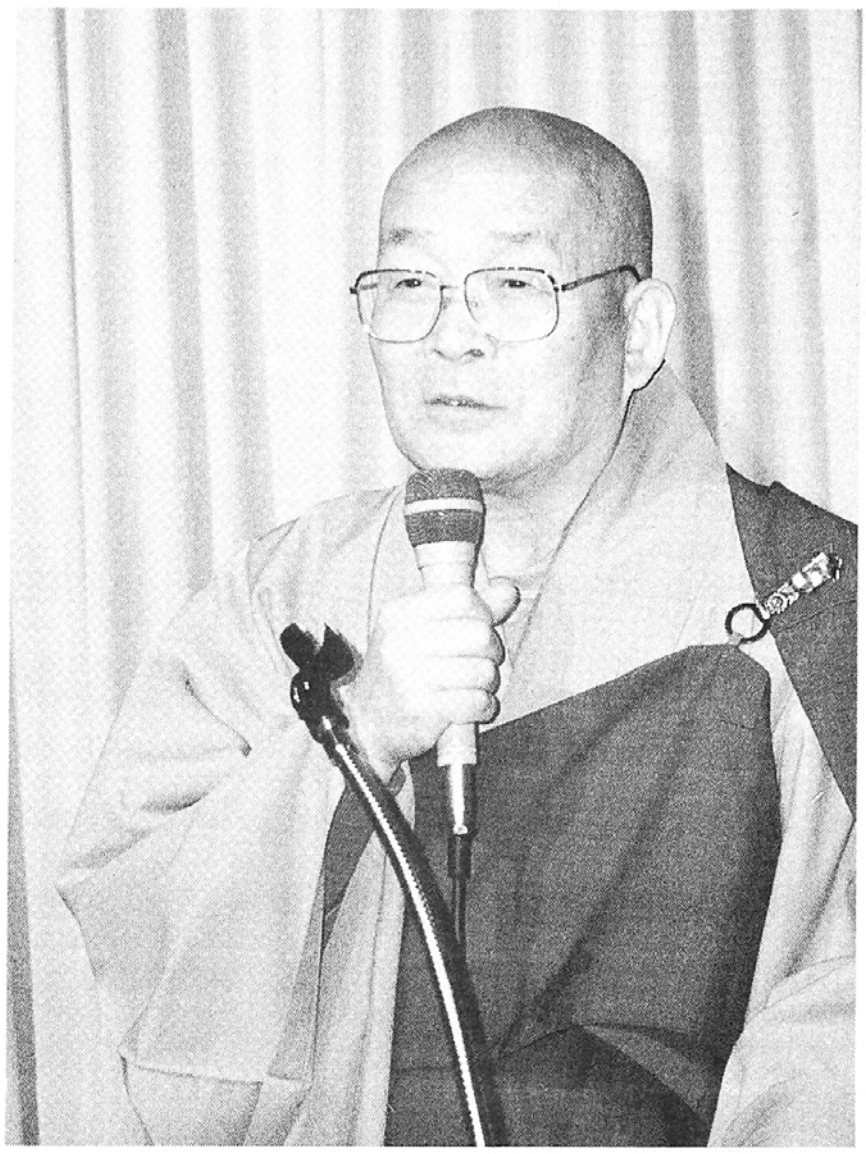
이에 이르면 한 생각도 일지 않아 참 성품의 빛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참선의 선결조건을 구비하기에 이르러 다시 힘을 기울여 진실로 참구하여 실답게 공부하면 마음을 밝혀 참 성품을 볼 수 있게 된다.
요즈음 참선하는 이들이 찾아와 늘 물는데
무릇 법은 본래 법이라 이름할게 없으며 한번 말에 떨어지면 곧 실다운 뜻이 아니라고 하고

龍眼

지상법석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원명스님 〈대구 관음사 주지〉



약력
- 1930년 경북 김천 生
- 송광사에서 구산스님 은사로 득도
- 송광사 주지 역임
- 불교대구교육원 원장역임
- 현 대구광역시 사원주지연합회 회장

불교는 오늘을 살며 오늘을 완성하는 종교입니다.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야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내세는 아직 오지않은 세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지난 과거에 연연하고 오지않는 미래를 기대하고 걱정하다가 정작 중요한 오늘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옛날 중국의 한 노스님은 "지금을 내어놓고 달리 때를 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는 언제나 지금 오늘에 충실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이란 과거에 우리가 오로지 기다렸던 내일입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것은 영원히 지금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몇퍼센트나 살아있습니까?

도를 얻기 위해 굳이 출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마거사는 "너희들이 무상보리심을 일으키면 이것이 곧 출가요 구족(具足)이니라"하셨고 만해스님은 "출가의 진의는 가족을 떠나 산중에 들어가는 형식을 말함이 아니라 보리심을 발하여 낡은 고집들을 떠남"이라 하셨습니다. 이 근본뜻을 자각한다면 "처자식이 있어서 나는 출가하지 못한다" "가정주부라서 출가할 수 없다"는 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의 출가란 생활 한가운데서 보리심을 발하는 것입니다. 내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지면 더불어

"삼독심에 사로잡혀 자기개선하지 않으면 염불·참선 일삼아도 부처님 닮을 수 없어요"

그 빛이 온누리에 퍼져가고 궁극에는 무애자재한 자리에 드는 것이니 이것이 출가의 공덕입니다. 삼독심에 사로잡혀 자기를 개선하지 않고 아무리 절에 나와 염불, 독경, 참선을 일삼는다 하여도 부처님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록 나를 떠나 백유순 밖에 멀리 가 있더라도 만약에 그가 격한 욕망에 불타지 않고 성내는 생각을 품지 않으며 삿된 견해에 사로 잡히지않고 방일하지 않으며 항상 깨달아 도심이 견고하며 능히 마음이 한 경계에 머무는 자는 나와 함께 있는자다. 이는 곧 법을 보는 사람이며, 법을 보는자는 진실로 나를 보기 때문이다"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정진하다보면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다 인연법에 의한 것임이 드러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내가 뿌린 것이다.'

이러한 인과(因果)의 법칙을 모르는 불자는 아마도 없을겁니다. 인과는 부처님이 설하신 우주의 근본질서이자 원리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으며 반드시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법입니다. 이 원리는 만고에 불변한 법칙입니다.

전생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받는 것이다.(欲知前生事 今生受者是)
내생 일을 알고자 하느냐 지금에 짓는 이것이다.(欲知來生事 今生作者是)

인과의 원리는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누구에게나 공평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기인생에 전개되는 행·불행들을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일, 행복한 일들은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현상적으로 좋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 상대를 탓하고 사회를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빠졌다' '누구 때문에 불행해졌다'고 큰소리 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인과의 도리를 자각하지 못한 자가 자신의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내 놓는 격입니다. 절에 나오는 불자들이라면 먼저 이 부분에 철저해야합니다. 일어나는 모든일을 철저히 내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아예 우연은 없다고 믿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병·불행·불화등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한 경우이든 지난날 내마음 작용의 결과로써 드러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체는 지난날의 자기마음이었는데 그 결과로써 드러나은 그림자를 붙들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불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일 앞에 '우연이 있다'고 믿는 것, '누구때문이다'고 탓하는 것은 불자라 할지라도 그는 '자기신앙'을 열심히 사는 사람일뿐 진실한 불자는 아닙니다. 진리를 적당히 자기식으로 취어서 유용하는 사람들, 부끄러운 자기내용인줄 모르고 그 책임을 바깥으로 열심히 전가하는 사람들, 모두가 부처님제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유심소현(有心所現)의 세계에서 전개되는 인과의 법칙을 선명하게 안내하신 분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자기신앙에 매달려 끌려다니는 사람은 엉터리 불자일뿐 근본적인 자기개선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우위에 두고 말한마디 행동거지 하나도 수행으로 여기며 철저히 사는 사람은 지난날의 업력도 쉽게 벗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대한 우주의 방송국과 같습니다. 도처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THE LAST WORD
부처님의 유언

공파 스님 역해

부처님 자비의 극치!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남기신
금쪽 같은 최후의 유언!



아! 아!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끝까지 간곡하게 당부하신 이 유언은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나타낸 것이로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니 두 발로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최후의 말씀을
뼈에 새겨두고 간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신국판/400면/값 7,000원

전국 유명서점 절찬 판매중!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법구경 ①②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값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했다.

신국판 / 전 2권 / 각권 값 6,500원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2천5백 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이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이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샘물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신국판 / 432면 / 값 7,000원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리고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환생의 체험 사례
나는 아흔여덟 번 환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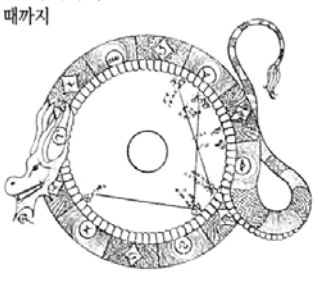
조 피셔 지음 /손민규 옮김

"어쨌든 그대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환생의 법칙은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한다."

한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이기 힘든 때가 있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었다.
환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에도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더 많은 체험을 갈망하게 하고
이 갈망은 우리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지상에 돌아오게 만든다.

더 깊고 과학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환생의 다양한 믿음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진지한 비교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조 피셔의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달라이 라마 –



신국판/280면/값 6,000원

태일출판사 출판원고를 보내주시면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지상법석

수행으로 여기며 삽시다"

"부처님 가르침은 거대한 우주방송국 도처에 진리의 파장이 충만하니 언제 어디서나 주파수만 맞추십시오"

에 부처님의 진리의 파장이 충만해 있고 언제 어디서나 주파수만 맞추면 그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무한 은혜속에 있습니다.

불교는 특별하고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공부입니다. 괴로움은 탐진치 삼독심에서 나옵니다. 무명업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불교는 바로 이 무명업식을 제거하는 공부입니다.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 자리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삼독심을 녹여 없애야 합니다. 삼독심을 녹여 없애려면 우선 남에게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나누면서 사는 세상이 불국토입니다. 나와 남을 분별하는 마음을 쉬고 둘아닌 도리를 은 내 마음이 창조해가고 원인도 결과도 다 내 마음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날 지은 업력의 흐름일 뿐입니다. 무슨일이 일어 나면 먼저 자기의 마음자리를 살펴 일어난 일의 원인에 대해 참회·감사하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고 있으면 금방 운명은 개선되고 맙니다. 지나간 일에, 다가올 미래에 연연해 할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순간을 부지런히 좋은 업인(業因)으로 파종해야 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의 운명 때문에 고민 번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니 자유자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쪼다면 절밥을 아무리 오래먹고 법석에 아무리 자주 올랐어도 소용이 없어요, 큰 깨달음을 얻으신 육조 혜능스님은 무려 15년간의 보림기간을 거친 연후에야 세상에 나와 법을 펴기 사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함부로 불법을 안다고 자랑하고 떠들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책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행이 깊어지고 물리가 터질때쯤 책을 내도 늦지 않을텐데 돈과 공명심 혹은 자기만족을 위해서 함부로 책을 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입니다. 마음이 드러나오는 구체적인 세가지 길이 있는데 이것이 삼업(三業)입니다. 생각·말·행동으로써 짓는 것이 그이 없는 것입니다. 말의 힘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말의 성공법, 말의 건강법입니다.

현실생활이 못마땅해 투덜거리는사람, 일마다 꼬이고 잘안되는 사람, 실패해서 좌절해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 보면 대체로 평소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상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임을 알게 됩니다. 객관적인 상황들 때문에 자신이 불행해 졌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자기가 뿌린 말이나 상념의 씨앗을 자기가 거두어들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패를 부르는 말의 종자를 뿌리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마침내는 열려 오는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 우리의 인생은 자기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켜서 "내인생은 내뜻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어!" 하고 항변하지만 진실로는 자신의 뜻대로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식이 아무리 성공과 행복을 원해도 평소 지녀왔던 생각들의 총계가 부정과 불평으로 흘러갔다면 그것은 욕심을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상황 어떤경우에도 좋은생각 좋은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일상속에 보리심 발하여 낡은고집 여의면 '출가'

"우연은 없습니다" … 현재는 과거 내마음의 작용

실천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기보다 칭찬하려는 마음을 가집시다. 인격이 완성되고 성숙될수록 상대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데 비해 미숙하고 부족할수록 단점에 치중해서 헐뜯고 욕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처님 눈에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보면 누구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은 곧 자기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부(富)를 질투하거나 돈을 나쁘게 보고 욕하는 것은 곧 자기자신의 부에 대해 부정의 감정을 갖는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를 시기하는한, 돈을 욕하고 미워하는한 부는 그 사람에게서 부정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가난하게 되지요. 근본의식의 세계에서는 나와 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로 인지하고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상대가 나빠지기를 바라고 있다면 근본의식에서는 곧 그사람 자신이 나빠지기를 희망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중심된 법칙을 알아야 비로소 삶이 개선되고 발전합니다. 착한 것만으로는 인생을 잘 살 수 없습니다. 선한 마음위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구하면서도 기실은 불행의 대열에 서서 열심히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록 생활 한가운데에 두고 실천하십시오. 내 마음 가는대로 내 인생이 화(化)하여 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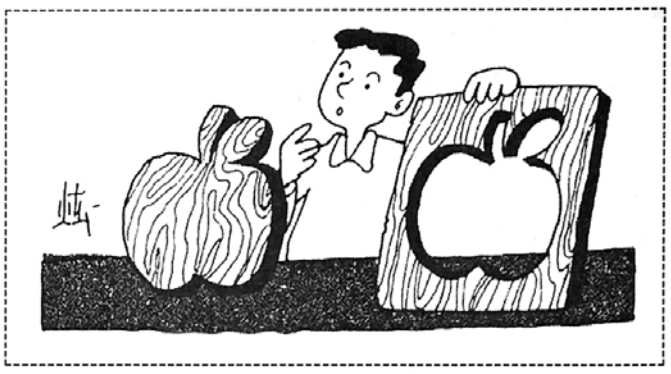
수 억겁을 묵은 탐진치의 훈습을 제거하려면 결단성이 있어야합니다. 공부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옛 어른들은 수마(睡魔)를 이기기위해 턱밑에 송곳을 받쳐놓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오래가면 송곳을 피해 고개를 비스듬히해서 꾸벅꾸벅 졸게돼요. 본능적으로 말입니다. 습관이란게 이렇게 무서운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공부해 가다보면 습기가 차츰 녹아서 자연스럽게 극복되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마치 자전거를 탈때 처음에는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큰 공부하려면 죽음도 마다않는 큰용기(大勇氣)가 필요합니다. 모든 습기가 녹아 없어지면 비로소 완연한 자성이 물록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절집안에서 안다고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확연한 깨달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조금도 빈틈이 없어 새는 바가 없는 완전한 깨달음이야 말로 수행의 최종목표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죽을때 보면 압니다. 임종시에 매(昧)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나와 남 분별심 쉬고 생각·말·행동으로 이웃 기쁘게하면 운명은 금방 개선됩니다"

것입니다. 그중에는 우리가 표현수단으로 쓰고있는 말은 실제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사람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말은 실제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상처를 주기도하고 사랑과 기쁨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창조적 의지가 뭉쳐진 힘이고 우리의 생명을 조절하고 있는 마음의 활동인 것입니다. 좋게쓰면 일체의 선을 창조하지만 잘못쓰면 생명을 해치고 파괴하는 등 날없는 칼날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평소의 말이 내인생 내운명을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등한시하고 달리 부처님에게 매달려 봐야 소용

서 농담이라 할지라도 좋은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누군가를 축복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늘 축복받고 칭찬받습니다. 요즘 사업이 안된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럴때에도 진실을 알면 걱정을 놓게 됩니다. 근심걱정으로 초조해하거나 지나치게 생각에 골몰하는 것은 상황이 더 나빠지도록 열심히 힘을 보내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밑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않듯이 이러한 자기생각을 다스리는 노력을 하지않고 절에나와 "부처님!"하고 하소연 해봐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입니다. 새롭고 멋진 '마음의 설계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74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⑪

유심조와 상보성 원리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측자의 몫 눈앞에 드러난 물리적 실체 '色의 세계'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다 공하다고 사리불에게 설했지만 지혜제일이라 불리운 사리불일지라도 분별지에 바탕을 두고 사물을 인식하는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불확정성 원리를 일반화시킨 상보성 원리를 살펴보면 사리불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현대물리학의 바탕이 되는 양자역학의 세계관을 확립한 보어에 의하면 자연은 상보적인 두가지 양(量)으로 기술된다. 상보적인 양이라는 것은 물리적학인 개념으로 입자와 속도와 같은 것인데 동시에 측정할 수 없는 두가지 물리량(物理量)을 말한다. 한가지 물리량으로 기술되는 자연현상은 결코 없다. 자연현상, 적어도 물리량으로 기술하는 현상은 그것이 무슨 현상이든 반드시 상보적인 두가지 양을 써서 기술한다.

상보적인 양은 물리적인 양을 말하지만 물리학을 떠나서 이해할 수도 있다.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음·양의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다. 실제로 보이는 상보적인 양을 음·양의 개념으로 보았다. 삶과 죽음, 슬픔과 기쁨, 행복과 불행, 선과 악이 모두 상보적인 것이며 심지어는 유(有)와 무(無)도 상보적인 것이다. 일상적인 경험이나 단순논리로 보자면 이들은 모두 대립되고 모순되는 개념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입자-파동의 이중성에서 보듯이 자연은 이중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물리현상에 국한시킨다면 이 이중성이 바로 상보적인 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물리현상은 상보적인 양으로 기술된다. 물론 상보적인 양이 아닌 물리량도 있지만 그러한 물리량은 기본적인 물리량이 아니고 다른 기본적인 상보적 물리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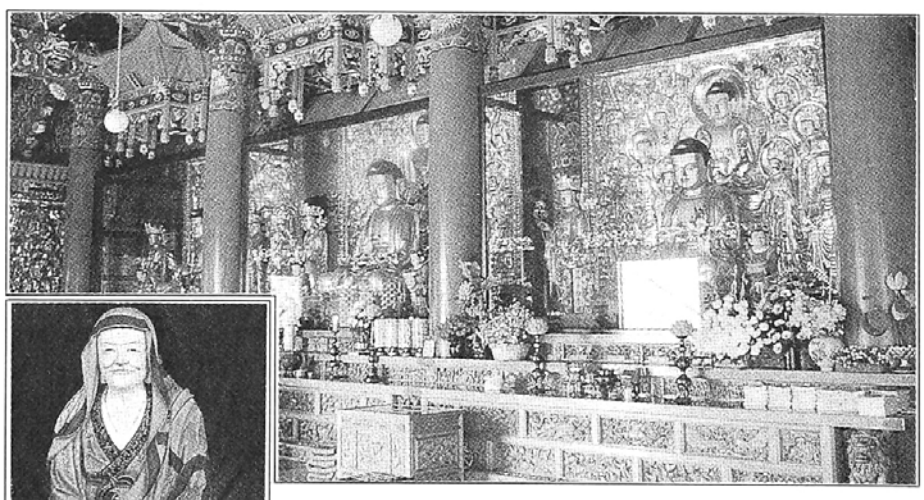
이중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을 보어가 상보적인 양이라고 부른데에는 이유가 있다. 관찰하는 자가 대립과 모순으로 파악하든 말든 자연은 서로 상보적인 두가지 양의 조화로 이루어졌다는 뜻에서 서로 보완해 준다는 뜻을 가진 상보적인 양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바로 음·양의 조화로 자연이 이루어졌다는 뜻에서 상보적인 양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볼때 상보적이라는 말은 참으로 적절하게 붙인 이름이다. 상보적인 양이 있기에 변화하는 자연현상을 물리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고전 물리학적으로 기술하는 고전역학이든 현대물리학의 양자역학이든 자연현상의 변화를 기술하는 역학(力學)은 상보적인 양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쉬운예를 들자면 입자의 위치나 속도중 하나만으로는 입자의 운동을 기술할 수 없고 위치와 속도를 나타내는 두가지 양이 있어야 입자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다는 뜻이다. 꼭 두가지 양이 있어야 물리학적 기술이 가능한 자연현상이지만 하나의 자연현상에 대해 상보적인 양 두가지를 함께 관측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상보성원리이다. 상보적인 양은 서로 대립되고 모순되는 양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오관으로 관측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인간의 분별지(分別智)로써는 그렇다. 따라서 두가지 양 모두에 적당한 불확정성(不確定性)을 두고 관측하거나 어느 한가지 양을 철저히 무시하고 나머지 한가지 양만을 확실하게 관측할 수 밖에 없다. 어느 것을 어떻게 관측하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관측자의 선택에 맡겨진 것이며 관측자가 선택하여 자연을 본다고 해도 자기가 보고싶은 것을 창조하여 본다는 것을 뜻한다. 내가 관측한 것을 다른 사람이 관측하였더라면 다른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그 사람은 그 사람식으로 창조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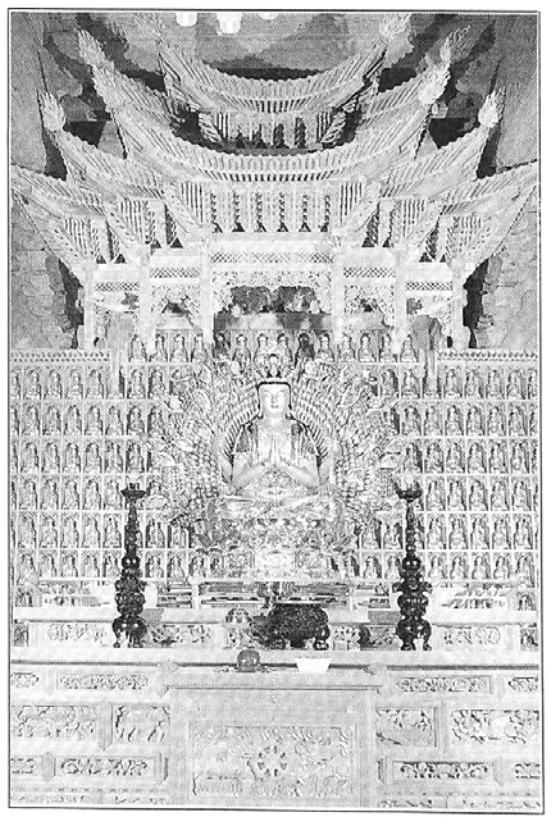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관측을 통하여 창조된 것만을 물리적 실체라고 한다. 이 물리적 실체는 눈앞에 드러난 자연이라는 뜻에서 불교의 색(色)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관측이전의 것은 무엇이라고 이름조차 붙이지 않는다. 그저 여러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여러가지 상태가 뒤섞여 있는 것으로 묘사할 뿐이다. 물리학적 이름조차없는 것에서 창조하여 보는 것이라면 바로 일체즉 유심조를 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고은 불교대하소설



82

"어서… 이리와"
먼저 바다에 뛰어 든 인담이
낭자의 발밑에 있는 뗏목을 잡아 당겼다
낭자는 물 속의 인담에게 안겨야 하였다



무욕도로 가던 떼배가 난파되면서 인담과 낭자는…

표류

인담은 혼자서 가는 길보다 정녕 낭자 소석과 함께 가는 길이 지루한 여름이어서 훨씬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한 마을 앞을 지날 때였다. 한 집에 초상이 나서 지붕에는 망자의 옷가지가 올려져 있고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낯선 사람이 지나가는데 개 짖는 소리가 없는 대신 곡(哭)의 때가 되었는지 곡성이 들려왔다.

인담은 낭자를 흘깃 쳐다보았다. 바로 그녀가 떠난 뒤의 늙은 아버지가 장차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런 번거로운 곡성 따위가 들리는 일 없이 시신이야 오두막 흙집 안에서 육탈될 것이었다. 아니 육탈에 앞서 새나 짐승들이 뜯어먹을 것은 뜯어먹히고 쪼아먹힐 것은 쪼아 먹히며 어느새 깨끗한 해골 하나로 남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삼라만상 가운데 중생이라면 마땅히 죽음도 그런 중생의 한 가지와 다를 바 없어야 마땅하다. 사람이 사람의 죽음을 장식하고 경건한 뜻을 부여하는 일로 다른 짐승들과 구별되는 영예와는 달리 세상 그대로 살다가 세상 그대로 가는 이치를 벌써 장례 따위로 그르치는 것은 아닌가.

무슨 개미 한 마리나 불곰 한 마리의 죽음이 어찌 사람의 그것과 다를 바 있겠는가. 고양이가 제 죽음을 세상에 보이지 않고 코끼리가 제 죽은 꼬라지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버리는 것에서도 사람은 마땅히 배워야 할 일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인담이 걸음을 재촉하자 그의 뒤를 따르던 낭자 소석도 걸음을 재촉하였다.

들의 세벌 김을 혼자 메고 있던 한 노인이 흐린 눈으로 두사람의 걸음걸이를 바라보다가 "저것들이 지금은 두사람인데 장차 2백명은 넘는 3대 자손을 둘 모양이여. 내 눈에 저런 헛것이 보였으니… 내가 갈 날도 머지 않았나보아…"라고 중얼거렸다.

벼는 너무 검푸른 나머지 사나운 잎새로 서슬이 무섭고 벼 줄기는 진작 열때가 패어 불룩하였다. 그런 벼속에서 마지막 잡초를 훑고 피사리도 겸하는 들녘은 그 해별 따갑기가 여간 아니어서 곡 쉼 맞는 아픔으로 온통 얼얼하였다.

그들은 좀더 북쪽 바닷가로 향하였다.

거기서부터는 인담에게는 눈감고도 갈 수 있었다. 개펄에 매어 둔 떼배는 누가 건드리지도 않은채 그대로 있으면서 타고 온 주인을 맞이하고 있었다. 인담은 여기에 이르러 문득 그의 몸 속에서 이제까지 지탱해주고 있던 지지대 같은 힘이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풀썩 주저앉았다.

"10년이 하루 저녁(十年一昔)이라…"라고 기뻐운 탄식조차 입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가 충청도 내포 지방과 백마강 일대와 바다 가까이에 있는 여러 산들을 떠돌다가 누가 등을 밀어서였는지 무인도인 무욕도에 건너간 일이 세월 저쪽에서 떠오르고 있었다.

특히 스승이 없는 중(無師僧)이었던 그에게 꿈 속의 고려시대 선사 담인화상이 나타나 스승이 되었고 그 스승의 이름을 꺼꾸로 놓아 인담이라는 법명까지 얻은 바 되었다.

게다가 고려의 빼어난 시인 임춘의 시문집까지 암굴 속에서 찾아내는 기연(奇緣)이 일어 난 뒤 무욕도에 하나둘 수행자들이 모여들어 한 가풍을 이루기까지 하였다.

우녀와의 인연도 남다른 것이었다. 또한 그가 애지중지해온 임춘의 시와 관련해서 임춘 후신인 불이라는 또하나의 도반도 다른 도반들과 더불어 그와의 나날을 함께 한 인연도 각별한 것이었다.

썰물이 시작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였다. 그런데 해가 제법 기울게 되자 어디다 감추고 있었는지 먹구름들이 갑자기 나타나 공중을 채웠다.

술을 일기 시작하는 바람도 뱀에 젖은 몸을 움추려들게 할 만큼 어떤 한기를 지니고 있었다. 바닷가의 소나무들이 제법 소리를 낼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소나무들을 울타리로 삼은 밭곡식들은 벌써 잎새들이 야단치기 시작하였다.

낭자 소석의 머리칼도 풀어져 있었다. 그 머리칼을 그녀는 다시 땄다.

인담이 그런 귀머거리한테 말을 던졌다.

"그대에게는 20년의 나머지라도 받았는지… 오래 이 세상에 있겠구나. 그대 아버지의 수명까지도 이어받는다면 더 오래 있게 되겠구나…"

낭자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할 터이고 설령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해도 그 뜻을 짐작할 수 없을 터였다.

그렇다면 인담은 그 자신과 주고받는 독백으로 힘 빠진 몸을 달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여기서 '20년의 나머지'란 석가모니부처님이 80세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것은 그 자신이 20년의 수명을 줄였다는 것을 뜻한다. 본디 부처님의 사바세계 수명은 1겁인가. 흡사같은 생각이나 하는 나를 어디다 쓸 것인가. 이 고장에서 밴댕잇속 같다는 말이 있지. 나도 밴댕잇속 보다 더 나은 데가 없는 셈이로다… 건너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지."

바람을 거스르지만 썰물이어서 떼배는 조금씩 나아갔다. 처음으로 바다 위에 떠 있게 된 낭자 소석은 떼목 위에 디딘 맨발이 민감하였다. 벌써 짚신짝은 물에 젖어 손에 들려져 있었다.

떼배라 해도 뗏목 복판에 작으마한 돛을 올릴 돛대가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오래전에 삶은 돛은 헤어져 쓸모가 없었다. 빈 떼배는 인담이 조금씩 상앗대로 저어가며 썰물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었다.

어느때보다 무욕도가 멀리 떨어져있는 것 같았다.

인담이 소석에게 파도소리를 이기도록 큰소리로 말하였다.

"바다가 좋은가?"

"…"

"사람의 속이 답답한 축은 바다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고 사람의 성정이 헐렁헐렁한 축은 산중이 공부하기가 좋지. 그대는 답답한 축인가?"

"…"

"하기야 이 바다 위의 섬도 처음에는 사방이 탁 트여서 마음을 활짝 열게 하지만 세월이 가면 이 커다란 하늘과 바다의 공간이야말로 여간 답답한 곳도 아니다. 어디 은산철벽이 따로 있더란 말이던가. 내 마음 속이 은산을 만들고 철벽을 세워 거기에 갇히는 것이지."

"…"

"이렇게 가노라면 해 지기 전에 그대 스승을 만나뵐 수 있겠다. 이로부터 그대 스승은 내가 아니라 우녀보살인지라."

"…"

어떤 말을 해도 낭자의 대답이 있을리 없다. 귀머거리에 벙어리 먹통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에 앞서 그녀의 정신은 어떤 문답 따위를 초월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바람이 차츰 예사롭지 않았다. 수평선의 파도들도 벌써 돌날처럼 바뀌어져 있었다.

"앉아 있어!"

라고 인담이 서 있던 소석에게 외쳤다. 그녀는 인담의 뜻대로 앉았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대신 뜻을 알아듣고 있음에 틀림없다.

떼배가 서로 묶여있는 부분이 부딛치며 불안하게 파도를 뚫고 나갔다. 인담은 가까워졌던 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안타까웠다.

제대로 건너갔다면 무욕도의 아늑자늑한 선착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벌써 그들은 거친 파도 등쌀에 섬의 다른 쪽으로 떠내려가는 형편이었다. 그때부터 인담은 섬에서 오래 산 사람답게 멀리 세찬 바람과 파도를 자세히 살폈다.

그때였다. 떼배의 한쪽이 풀어져서 뗏목 서너개가 떨어져 나가 파도 위로 흩어졌다. 인담이 파도 속으로 풍덩 들어가 뗏목 풀어진 데를 다시 매는 동안 여간 어려운 고비를 넘기지 않게 되었다. 짠물도 두어 모금 들이켜야 하였다.

"으으"하고 낭자가 처음으로 소리를 낼 수 있었다.

그녀로서는 인담이 물속에 있는 것이 무서웠다. 자꾸 "으으" "으으"하고 입안에서 지극히 불완전한 신음소리를 냈다. 그것만이 그녀가 할 일인 것처럼.

어느덧 해가 수평선에 머리를 박더니 이내 수평선 너머로 빠져서 그 일대가 붉었다. 이번에는 떼배의 다른 쪽이 풀어져서 두개의 긴 뗏목이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이제 인담도 어쩔 수 없었다. 그가 낭자에게 손짓으로 말하였다. 이를테면 뗏목 두어개를 들어서 그것에 의지하며 물 속에 떠 있으라는 것이었다.

먼저 인담이 돛대로 쓰던 긴 나무를 들고 바다에 뛰어들어 떴다. 그는 낭자에게 그대로 하라고 외쳐댔다.

하지만 낭자는 자꾸 떨어져나가는 떼배 위에서 어찔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어서… 이리 와!"

라고 인담이 낭자의 발 밑에 있는 뗏목을 잡아당겼다. 그녀는 물 속의 인담에게 안겨야 하였다.

그림 · 조향숙

청정운동 실천전국대회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청정운동 선언문

오늘날 이땅의 겨레는 화합의 가치를 잃고 지혜로운 삶의 기름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

종교는 권위와 세력을 위한 집단 이기심으로 갈등의 불길이 팽배되고 있으며 정치는 권모와 술수로 감정의 대립을 계속하여 불신과 오욕의 어둠속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잃어가고 있다. 물질에 대한 무분별한 욕심은 공기와 물, 나무와 땅을 훼손하여 다시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이 강산, 이 국토를 더럽히고 있다.

오늘 우리는 결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니 그것은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청정운동"의 길에 우리 모두가 하나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몸과 마음을 바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살리고 올바른 사회 질서를 선도하여 이 땅을 깨끗이 함에 큰 물줄기를 이루고자 함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본래 부처님의 가르치심이었고 이땅의 겨레가 수천년을 지켜온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을 자각하며 "청정운동"의 대열에 우리 함께 매진할 것을 선언한다.

청정운동 '96실천지침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위하여

■ 매주 월요일은
- 아침 예불을 올리고 독경, 참선 등 수행을 한다.
- 술, 담배, 고기를 먹지 않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 말을 삼가고 화내지 않는다.
-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한다.

■ 매월 1회 이상
- 가족이 함께 법회에 참석한다.
- 가족과 직장 단위로 한달간 돈을 모아 보시한다.
- 환경 개선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한다.

대회일정

지역	전주	광주	대전	논산	부산	대구	서울
일시	6월9일(일) 오후 2시	6월18일(화) 오후 7시	6월28일(금) 오후 7시	6월30일(일) 오전 10시	7월6일(토) 오후 3시	7월7일(일) 오후 3시	7월21일(일) 오후 2시
장소	전북예술회관	남도예술회관	우송예술회관	연무대 법당	부산일보대강당	대구시민회관	다보빌딩대법당
연사	정병조	강건기	송석구	고은	목정배	이기영	이기영 외
연계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희향대회
주최	"청정운동"추진협의회						
주관	한국불교대원회 전북불교대학 외	한국불교재가회의 광주불교능인회 외	대불련총동문회 대전 대불련 동문회 외	대한민국육해공군 군승단 외	대한불교청년회 대불청 부산 지구 외	구도회 대한불교대불회 외	우리는 선우 대한불교진흥원
협찬	동국제강주식회사						
문의	전북불교대학 0652-86-3977	광주불교능인회 062-225-5161	대불청대전지구 042-585-7799	호국 연무사 0461-741-3734	대불청부산지구 051-862-0082	대한불교대불회 053-254-2430	대한불교진흥원 02-719-2606

청정운동 추진협의회 :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대한불교진흥원 내 / 전화 : 02-719-2606 / 팩스 : 02-719-5052




◇오계를 수지한 원생들이 부처님의 자비의 품에서 새롭게 불교와의 인연을 맺었다.

부산서 온 이름없는 '부산이' '선재'라는 법명받고 희색

소쩍새마을 단오맞이 첫 수계식 현장

장애원생등 108명 '새생명' …2천여 신도 축복

"살생을 하지 말지니… 예, 지키겠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지니… 예, 지키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말지니… 예, 지키겠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지니… 예, 지키겠습니다.
술을 과하게 마시지 말지니… 예, 지키겠습니다."

연신 내리는 굵은 장마비 사이로 간간이 내비치는 햇빛이 마치 잔잔한 부처님의 미소를 연상시키던 지난 20일 치악산 자락의 소쩍새마을(원장 보각)에서는 단오를 맞아 봉행된 수계식으로 활기를 띄고 있었다.

오늘은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부산이'로 불리우던 선재나, 자원봉사자들이 안아주기만 하면 달싹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찐득이'로 불리던 혜광이, '왕자' 종호, '공주' 혜진이처럼 호적상 정식 이름이 없던 10여명의 원생들을 비롯해 소쩍새마을에서 터를 일궈가며 살아가는 지체, 정신장애 원생과 직원, 자원봉사자 1백8명이 불명을 받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다.

향림사 조실 천운스님과 보각스님이 수계대법사로 나선 이날 수계식은 먼길도 마다하지 않고 소쩍새마을 원생들에게 용기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달려온 2천여명의 신도들이 증명법사가 되어 축복해주는 가운데 치러졌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의 오계를 수지한 4살바기 지체장애아 '부산이'가 새롭게 받아든 '선재'라는 법명이 어색한지 수계대법사로 나선 원장 보각스님의 가사자락을 붙잡으며 용기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달려온 2천여명의 신도들이 증명법사가 되어 축복해주는 가운데 치러졌다.

"부산아, 아니 선재야 이러면 손님들이 흉 보잖니"라며 자원봉사자들이 당황해 어쩔줄 몰라하며 달래어 보지만 선재는 여간해서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선재의 예고(?)없는 행동에 용기를 얻은 원생들이 연비의 따끔함에 몸을 움짓하던 긴장감도 잊은채 약속이나 한 듯 "스~님 사랑해요. 이제 우리도 부처님이죠"라며 향림사 대흥사 스님들의 목덜미에 매달리며 어눌한 몸짓과 목소리로 애써 오늘의 기쁨을 표현했다. 소쩍새마을을 찾은 2천여명의 신도들은 진진하게 무릎끓고 앉아있던 원생들의 가식없는 행동이 마냥 귀엽고, 기득하기만한지 그치지 않는 박수로 원생들을 격려해 주었다.

장대비가 가짜승려 일력으로 인해 겪어야했던 아픈 기억들을 말끔히 씻어내기라도 한듯 원생들의 환한 미소는 소쩍새마을의 안정된 마을분위기를 금새라로 읽을 수 있게 한다. 많은 역경을 겪고 부처님 품안에서 옹아리를 튼 소쩍새마을이 이제 소외된 이들의 정든 삶의 터전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것이었다.

"부처님 앞에 누구나 평등한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었으니 불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세요"라는 천운스님의 한마디가 수계식장을 잔잔한 감동으로 수놓자 2천여 신도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어 소쩍새마을 원생들의 웃음소리가 치악산의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오고 있었다.

원주=도필선 기자

수련대회도 전문화시대

특정분야 선택 짧은기간 참여

'죽기위한 가르침' '진언명상' 등 다양

위빠사나 수련 일반인에 호평

여름은 수행의 계절.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앞두고 각 사찰과 신행단체들의 수련대회가 마련되고 가운데 독특한 주제를 내건 전문수련대회도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다. 대개의 수련대회는 신행체험, 야외캠프, 극기훈련 등 포괄적인 신행경험을 위주로 하지만 전문수련대회는 특정분야의 수행으로 짧은 기간에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교계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문수련대회의 특징은 △수행생활 통한 심성계발 △참나찾기 △공동체생활통한 동사섭(同事攝) 함양 △명상통한 통찰력 기르기 등이다. 또 이같은 수련대회는 승가의 수행법만을 강조하지 않고 불교의 승가생활과 청정수행정신을 바탕으로 단일화된 수련으로 기존의 관념을 타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전남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는 4년전부터 염불신앙과 정토수행법으로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타종교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1박2일의 주말수련회를 연다. 현장스님은 "현세뿐만 아니라 생과 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의 문제에 모든 초점을 맞춰 수행하면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 보인다"며 "이를위해 금년에 살기위한 것이 아니라 죽기위한 여름수련대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요즈음 명상법이 직장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위빠사나 명상수련도 일반인들에게 호평받는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남양주 봉영사(주지 철안)는 7월 6일부터 21일까지 초보자와 중급자를 위한 단기수련회를 실시한다. 봉영사측은 "일일 14시간 이상의 좌선과 행선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위빠사나는 순간순간 고요하고 명료한 깨달음을 통해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수행법"이라고 설명했다. 강원 영월 보덕사(주지 현오)도 7월 21일부터 8월9일까지 하계 위빠사나 명상수련원을 개설한다.

이밖에도 천리안 동호회(시삽 유수호)가 7월 12일~14일까지 남원 실상사에서 수련회를 개최하고 정토수련원(원장 법륜)도 지난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깨달음의 장, 나눔의 장, 염불 진언명상으로 나눠 실시하는 등 독특한 프로그램을 단일화시킨 전문수련대회가 점점 확산돼고 있다.

지난해 염불선 수련회에 참가했던 박연준씨(30·회사원)은 "고요하고 맑은 전문 수련도량에서 체험을 통해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볼 수 있었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다"며 "올해에도 회사동료들과 함께 수련대회에 참가하기로 약속했다"고 자랑했다.

김중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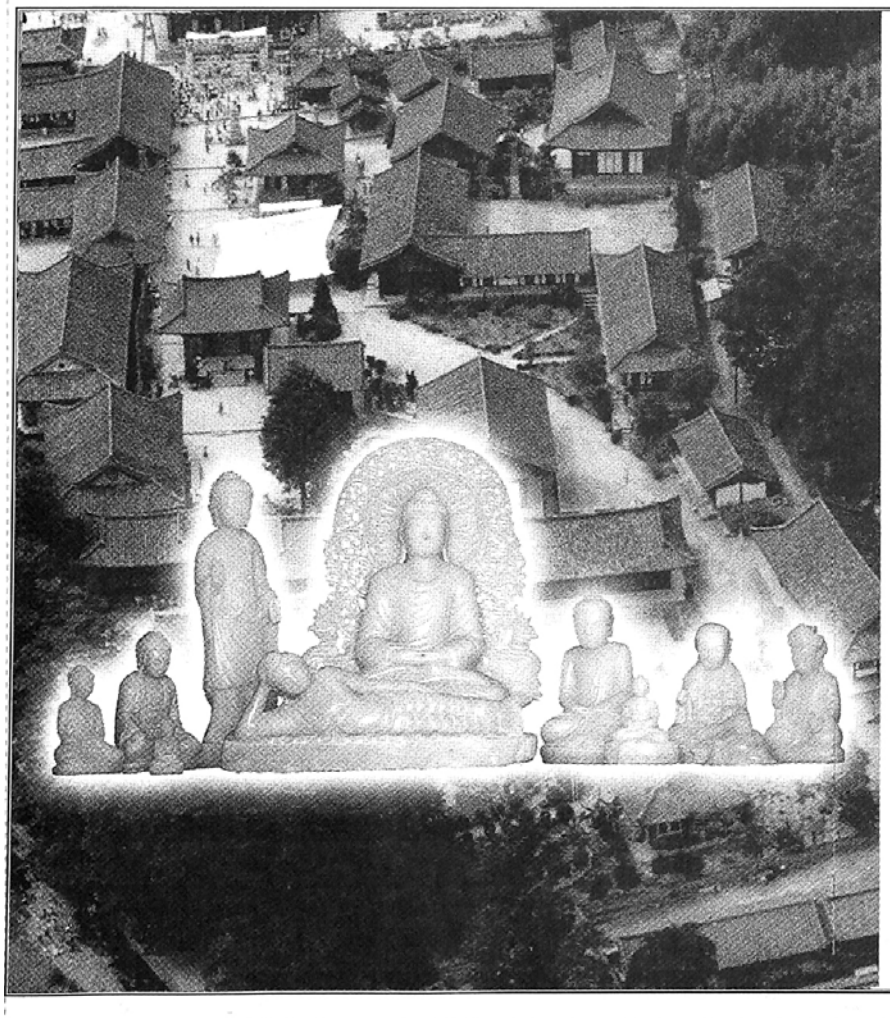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지옥의 장 *
가사(袈裟)를
머리에서부터
덮어 쓰더라도

이 향 원





부처님을 조성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옥(玉)에 대해 다년간 연구(硏究)를 해온 몇몇 불자(佛子)들이
신심(信心)을 내어 사찰(寺刹)에 모신 부처님에 대한
경애심(敬愛心)을 한층 더 고취(高就)시키고
한국불교문화(韓國佛敎文化)를 계승(繼承)·발전(發展) 시키고자
금강옥불주식회사(金剛玉佛株式會社)를 설립하여
옥(玉)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準備)하였습니다.
대불(大佛), 대탑(大塔), 108불, 1천불, 3천불, 1만불 등과
불가(佛家)에서 필요로 하는 옥(玉)에 대한 모든 것을
조성(造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국정토(佛國淨土)를 이룩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이 상 필 合掌



玉 옛 조상님들의 전언에 의하면 옥을 지니면 기(氣)가 통하여 혈액순환에 좋아 몸을 따뜻하게 하며 집안이 융숭하게 되어 부(富)가 늘게 되며 모든 잡귀가 사라진다고 전해진다.

항상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옥불조성전문업체
金剛玉佛株式會社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4동 190-24번지
TEL:(051)802-4696~7 FAX:(051)802-4698

재미…감동…웃으면서 불교공부

불교우화·고승일화·설화 담은책 '인기'

초심자 불교입문서 역할 '톡톡'

'자타카' 최초 우화집…이솝우화등 영향



◇불교우화·일화 등 교훈적이면서도 재미와 감동을 함께 지닌 불서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때로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한마디가 몇 권의 책보다 더 큰 교훈을 줄 때가 있다.

최근들어 〈자타카〉 〈백유경〉 등 불교우화나 고승들의 일화를 바탕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책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많이 읽히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읽으면서 배꼽을 잡고 웃는 사이에 우스개소리 뒤에 숨겨진 진주와도 같은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이같은 불서들은 재미있는 우화나 설화, 일화 등을 통해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자연스럽게 깨우치게 한다. 그래서 불교에 생소한 일반인이나 불교 입문자, 청소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불교입문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자주 소재가 되는 경이 〈자타카〉다. 본생담(本生譚) 또는 본생경(本生經)으로 번역되는 이 경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전생에서 어떠한 수행을 쌓았는가를 여러가지 이야기 형태로 엮은 세계최초의 우화집. 기원전 4~2세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자타카〉는 불전문학의 백미로서 540여가지나 되는 지우스님의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불교시대사), 남교희씨의 〈만화로 보는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사사연), 신현득씨의 〈어린이 팔만대장경〉(현암사) 등을 비롯한 많은 불서들이 〈자타카〉를 약방의 감초처럼 원용하고 있다.

〈백유경〉도 많이 읽히는 경이다. 5세기경 인도의 상가세나스님이 불경 가운데서 우화만을 가려뽑아 만든 〈백유경〉은 이솝우화와는 달리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 더욱 친밀감있게 우리의 막힌 귀와 닫힌 마음을 열어준다. 김성규씨의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가득차 있어 이솝우화나 아라비안나이트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했다.

최근에 나온 것만 해도 서희건씨의 〈자타카〉(문학수첩)와 〈부처가 되는 백가지 방법〉(큰산), 남교희씨의 〈만화 백유경〉(불교만화사), 향봉스님의 〈마음의 샘터 지혜의 샘터 백유경〉(밀알) 등이 눈길을 끈다.

부처님과 제자들, 수많은 선사들이 비유를 통해 들려준 삶의 지혜를 이야기 형식으로 담은 불서는 이밖에도 많다. 16나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룬 불교동화책인 선용씨의 〈나한이야기〉(현암사), 불교의 진리가 담긴 핵심적인 설화를 모은 김원각씨의 〈숫가락은 밥맛을 모른다〉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책만드는집)도 돋보이는 책이다.

달마대사로부터 근대 고승에 이르는 스님들의 일화를 다룬 불서로는 홍희씨의 〈선종이야기〉(동문선), 박영규씨의 〈달마에서 경허까지〉(정신세계사), 홍여문씨의 〈강을 건넜으면 나룻배는 버리게나〉(고려문화사), 진동일씨의 〈나는 노새의 똥이로다〉(백양) 등이 최근에 나왔다.

김재경 기자

명사추천 불서 100선

'인간 석가'



김 진 식 〈수필가〉

다까하시 신지(高橋信次)의 〈인간 석가〉를 알게 된 것은 이 책을 번역한 진선 한의원장 김해석시인을 통해서였다. 이미 지난 92년에 번역 출간된 〈마음의 발견〉과 〈마음의 원점〉을 통해 저자 특유의 독창적이고 진솔한 불교관을 접했던 터라 주저없이 눈길을 쏟게 되었다.

이 책도 여느 석가전과 마찬가지로 탄생과 출가,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과 승단의 구성, 설법 등으로 짜여 있으나 몇가지 점에서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첫째는 법의 해석이었다. 법이란 바로 질서이며, 대자연은 이 법에 의해 움직이지만 조금도 자의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불교는 이런 점에 있어서 아리송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제법무아(諸法無我) 즉, 집아(執我)의 잘못을 부으로 풀고 있다는 점이다. 연생의 법칙을 알고 바른법을 깨쳐 실천하는 정도에 따라 도달하는 깨달음의 단계가 결정되며, 그것은 능력의 수월성(秀越性)을 드러내는 빛의 강도로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의식진화의 전과정을 자세하고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일반 불서와는 다

중도관 설득력 있는 이론제시

깨달음의 단계 명확하게 서술

각시키면서 근원적인 존재의 실체를 명확히 하지않는 무아설(無我說)은 불교학자들의 지식과 뜻이 가미되어 그렇게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곧 무아(無我)는 없는 것으로만 해석하기 쉬우나 질서의 바닥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모든 법의 축(軸)으로 움직인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람들도 이러한 자연이 가르치는 중도의 정신을 살려나간다면 조화와 질서의 밝은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의 바닥에 깔고 있다. 이점이 일반적인 불교이론과는 차이가 있지만 매우 실제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론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연생(緣生)의 순환과 진보, 그리고 심령(心靈)의 개발성을 논리적으로 풀고 있다는 점이다. 연생의 법칙을 알고 바른법을 깨쳐 실천하는 정도에 따라 도달하는 깨달음의 단계가 결정되며, 그것은 능력의 수월성(秀越性)을 드러내는 빛의 강도로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의식진화의 전과정을 자세하고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일반 불서와는 다른 점이다.

마지막으로 특이한 점은 기존의 석가전에 나오는 이름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세의 말(방언) 그대로 적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자인 다까하시는 48세라는 길지 않은 생애에 많은 이적을 보였고, 현생에서 배운 적도 없는 고대 인도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이집트어까지 구사했다고 한다. 또 그와 인연을 맺었던 김해석시인에 따르면 다까하시는 그의 가르침이 조직화되어 타락하는 것을 매우 경계한 것으로 전해진다.

불교교의의 대의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독창적이고 명쾌하게 부처님의 출가·성도와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는 〈인간 석가〉는 필자의 불교 이해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인도미술사 | 벤자민 로울랜드 지음

인도 불교미술 변천과정 상세히 분석

화제의 책



서울대 이주형교수(고고미술사학과)가 번역 출간한 벤자민 로울랜드의 〈인도미술사〉(예경)는 우리나라 고대 불교미술과 상당한 관련을 지닌 인도 불교미술의 변천상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서다. 간다라 미술과 중앙아시아 불교미술 연구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저자는 미국의 인도미술 연구에 초석을 놓은 학자로 알려져 있다.

인도미술에 대한 개설이 아직 고고학적인 설명이나 관념적인 서술에 머물러 있던 1953년 당시, 미술품에 대한 섬세한 분석과 명쾌한 설명을 담은 이 책은 출간 즉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30여년간 판을 거듭하면서 영어로 쓰여진 인도미술사의 대표적인 개설서로 자리를 굳혀 왔으며 오랫동안 미국 대학에서 인도미술사 강좌의 교과서로 쓰였다.

〈예경, 1만5천원〉

"불교미술서 농축된 시대이념 엿봐"

'한국불교미술사' 펴낸 김 영 주 씨





"우리 불교미술의 위대한 예술성은 진리의 깨달음으로 법열(法悅)에 차서 커다랗게 터져 나오는 웃음을 터트릴 듯한 그런 예감을 주는, 오묘한 전율의 정신세계를 창조해 낸 데 있습니다."

최근 삼국시대 불교의 수용부터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까지 한국 불교미술의 흐름을 정리한 〈한국 불교미술사〉(솔출판사)를 펴낸 미술사학자 김영주(50·서강대 강사)씨의 한국 불교미술 예찬론이다.

불교교리와 생소한 전문용어로 일반인들이 읽기에 다소 어려운 분야를 가급적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는 김씨는 "불교미술은 조형미와 회화미를 추구한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당대의 불교 교리와 신앙, 즉 시대이념이 농축된 고도의 사상체계"라고 설명한다.

"고대미술의 특징은 한마디로 활달함과 자신감입니다. 석굴암의 본존불을 보세요. 마치 신성한 기운이 서린 육체를 대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완벽한 조형미에 사상성이 겹치면서 일종의 초월적 경지에 도달했지요."

그가 중점적으로 다룬 작품은 통일신라의 불국사와 석굴암, 고려시대 불화와 청자 등. '우리 것이 더 아름답다'는 확신으로 불교의 수용과 이념변화에 따른 미술의 변천을 당시 사회상과 아우르며 친절하게 안내한다. 중국 일본의 불교미술을 포함, 1백30장에 이르는 원색사진도 돋보인다.

김씨는 〈토지〉의 작가 박경리씨의 외딸이자 시인 김지하씨의 부인. 연세대 민영규교수와 동국대총장을 지낸 고 조명기박사로부터 불교학을 사사한 김씨는 저서로 〈조선시대 불화연구〉(지식산업사, 1986)와 〈신기론(神氣論)으로 본 한국 미술사〉(나남, 1992)를 낸 바 있다. 〈재〉

寺誌 '갓바위 부처님' '보문사' 발간

사찰문화연구원

지금까지 강원도편을 비롯해 서울편, 경기편 1, 2권 등 모두 다섯권의 '전통사찰총서'를 출간한 사찰문화연구원이 〈용주사〉(93년 발간)에 이어 단행본 사지(寺誌)인 〈갓바위 부처님〉과 〈보문사〉를 동시에 발간했다.

선본사 사지인 〈갓바위 부처님〉은 우리나라 약사신앙의 유래와 그 참뜻, 팔공산의 명찰 선본사와 갓바위부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팔공산 관봉 아래 자리한 갓바위부처님은 약사여래로서, 신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영험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보문사〉는 보문사의 역사를 비롯, 관음·나한의 영험설화, 관음신앙의 참뜻, 보문사의 성보문화재 등을 알기 쉽게 엮었다. 보문사에는 관음성지임을 상징하는 마애관음좌상이 서해바다가 한눈에 조망되는 곳에 위치하 있어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저작권법 7월 발효

출판계 자구책 '골몰'

오는 8월경 베른협약 가입에 앞서 정부가 협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마련한 '개정저작권법'이 7월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이에따라 외국서적이나 출판물의 경우 57년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이 전면 소급보호됨에 따라 외국작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학술서적과 외국문학작품 출판의 타격이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세계저작권협약(UCC) 가입시점인 87년 이전에 발행된 외국저작물에는 로열티를 주지 않고 번역 출판했지만 7월부터는 57년이후 사망한 저자의 저작물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이미 번역된 작품은 99년까지 로열티 지급없이 사용한다는 '경과조치'로 보호된다. 1886년 채택된 베른협약의 공식명칭은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론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 터
2	기도	일 타	효 림
3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경각
4	달을 듣는 강물	김진태	해 냄
5	전생여행	김영우	정신세계사
6	금강경강의	무 비	불 광
7	그 마음을 바쳐라	김재웅	용 화
8	능엄경주해	운 허	동국역경원
9	그냥 살래 바꾸고 살래	법 륜	모 색
10	훨훨 털고 같이 가세	서 암	정 토

구입문의:(02)737-0695

녹수청산으로 오십시오.

▶ 녹수청산은
인스턴트 식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엄선된 재료와 정성어린 손길에서 깊은 맛이 우러나기 때문입니다.

▶ 녹수청산은
최고의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최고의 재료에서 최고의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녹수청산은
오직 정성으로 차를 다립니다.

고객 여러분께 깊은 여유와
만족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 불자들의 신행모임, 도심 특별 법회, 강연회 등에 장소를 빌려드립니다.
(단체예약 모임은 저녁 10 : 30 까지 가능하며 별도의 서비스 혜택이 있습니다)

다원 녹수청산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 736-3782 ○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9, 84, 159, 331, 588-2

화제의 전시회

혜천스님 대장경 판화전



고려대장경 변상도를 목판각 및 지화로 소개하는 유혜천스님(시진·손모음선원 주지)의 제3회 판화전이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달간 롯데월드 민속관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고려대장경 변상도를 양음판화로 판각 판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혜천스님은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달마 나한 문수동자 등 1백여점을 선보일 예정. 이번 전시에는 판각, 원본과 전각 서각 동양화 선화도 함께 전시된다. (02)216-6957

'구도' 주제 한기늠 조각전

불자작가 한기늠 조각전이 지난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부산KBS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구도'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작가의 구도에의 간절한 염원과 불심이 가득 담긴 브론즈와 돌 작품이 눈길을 끈다.

이탈리아에서 연속적으로 전시회를 갖는등 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기늠씨는 참선에 든 스님, 연꽃 등을 형상화한 60여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기늠作 '중도'.

미술로 본 20세기 한국인물展

불자작곡가 윤이상, 민족지도자 김구, 시인 김소월 이상정지용, 무용가 최승희, 열사 류관순, 노동운동가 전태일… 우리 현대사에 족적을 남긴 큰 인물들을 현역 유명작가 11명이 각양한 재료와 표현양식으로 형상화한 이색전시회 '미술로 본 20세기 한국인물'전이 서울 관훈동 노화랑(732-3558)에서 오는 7월 16일까지 열리고 있다. 참여작가는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지난해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받은 전수천, 이왈종, 조각가 류인, 한만영, 이종상, 윤석남, 조덕현, 민정기, 홍성담, 임옥상씨.

전통문화 일깨우는 미술전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문화사랑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로 개최된 '제2회 한일은행 전국미술대회' 입상자 전시회가 오는 30일까지 한일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다. 미취학 및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미술대회는 4만 6천여명이 응모해 192명이 특선이상 입상했다.

한편 이번 미술대회에는 목포산정초등학교 이두현 학생의 '불상'을 비롯 사찰 목어 석탑 등을 소재로 한 그림 10여점이 입상했다.



◇동상을 차지한 이두현(목포 산정초등 5년)作 '불상'.

성보보존위 구성 '차일피일'

조계종 위원명단 초안작성…'인선신중론' 대두
무분별 불사 제어위해 성보보존법 보완 시급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성보문화재의 관리, 보존을 위하여 연구 조사 발굴 및 사찰불사를 심의 승인하는 종합적 성보전담기구 '성보보존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함에도 그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조계종의 새 집행기구가 들어선 후 각 방면에서 불교의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추진되어 왔다. 그동안 방치돼 왔던 성보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연구를 위한 종단차원의 전문기구인 성보보존위원회(이하 '성보위')의 설치는 그 무엇보다도 선결해야할 과제로 꼽혀왔다. 담당부서인 문화사회부에서는 이의 구성을 위해 위원 명단까지 작성했으나 활동을 뒷받침해줄 법적장치의 보완이 뒤따르지 못해 아직까지 종무회의 의결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기구가 단순한 자문기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 72년 제정된 '성보보존법' 내에 이의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여년이 넘도록 사장돼 있다시피 한 성보보존법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사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보위의 내역을 보면 건축 회화 불상 서지 공예 조각 등 분야별 관련 전문가 2~3명씩 총 20명내외로 구성하되 종무회의 제청에 의해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문화사회부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으며 고문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성보 보존관리에 대한 기본적 시책 △성보의 조사 발굴 연구, 포교적 활용 △종단 사찰불사 심의 승인 △성보봉안 심의 승인 △지정비지정 문화재의 보수 및 현상변경 승인 △성보의 공개 전시 출품 대여, 국의반출의 심의 승인 △성보 및 사적지의 조사 발굴 복원 △성보보호구역 지정과 해제△불교무형문화재의 조사 발굴 전승 및 보유단체 육성 등 성보문화재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게 된다. 이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종단 사찰 불사 심의와 승인 부분이다.

지금까지 사찰의 불사는 종단의 엄격한 심의와 점검을 받기보다는 당해사찰 주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혹여 부실한 불사가 돼도 이를 감시·제어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일부사찰에서는 사찰의 역사와 유래야 어떻든 건물불사는 무조건 크고 화려하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불사를 추진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선종 수사찰인 강남 B사에 사격에 안맞는 미륵불이 모셔진 경우가 그렇고 선원으로 유명한 경북 문경의 B사가 아담하면서도 고색창연한 옛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청들이 화려한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 선원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성보위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면 앞으로 불사 형태가 크게 바뀔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성보위가 설치되면 불상 범종 탱화 등 성보의 봉안도 사전에 철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확한 고증으로 역사성과 예술성이 겸비된 성보봉안 및 불사가 이뤄지도록 관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성보위의 권한이 위원회의 결성을 뒤쳐지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성보봉안과 사찰불사를 심의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홍윤식교수(동국대 박물관장)는 "성보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의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물목록이나 관리대장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찰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관리와 보존을 권장하고 감독해야 할 종단차원의 행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것이 큰 문제이므로 하루빨리 성보보존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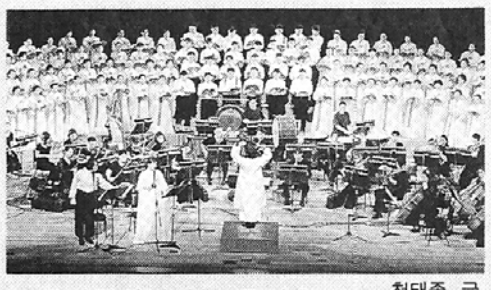


봉원사 단오절 영산재 시연

영산재보존회(회장 대운)는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촌 봉원사에서 단오절맞이 제8회 영산재시연행사를 가졌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 시연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혜초스님 송암 일옹 지광 혜경 구하 일운 성일스님 등 보유자 및 준보유자, 전수교육보조자, 이수자 등 영산재 보존회 스님 전원과 신도등 1천여명이 장엄한 불교전통의식에 동참했다. 사진은 영산재 순서중 '식당작법'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금강합창단 불교음악축제

천태종 금강불교합창단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축제가 지난 14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찬불가 '반야심경'으로 막을 연 공연은 박재완씨 지휘로 꿈나무들의 행진, 중국교포 박영자씨의 '공작새의 춤', 향가 '보현십원가'를 현대감각에 맞게 교성곡으로 완성한 대작 '나누는 기쁨' 등으로 이어져 참석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불심시심 〈55〉

옛 친구 찾아온 지팡이

久住方壺泉石隈 (구주방호천석외) 오래 머문 산사 들 물 언덕
一笻相訪故人來 (일공상방고인래) 옛 친구 찾아온 지팡이 하나
香階樹老秋容早 (향계수로추용조) 향기 뜰 나무는 늙어 가을 빛 이르고
板閣鍾殘暝色催 (판각종잔명색최) 누각의 종소리 늦어 어둠 재촉하네
眞樂帶邊峰萬疊 (진락대변봉만첩) 진락대 주변은 봉우리 일만 겹
枕溪樓下水千廻 (침계루하수천회) 침계루 밑에는 시내가 천 굽이
懸燈竹榻淸無寐 (현등죽탑청무매) 밝은 등불, 책상 앞, 잠도 없는 해맑음
話盡離愁坐撥灰 (화진이수좌발회) 이별 시름 이야기 끝나 식은 재만 헤집다

위 시는 백암(栢庵)대사(1631~1700)의 시이다. 대사의 행적을 보면 내외전을 두루 통달하였고 시를 짓기 좋아하여 당시 문사들과의 수창이 매우 많다. 그의 문집에는 당시 명사들과의 수창이 대부분이다. 그야말로 시로써 忘道의 벗이 되었던 것이다.

위의 시는 이러한 방외자와의 주고 받음이 아니라, 통도자와의 수창이다. 수선사에 다시와서 지기에게 준다 한 시이다. 지기라 하여 둘도 없는 친구를 만났으니 회비의 감정이 배어나는 시일 듯한데 그러한 얕은 정리의 표현은 아예 없고, 주변 경관을 이야기하므로 보다 더 깊은 자연의 정리를 나타내고 있다.

네 계절 아침 저녁의 풍광, 이것은 지기의 벗과 느끼는 기쁨, 슬픔이요, 자연의 한 요소로 살아가는 인간생활의 일부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친구를 생각하기도 하고 만나면 기쁘고, 헤어지면 섭섭한 것이다.

이 시는 구성도 매우 짜임새 있다. 제 1련에서 만났다는 말로 시의를 불러 일으키고, 제 2련에서 자연의 경관을 크게 서술하였다. 가을을 가져오되, 고목을 들고나와 가을이 빨리 오고 있음을 잘도 묘사하였다. 秋容早라 한 표현이 재미있다. 산사의 저녁을 이른 가을과 잘 어울리도록 끌어왔다. 종루에서 잔잔히 식어가는 저녁예불의 종소리가 저무는 산사의 정적을 재촉하고 있다.

제 3련에서 서정의 범위를 나와 친구 사이로 가까이 끌어들인다. 진락대와 침계루로 옮겨 왔다. 겹겹이 두른 산 이것이 바로 참 즐거움인 진락이고, 굽이굽이 흐르는 물소리 바로 베개머리에서 들리니 이것이 바로 시내를 베개삼은 침계이다.

제 4련에서 위의 경관에 어울리는 두 사람의 자리로 시의를 좁히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등불과 선상 앞에서 두 사람은 잠을 잊었다. 더 이어갈 화제도 없다. 이제는 다시 떠나야 한다는 일상의 진리만 남아 있다. 다 식은 불씨만 뒤적이고 있다. 식어도 식지 않는 두 사람의 정을 실감있게 표현하였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합죽선에 수놓은 그림보기"

단오부채 전시회, 백악예원서 27일부터

단오(음력 5월 5일)는 일년중 가장 원기가 왕성한 날로 일명 수릿날 중오절 천중절 단양이라고도 한다. 예전에는 단오가 큰 명절로서 여러 행사가 펼쳐졌다. 창포에 머리감기, 부적만들어붙이기, 대추나무시집보내기, 단오비녀꽂기 등과 그네뛰기, 씨름, 활쏘기 등의 민속놀이가 행해졌다. 궁중에서는 단오부채를 만들어 신하들에게 하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단오부채의 풍류와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단오부채전시회가 열린다. 한국선면예술협회(회장 문장호)주최로 오는 27일부터 7월3일까지 관훈동 백악예원(734-4205)에서 열리는 제7회 선면전(扇面展)에는 법성·일당스님 등 스님화가와 강행복씨 등 73인의 작가가 참여해 합죽선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전시한다. 수묵산수, 채색, 유화, 아크릴, 관화 등 다양한 형식의 그림이 들어간 단오부채가 한국부채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한국선면예술협회는 서울전시회후 7월10일~25일 유성 홍인갤러리에서 또 한차례의 부채전시회를 갖는다. 한편 세계화랑(734-9662)에서도 '재미있는 부채이야기展'이 오는 30일까지 열리고 있다. 〈숙〉



◇'선면전'에 나오는 강행복作 '꽃을 드니 미소짓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게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모범업소(오랜전통)
동궁 결혼 연구원
초혼·재혼
저희 업소는 불교 신자가 운영하는 업소입니다
소장 金銀子 합장
문의전화:745-3005

척추교정·지압 시술 및 개인지도 (CHIROPRACTIC)
•치료및교육내용 ▶척추및 각 관절 교정법
목·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시술도 병행함
장삼수 건강연구원
압구정역 543-7306

포교당 운영하실 분
주석하시던 스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임자를 찾습니다.
■위치:동대문구 장안4동
■법당:50평,시설 일체 완비
■연락처:(02)245-0904
■비용:보증금 3000만원 시설 일체 1800만원
※운영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불교사업 동참하실 분
■불교 교육사업에 뜻이 있는 분
■불교지도자 양성사업 하실 분
■불교 단체 운영하실 분
※교육청 인가
만 대 교 학 대 학 원
등기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931-6075~6(代)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4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종내최대 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 (02)733-6141(서울사무소)
☎ (0331)283-2083(공장)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수시접수
(지방수련장 상담 환영)
수련과정: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02)735-6795·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 해 창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木材放火劑(화재예방응)
■木材활열방지제(갈리짐 변색)
■木材방충·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상원B/D (을지로 2가)
전화:(02)266-2629
팩스:(02)266-2679

보리수
취급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합천(해인사):대적광전·법상·경상
•의왕시(대원사):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서울(백화사):법당 수미단 옹각 복진함
•음성(상보사):대웅전 문짝
•화천(법장사):대웅전 명부전 문짝
•성남(법륜사):대웅전 문짝 닫집
•충주(침덕사):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마산(진관사):대웅전 수미단 옹각
•포천(약천사):대웅전 문짝 닫집
•단양(천진사):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서울(학림사):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貞玉 합장

사찰 안내 광고
■위치: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부지:약 400평
■건물:40평, 2층 두채, 요사채 별도
■특징:천불 부처님,증탑,종각, 산신각, 9층탑 정원수려外 다수
■연락처:064)32-6887, 32-1495

강원도 산사에서 수양하실분을 찾습니다.
■경치좋고 시설 편리한 사찰에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사찰일을 도우며 사실 건강한 분이나 노후를 보낼 부부도 환영합니다.
※농사도 지을수 있고 학생이나 고시공부 하는 분도 받습니다.
■문의전화:진곡사(0346-592-7315) / 강원도:(0346)461-7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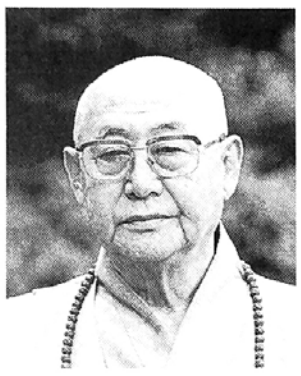
佛事 (불사) 하시는데 도움이 될수있는 "신비의 불탑다라니" 책자를 스님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佛塔다라니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가 발산됨이 입증된 본회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요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서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판단하여 運을 좋게 변화시키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천도시키는 방법등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책자를 현재사업을 운영하시는 스님께만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이 方法은
① 신도 개개인의 현재의 運과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운세까지도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줄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스님께서 신도들의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바꾸어줄 수있으며
② 영가의 빙의상태, 관념과장의 방해를 확인하여, 영가의 빙의및관념과장을 천도,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줄 수 있으며
③ 신도들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해 줄 수 있으며
④ 산소에 탈이 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산소를 잘못 써서 조상령이 천도되지 못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느 산소이든 그 산소 자리를 좋은 地氣가 넘치도록하여 후손들이 발복하도록 해줄수 있고
⑤ 집터나, 상가, 사무실 등에 좋은 운기가 계속적으로 뻗치도록하여 만사형통하도록 해줄수 있는 방법입니다.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주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9-1906
야간 (0342) 706-3060

태고총림 초대 방장

인터뷰 덕암스님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 방장에 추대된 덕암스님(전 태고종 종정)은 오는 7월4일 추대식을 갖고 산내암자인 대각암에 주석할 예정이다. 스님은 선암사의 승풍을 굳건히 하고 선암사에서 열반에 들겠노라고 밝혔다.

"선원·강원역할 강화로 실천수행 승풍진작"

-태고종의 유일한 총림인 선암사의 초대 방장으로 추대되어 감회가 남다를 줄 압니다.

▲선암사는 천년고찰로 독특한 수행력으로 한국불교 전통법맥을 지켜온 사찰입니다. 명실상부한 총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불교 대본산으로 만들겠습니다.

-금강산 유점사에 계시던 스님께서 선암사 방장에 추대된 것은 또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암사와 금강산 유점사는 예전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유점사스님들은 선암사스님이었던 율봉스님을 중시조로 모시고 있어요. 모두 율봉스님 문하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동안 선암사 개금불사와 강원중건, 범종불사 등을 해왔습니다. 특히 유점사 법당에 53불이 모셔져 있는데 선암사에도 53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언젠가 선암사 개금불사를 하다 복장을 보니 '53불을 모셨으면 한다'는 율봉스님 서한이 들어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선암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와 산림자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사적으로 봐서 선암사는 어디에 못지않는 사찰의 색깔을 가져왔습니다. 태고종의 대표적인 독신승 대중사찰이고 대각국사가 중건한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지요. 94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12동의 법당과 요사를 신축하는 중창불사를 하고 있으니 조만간 사격도 일신하리라 봅니다.

-앞으로 선암사의 승풍을 어떤 방향으로 세워나가실 계획입니까?

▲말을 앞세워서도 안되고 말을 안해도 안되지만, 훌륭한 큰스님들이 배출된 사찰인 만큼 선원과 강원을 강화하고 힘을 모아 산중의 수행풍토를 일신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실천으로 보여드리고 '덕암노장이 선암사 방장으로 간다하더라' 고만 말해주십시요.

김원우 기자

'방송인 불자연합회' 7월 출범

KBS BBS btn등 5개방송사…합동법회 정보교환등 계획

BBS btn KBS MBC SBS 등 5대 방송사 불자 방송인들이 '방송인 불자연합회'를 결성하고 신행활동을 벌인다. KBS불교연구회(회장 김학선)가 주축이 된 최초의 '방송인 불자연합회'가 빠르면 오는 7월경 발족된다. 이미 지난 86년부터 사내불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한 신행활동을 펼쳐온 KBS불교연구회는 여의도에 밀접해 있는 MBC, SBS등 방송사의 불교모임을 활성화 하자는 생각으로 올 2월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인 불자연합회 결성을 위해 각 방송사의 관계자들과 접촉을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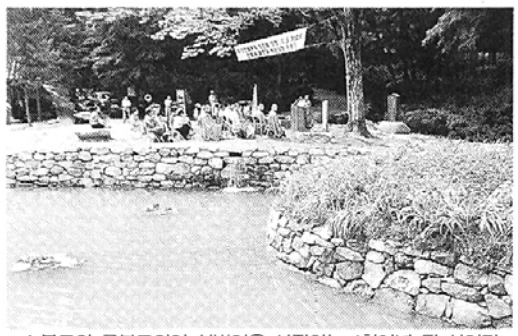
이로 인해 이미 MBC는 30여명으로 구성된 MBC불교연구회가 조직돼 2차례의 실무모임을 가졌으며 SBS도 현재 SBS불교연구회결성을 위해 막바지 추진작업에 한창이다.

방송인불자연합회 결성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온 KBS불교연구회 감학선회장은 "당초 불교TV가 지난 5월 여의도 광장에서 열 예정이던 불교문화대제전과 더불어 3대 방송사는 물론 btn, BBS와 함께 여의도 광장에 마련된 대법당서 연합대법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행사가 무산되는 바람에 모든 일정이 조금 늦춰졌다"면서 "방송국에 종사하는 불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정식으로 불자방송인 연합회를 창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KBS의 경우 지방국 12곳에 불자 모임이 있고 타 방송사들도 이같은 모임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는 김회장은 방송인 불자연합회의 구성을 통해 불자들의 모임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또 장기적으로는 각지역별 방송인 불자네트를 구성, 완전한 전국방송인 불자연합회로 발돋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인 불자 연합회는 앞으로 서울에서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KBS, MBC, SBS, btn, BBS의 5개방송사 합동법회도 정례화 시켜 서로간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방송인 불자연합회는 일반인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불교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역할과, 또 각 방송사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교환 도모, 불교 각종단의 소식과 관련 자료들의 정기 수집등과 같은 사업도 펼쳐 나가게 된다.

이은자 기자



◇불교의 근본교의인 삼법인을 상징하는 1천여년 된 삼인당 연못이 복원됐다.

선암사 통일신라연못 삼인당 복원

통일신라시대의 연못인 순천 선암사 삼인당 복원준공식이 지난 15일 오후 3시 선암사주지 지허스님 방성룡순천시장 유길수변호사 유창종순천검찰지청장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민간 문화단체인 순천문화보존회(회장 박관수변호사)가 제1차 기념사업으로 추진해온 지방기념물 제46호인 선암사 삼인당 복원사업은 최근들어 연못의 원형이 심하게 훼손됨에 따라 3천5백여만원을 들여 지난 3월부터 복원한 것이다.

불교의 근본교의인 삼법인(三法印)을 상징하는 삼인당은 길이 30미터, 너비 3~9미터의 장타원형 연못으로 가운데에 알모양의 섬이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호국영령 천도재

태고종, 금산·남해서

태고종 부산·대전종무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몰희생자 천도재를 경남 남해와 충남 금산에서 개최했다.

대전종무원(원장 월해)은 지난 24일 국군과 경찰 3백여명과 공비 2천7백여명이 희생된 충남 금산군 백암산에서 아군과 적군희생자 영가를 천도했다.

이에 앞서 부산종무원(원장 학성)도 19일 경남 남해 상주해수욕장에서 호국영령위령대재를 봉행했다.

티벳 칼라차크라법회 「영상에」

불교TV 제작중

만다라를 통해 궐처보이는 티벳불교의 정수 칼라차크라법회를 머지않아 TV를 통해 안방에서 직접 만나게 된다.

불교TV 특별취재팀이 북인도 쿠루마날리지역의 사찰 타보(Tabo)의 창건 1천년을 기념하여 2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칼라차크라 법회를 직접 영상에 담아 '칼라차크라의 신비(가제, 김대우,김충현PD)'를 제작한다. 이 법회에는 달라이라마가 직접 법문을 설하며, 한국불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영상에 담을 예정.

김대우PD는 "칼라 차크라 법회를 통해 티벳인들의 종교적 열정과 티벳불교의 핵심을 우리눈으로 다시 접근하는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수 57세에 유명 영화제목과 배우이름을 줄줄 외우고, 또 틈틈이 방송에 스님역할로 출연하기도 하는 튀는 '쉰세대' 스님이 있다.

오는 11월부터 SBS를 통해 방영될 예정인 대하드라마 '임꺽정'에 스님역으로 출연하는 환월스님(봉원사 부주지). 이 드라마에서 스님은 백정집안인 임꺽정의 집을

SBS드라마 '임꺽정' 출연 봉원사 환 월 스님

"단역이지만 불법 영상포교 최선"

찾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는 장면을 연기한다.

이미 촬영을 마친 스님은 "한번의 NG도 없이 촬영이 끝나서 PD와 스텝들이 만족스러워 했다"면서 "스님이 직접 스님 역할을 하니 잘못 전해지거나 틀리는 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말했다.

환월스님은 그동안 '제5공화국' '당신이 그리워질때'와 같은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 절에서 계를 내리는 장면등을 연기했으며 드라마에 등장하는 불교관련 의식의 자문도 해왔다.

"잠시 출연이지만 한장면이라도 최선으로 다해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전하려 한다"고 말하는 스님은 "앞으로도 필요로 한다면 배역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출연할 생각"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이은자 기자

방송가 소식

불교TV '고려대장경' CATV 우수프로 선정

불교TV가 부처님 오신날 특집프로로 방영했던 고려대장경이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분기별 선정 발표하는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새롭게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팔만대장경의 조성과 보존에 얽힌 신비를 본격적으로 해부한 최초의 작품인 고려대장경은 조성과 운반, 보관의 신비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는 등 학술적 가치는 물론 대장경 조성이 갖는 종교적 의미와 가치를 정밀히 조명해 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케이블설치 할인권 불교TV 4499건 접수

불교TV가 CATV 가입자 확대사업의 하나로 실시해온 설치비 50% 할인권배포가 지난 5월31일로 마감되면서 총 4천499건을 접수받아 신청가구에 설치됐다. 지난 4월15일부터 전국 지역방송국에 할인권 배포에 나선 불교TV는 약 1달반 동안 설치가입을 권유하는 한편 대대적인 채널 홍보를 벌여왔다.

1백만가구 가입 돌파 CATV협 축하공연

CATV 본방송 1년3개월 만에 1백만가구 돌파를 축하하는 대축제 공연이 지난 21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3만여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히 치뤄졌다.

목탁소리

호법부장 부결의 의미

조계종 제121회 임시중앙종회가 18일 개원됐다. 회기 첫째날 오후, 종회장이 갑자기 광광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총무원이 추천한 호법부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화합차원에서 합의도출을 이끌어내자"는 측과 "종회신뢰를 위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총무원장까지 나서 '투표없이 동의를 얻은 선례'를 들어 합의도출을 요청했다. 난상토론 끝에 투표에 들어갔고 결과는 총무원이 제안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말았다.

개표가 끝난 순간, 일순간 종회회의장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뜻밖의 결과에 60여명의 의원 모두가 놀라는 모습이 역력했다. 집행부측은 상상하지 않은 일이어서 충격을 받은듯 어쩌구니없어 했다. 개혁종단 이전까지만해도 '집행부 거수기'라는 악평을 받았던 종회가 오랜만에 집행부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종회의 파란'에 버금가는 또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단순히 호법부장으로 선임된 개인보다는 현 집행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총무원은 종회를 앞두고 14일 총무부장을 비롯해 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출범 1년 6개월만에 실시된 대대적인 인사는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는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향후 종무행정 운영의 구도를 엿볼 수있어 주목을 받았다.

이런 측면에서 종회가 집행부의 발목은 잡은 것은 '얼마나 순도높은 개혁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가'라는 종도들의 의문에 대한 좋은 답변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그런만큼 부장은 명 동의안 부결은 집행부로서는 커다란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집권중반기에 들어선 집행부가 개혁을 열망하는 종도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다면 향후 개혁종단의 행보에는 오히려 청색신호가 될 것이다.

더불어 이번 임명동의안 처리처럼 소신있고 건강한 종회를 기대해 본다.

이준엽 기자

'가짜 문화재'

지난 18일 국보 274호 귀함별황자총통(龜鑑別黃字銃筒)이 조작된 문화재라는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19일에는 해사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중요문화재 승자총통(勝字銃筒)역시 시중에서 구입한 골동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었다.

이는 최근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립박물관이 사들인 유물의 진위 여부를 놓고 말썽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터진 사건이라 국보 등 지정문화재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그 아픔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금년에만 해도 고산구곡시화병(高山九曲詩畵屛·국보 237호)과 지난 2월 김홍도특별전에 출품된 금강사군첩(金剛四郡帖)의 진위 논란이 이는 등 가짜 문화재로 몸살을 앓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정부의 문화재에 대한 안이한 자세 때문이다. 물론 가짜 문화재를 식별해 내는 일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첨단과학장비를 동원해도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고서만을 토대로 인양 3일만에 국보로 지정하는 너무나 어이없는 문화재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 것인가. 몇몇 개인의 사욕과 문화재위원들의 안이한 태도로 빚어진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엔 반만년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자랑해온 우리 자존심이 용서하지 못한다.

평생을 문화재 연구에 바쳐온 한 학자는 "유물·유적은 과거 사람들이 남긴 과거의 모습이지만 그것 역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우는 거울이며, 역사를 사랑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행정 체계를 바로잡는 등 국가문화재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정부당국과 문화재위원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문화재를 사랑하는 자세부터 배우라고 권하고 싶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면 올바른 문화유산의 대물림은 우리 역사의 '무량지대계(無量之大計)'이기 때문이다.

한명우 기자

불·교·계·유·일·의·종·합·학·술·정·보·잡·지

계간《多寶》는
현실속의 불교를 지향합니다



계간《多寶》는 창간호(1992. 3)부터 통권 16호(1995. 12)까지 4년간 발행된 잡지를 4권으로 묶은 합본호를 보급합니다.

불교계의 주요 흐름을
읽으시려면
계간《多寶》를 보십시오

계간 多寶 는

현실의 제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그 구체적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불교와 현실을
하나로 잇기 위해 발행되고 있습니다.
계간 多寶 는 시론 논단 기획특집을 비롯하여
타 매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해외자료 및 주목받는
발굴자료 등 기획물이 풍부합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불자 여러분 곁에는
늘 多寶 가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부처님을 모시듯 선생님을 소중한 독자로 모시겠습니다.

● 정기구독 신청안내

구독료 1년(4호간) 20,000원

은행구좌번호

국민은행 827-25-0006-047 (재) 대한불교진흥원
외환은행 189-13-02685-0 (재) 대한불교진흥원
우체국 012245-0090499-11 (재) 대한불교진흥원
농협 069-01-197161 (재) 대한불교진흥원

* 구독료를 입금하신 후 전화로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 발행 / 보급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계간《多寶》
(전화) 02-719-1855 (FAX) 02-719-5052

성하출판 TEL. 778-6826 7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본문 중에서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망소에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황광우 이경옥 옮김
신국판 전2권 각권 7,500원

현불뉴스

평상스님 금산사종회의원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주지 도영)는 지난 14일 혜광스님 후임으로 제11대 종회의원에 평상스님을 보궐 선출했다.

지리산서 고혼 천도재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지난 16일 지리산 피아골에서 서울 포항을 비롯 전국 각지부 회원 6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호국영령 및 유주무주고혼을 위한 천도법회를 봉행했다.

부산에 인도명예영사관

지난 12일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불교신도회관 7층에 인도명예총영사관이 개관됐다. 이날 개관식에는 샤상크인도대사 및 성오 범어사주지스님 등이 참석, 총영사관 개관을 축하했다.

관음사 합창단 발표회

서울 사당동 관음사(주지 종하)는 부설 합창단 '보리사합창단' 창단 10주년 찬불가 발표회를 오는 29일 저녁 7시 서초구민회관에서 갖는다. 이번 음악회에는 공옥진, 김영임씨 등이 특별출연한다. (02)582-8609

광주 제등행진 시상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영조)는 지난 20일 장성 백양사에서 사암연합회 스님들을 비롯 지역불자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날 제등행진 시상식과 호국영령 천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이 대상을 차지했으며 정광고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가 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부불중학생 남산순례

부산불교중학생지도 위원회(회장 서정락)는 지난 9일 부산 시내 중학생 불교학생회 회원 3백10명과 지도교사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주남산 성지순례법회를 봉행했다.

유치원교사 연수회

대한불교유아교육연합회(회장 영담)는 8월3일부터 5일까지 김천 직지사에서 제23회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연수회를 개최한다.

'부처님 마음 어린이 마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회는 불교교재 활용법, 유아의 언어표현과 지능발달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남양주 봉영사 약수터 불연독서다원

"약수마시고 불서도 읽는다"
주민들 '마음의 쉼터'



◇봉영사 약수터 불연독서다원은 지역주민의 마음과 육체의 쉼터가 되고 있다.

6백여평 마당 가족운동장 활용

약수도 마시고 불서도 읽으며 부처님과 인연 맺는 곳이 있다.

남양주군 진접읍 봉영사(주지 철안) 일주문 옆의 약수터와 불연독서다원(원장 이승민)이 그곳. 인근 주민과 청소년들은 물론 서울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이 약수터의 이용객은 하루 평균 4백여명에 이른다.

봉영사 신도회가 주지 철안스님과 뜻을 모아 지난 1월에 개원한 불연독서다원은 불서와 교양서적 2천5백여권을 소장하고 있다. 헌 목재와 통나무 비닐 등을 이용해 지은 다원은 40여평으로 봉영사약수보존회 회원들과 인근 광동중·고생 지역주민들에게 육체와 마음의 쉼터로 각광받고 있다. 약수를 뜨러 오는 사람들은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불서를 빌려 읽으며 전통차의 향취에 빠지기도 한다. 6백여평의 넓은 마당은 가족운동장으로 쓰인다.

"약수를 뜨러 오는 사람들을 부처님과 인연지어 주기 위해 도서실을 꾸민 것인데 인기가 높아 이제는 포교 현장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철안스님은 "신도들이 책을 모으고 문체부에서도 1천2백여권의 도서를 기증해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연독서다원은 남양주 시문학회의 시낭송회 장소로 쓰이기도 하고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신행 상담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 약수터와 다원을 아끼는 사람들로 구성된 봉영사 약수보존회 회원은 6개월만에 1천2백여명으로 늘어났다. 회원들은 약수터 주변 청소는 물론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물맛'을 지키고 있다.

봉영사가 자리한 천접산(泉蝶山)의 원래 이름은 천견산(天見山)이었으나 물이 좋고 많아 천접산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옛부터 이름이 난 봉영사 약수를 마시며 병을 치료한 사람이 많았으며 현재에도 병치료를 위해 서울에서 아예 절 아랫마을로 이사를 와 매일 절을 찾아 기도하고 약수를 마시는 사람이 늘고 있다.

약수를 뜨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다. 대웅전 신축불사 관계로 연못 위에 설립한 임시법당의 마루밑에 사는 수백마리의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생일때 방생을 하는 것이다. 법당을 참배한 회원들은 "투명유리를 통해 물고기들을 보며 부처님께 절을 올리다 보면 모든 생명이 다 존귀함을 느끼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남양주=김원우 기자

한중일 불교교류 정부협조 요청
종단협이사회 서울대회 일정등 실무작업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 조계종총무원장)는 오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 기간동안 대통령을 비롯 문체부장관, 서울시장등 정부고위관리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단협은 지난 17일 정기이사회를 갖고 이번 서울대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정부관계자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한중일 3국의 불교계 대표와 대통령의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종단협은 이를위해 서울대회를 준비하고있는 예비회의 대표단(단장 지하)을 실무준비위원회로 전환하고 향후일정등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종단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지난달 19일 연등축제행사장에서 전개한 북한동포돕기 자비의 쌀 모금성금 6백여만원을 관계단체에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혜창스님


◇성관스님


◇능관스님


◇신원스님

조계종 부장급인사

총무-혜창 문사-성관
사업-능관 호법-혜담

조계종 총무원은 14일 총무부장에 혜창스님(전 호법부장)을 임명하는등 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화사회부장 성관(수원포교당 주지), 사업부장 능관(역경사업진흥회 상무이사), 사서실장 신원(화계사 부주지)스님, 21일자로 호법부장에 혜담스님을 새로 임명했다.

보문사 삼존불 봉안
설법전 중창불사 진행

3대 관음도량의 하나인 강화 보문사(주지 원우)는 지난 16일 대웅전 신축불사를 마무리하고 삼존불 점안 및 용왕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점안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 보문사 중창불사 원만회향을 기원했다.

한편 보문사는 금년말 준공예정인 5백평 규모의 설법전건립등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 청정운동" 광주지역 청정운동 실천대회가 지난 18일 남도예술회관에서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강연에서 강건기교수(전북대)는 "일체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실천운동으로 오계 지키기"를 주창했다. 대전(28일 오후7시) 논산대회(30일 오전10시)는 우송예술회관과 연무대법당에서 열린다. 〈광주=주용직 지사장〉

"청년불자 사찰과 갈등" 60%
대불청 청년의식 조사 "불교귀의후 자기변화" 100% 긍정

전국청년회원 10명중 6명은 사찰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갈등의 요인으로는 청년회 지원문제(44%), 지도법사문제(28%), 사찰사용문제(22%)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청년불자들이 한국불교를 짊어지고 나갈 차세기의 주역이란 점은 감안할때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가 지난 15일~16일까지 수원전문대학에서 개최된 제15차 전국불교청년대회에서 발표한 '불교청년의식조사'에서 나타났다

최근 1년간의 포교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46%에 달하는 청년불자들이 한명도 포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84%가 물어오거나 포교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청년불자들이 기복불교의 신앙으로 일관됐던 부모의 신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교리이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해 포교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된 결과로 평가돼고 있다.

불교에 귀의한 후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11%가 전에 비해 완전히 달라졌다고 답했고 89%에 해당하는 회원들도 새롭게 변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변화의 내용으로는 마음가짐(53%), 대인관계(23%), 생활습관(21%), 기타(35)순으로 응답했다.

또 청년회 활동중 가장 흥미있는 것은 문화행사(39%), 법회(36%), 뒤풀이(15%), 소모인 참여(10%)순으로 응답했다.

문화재전문가 추천
문체부, 경주노선 자문역

문화체육부는 지난 20일 경부고속철도 경주구간의 조사, 자문을 위한 문화재관련 전문가로 한병삼(문화재위원회 제3분과위원장), 이선복(서울대 교수), 김종철(영남고고학회장), 김석철(C키반대표), 김병모씨(전 한국고고학회장) 등 5명을 건설교통부에 추천했다.

건교부는 새 경주노선 선정을 위한 자문위원단을 분야별로 위촉중이다.

해인골프장 건설 '다시 수면위로'
서울고법 '문체부 승인취소 부당' 판결…교계 헌법소원 불사

문체부가 내린 가야산국립공원내 해인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96년 7월15일)이 부당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와 문체부와 불교계 문화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악화된 환경문제로 환경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국민정서나 환경정책과도 역행하는 판결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재판장 김경일)는 지난 19일 (주)가야개발이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소송에서 '국민정서와 자연환경보호같은 추상적인 사유로 골프장승인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가야개발측은 해인골프장 건설사업을 적극 재개할 전망이다.

이에 해인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조계종 범종단대책위, 해인사총림대책위, 대구·경북대책위, 고령군대책위, 덕곡면투쟁위는 지난 20일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고법판결은 정부의 환경보존의지의 실추를 드러낸 것이다"고 전제하고 "해인골프장이 건립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이와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관결 확정문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뒤 7월3일 이전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여 골프장 건설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 5개 대책위는 지난 22일 해인사에서 모임을 갖고 문체부가 대법원 상고에서 패소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키로 결의했다.

조계사 대웅전 복구비 42억여원
현대건설 집행보류 '갈등국면'

조계사 대웅전 복구비로 현대건설이 지급키로 했던 42억6천만원을 현대건설이 집행을 보류키로 함에 따라 다시 조계사와 현대건설이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 이사회의 결의라며 "조계사 복구비 42억6천만원을 지급키로 한다는 회사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복구비 지급을 사실상 거절했다. 그러면서 현대건설은 "25일까지 방침을 알려주겠다"고 조계사에 통보했다.

이에대해 조계사 신도회는 현대건설쪽의 통보내용을 전달받은 후 향후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월17일 당시 현대건설 이내흔 대표이사 명의의 복구비 지급 약정서가 있으므로 현대건설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 제소도 고려하고 있다.

봉은사 문화회관건립 설계변경
고급 스포츠센터로… 종회 특별대책위 구성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무상)에 건립중인 문화회관이 사업목적과 달리 특권층을 위한 고급종합스포츠센터로 설계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8일 개원한 조계종 중앙종회 재무분과위 활동보고에 따른 것으로 위원장 영담스님은 "봉은사 문화회관은 신행, 문화공간확보를 위해 종단에서 사업승인이 났으나 사업의 성격이 변화되어 상류계층을 위한 종합스포츠센터로 특화되었다"며 "현재의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천년고찰의 환경이 파괴되고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어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종회는 봉은사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하 정대영담 원학 장윤스님등 종회의원과 원우(총무원 재무부장) 무상(봉은사 주지)스님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마음 마음 설명하는 심성과학

모든 과학은 심성과학입니다. 의학도 천체물리학도 다 마음도리를 설명하는 방편입니다. 보이는 세계만을 생각하면 과학은 그냥 물질과학이 되겠지만 안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둘이 아니기에 과학이 진짜 과학이 되자면 심성과학이어야 합니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북한산 (삼각산) 노적사 오백나한 봉안

북한산(三角山) 적멸보궁

북한산『노적사』 도량 경내지에 오백나한을 모십니다.

오백나한은 부처님 재세시 제자 중에 아라한 과를 증득한 오백성중을 말합니다.
서울의 두상과 같은 삼각산 적멸보궁의 멍기어린 노적봉 산세는 『원효대사님』과 『의상대사님』께서 중성문을 두고 國運의 융성을 기도했던 기도처로 유명한 곳 입니다.
오늘에 이르러 『노적사』에서는 오백나한의 봉안불사를 통하여 국민의 안녕과 불국정토를 앞 당기는 큰 발원을 세우고자 하오니, 청정한 신심으로 성스러운 불사에 무루동참하시어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충만하옵고 큰 공덕 이루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0년 월

주지 석종후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 **북한산 노적사**

▶문의전화 : (02)353-5016, 353-4924,

건강백세 ⑮

손발저리고 침 흘리면 중풍 오는 조짐

뇌 (뇌졸중-①)

중풍증(中風症)은 중년 이상의 나이가 되면 누구나 '혹시 나는?' 하고 한번쯤은 염려를 해보게 되는 질환이다.

위험한 경우를 넘기게 되거나 심각한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에는 노인들의 질환이려니 했지만 최근에는 초중년 특히 청년들 가운데서도 가끔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중풍은 그 중요성 때문에 의료지식의 홍보가 잘 되어 일반 상식화 되다시피 되었지만 잘못 인식된 부분도 적지 않아 예후와 응급조치 및 증상별 치료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 중풍은 대부분 고혈압에서 오는 뇌출혈이나 혈전성 뇌혈류장애로 인해 발생하며 돌연히 short time 간에 발생한다하여 졸중풍이라고도 한다. 그외 식체나 급격한 기온이나 감정변화 또는 본래 허약한중에 외래풍사의 침범등 여러가지 외적원인으로 내풍이 발생하여 돌연히 또는 은은하게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질환이다. 그러나 중풍전구증(中風前驅症)이라할 수 있는 몇가지 특수한 반응이나 증상이 나타나면 미리 예방하거나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전구증 급격한 혈압변화로 뒷목이 뻣뻣해지거나, 손발이 저린다든지 무의식중에 침을 흘리는 증상, 혀나 손가락 끝이 약간 둔감(鈍感)해지며 이중으로 느껴지는 증상, 피부표면에 개미가 기어가는 느낌, 얼굴이 달아오르는 변화들은 중풍이 예고되는 수가 있으므로 안정을 취하고 혈압을 측정하는 등 예방책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 원소의 혈압에 관계없이 중년이상이 되면 기온변화 특히 한냉기에 급격히 노출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인체는 찬기운을 만나면 피부와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상승하거나 순환장애를 받게 되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체나 소화불량시에도 순환장애가 가중됨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소풍이나 산제사 등에 참석해 음식을 차게 먹은 후 졸중풍을 당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응급조치 일단 중풍이라고 의심이 가는 증상이 보이거나 환자의 호소를 들으면 당황하지 말고 민첩하게 조치 해야한다. 너무 서두르거나 그릇되게 조치함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후유증이 커질 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자는 절대 안정시켜야하며 특히 머리부분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정신차리게 한다고 흔들어 깨운다든지 급히 옮기기 위해 들쳐업는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 전신을 편안하게 누인 후 허리띠를 느슨하게 해주고 얼굴 한면을 약간 밑으로 가게해 가래나 불순물의 기도폐쇄를 막아주어야 한다. 조속히 응급차를 불러 전문요원들이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하게 해야한다. 기다리는 도중 소독된 침이나 바늘(급한 경우는 촛불 등에 태우는 방법도 과상풍 등을 예방함)로 손발끝을 찔러서 피를 내는 것(刺血法)은 무방하다고 본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자식 잃고 만난 불법 ㊦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특별상〉



그림 · 이춘석

세살바기 자식 차사고로 세상뜨니 너무 허망
"죽음이 무엇인지 꼭 알고 나도 죽으리라"

그 날도 전형적인 가을 날씨였다. 하늘은 높고 푸르고 기온은 춥지도 덥지도 않아 일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이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웃집 아저씨로 부터 전화가 왔다. 놀라지 말라며 "자금 자제분이 작은 사고로 병원에 와 있으니 오라"는 것이었다.

광소에 전화도 없던 분이었고 같이서 만나면 인사만 나누는 그런 아저씨에게서 온 전화라 의아했다. 왜 아내는 전화를 안했을까? 쿵쿵뛰는 가슴을 안고 한 순간에 차를 몰아 병원에 당도하니 아저씨와 다른 분들이 나를 맞이 하는데 심상한 느낌이 들면서 동시에 큰애나 작은애나 싶었다.

큰애는 6살 작은애는 3살이었다. 누가 대답했는지 모르지만 작은 아이라 했다. 병원 지하 한 구석에 하얀천을 뒤집어 쓴 그 아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아빠를 마지막으로 보고 떠나려 했었는지 가슴을 만져보니 따스한 체온이 남아 있었다.

너무나 믿기지 않아 한 동안 눈물도 안 나왔다. 그러나 죽음이 사실로 느껴지면서 다시 볼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한 순간 억장이 무너져 동물처럼 포효하며 울었다. 너무나 너무나 믿기지 않았고 억울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참담했다. 어떻게 내게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단 말인가?

오늘 아침 출근을 하면서 칭얼거리는 애를 나무랐더니 매일아침 안기우고 뽀뽀를 했었는데 오지를 않았다.

억지로 제 엄마가 떠안기다시피 안아 입맞춘 것이 마지막이었다니. 아! 혼내지나 말았을 것을… 유난히도 병치레를 많이해서 엄마 아빠를 애타게 하고 먹는 욕심이 많으면서도 형것 먼저 챙기는 착한애였다. 안정많고 겁도 많던 애가 이 제 병치레도 좀해지고 몸에 살좀 붙고해서 활발하고 명랑하게 놀더니 엄마랑 시장 갔다와서 잠깐 배추씻는 사이 붕붕카 타고 골목서 놀다가 야채 파는 차에 치어 참변을 당한 것이다. 그만큼 살다 가려고 그토록 고생을 했나! 나는 너무나 허망했다. 나는 그때 까지만 해도 물질에 행복의 척도를 두고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가정의 모든 일을 책임질것 같았던 나는 자식이 차에 치어 죽어가고 있을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그 사실도 모른채 밥을 먹고 있었다니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했다.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왔으나 우선 아내가 걱정이 되어 위로하고 안정시킨 뒤 장례를 마쳤다.

모든것이 다르게 보였다. 그 동안 맹신에 가깝도록 추종했던 행복의 조건들은 유리병만도 못했다. 꿈도 없어지고 계절이 겨울로 들어서면서 그 마음은 더욱 허허로웠다. '나도 따라서 죽으리라' 일단 죽은 아이를 위해서 천도재를 지내자는 아내의 권고에따라 기까운 절을 찾아 보상나온 돈으로 천도재를 지냈다. 돌아 간 곳이 어딘지는 몰라도 이승보다 괜히 있으라고 지극하게 절을하고 끝날때까지 부처님전에 열심히 다녔다. 그러던 중에 마음이 조금은 안정을 찾으면서 '그래 죽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른다면 죽을 수 없다. 죽은 자식을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나를 위해서도 꼭 내가 알고 죽으리라' 독하게 마음 먹고 다짐을 했다. 이제 생각하니 고 한 생각이 지중한 인연을 맺게 하였다. 아내가 언젠가 (도)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을 더듬어 한마을 선원 대행스님을 한 번 찾아 뵙자고 하기에 마음을 못내다가 처음으로 발을 디딘 날 영광스럽게도 도량에서 다른 신도님들의 인사를 받으시며 환하게 웃고 계시는 큰스님을 뵈올 수 있었다.

처음이라 큰스님인지 확실히 몰랐지만 두번째에는 큰스님 친견을 할 수가 있었다. 큰스님을 뵙는 순간 뭔가 알수 없는것이 가슴으로부터 북받쳐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것은 업장이 녹는 눈물이었다. 큰스님께서는 "아들 또 하나 있잖아" 하셨다. 그리고는 "열심히 공부하세요"하시며 격려해주셨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공부인지도 모르면서 큰스님께서 법문하신 책 〈도〉 〈무〉를 몇줄이나 읽었을까.

노 윤 택
〈경기도 안양시 석수1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㊱

♦ whosoever strikes or by words annoys mother or father, brother, sister, or mother-in-law, let one know him as an outcast.
부모, 형제, 자매 혹은 계모를 때리거나 말로써 괴롭히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 Whosoever, being asked about what is good, teaches what is bad and advises (another, while) concealing (something form him), let one know him as an outcast.
상대가 선(善)을 물었을 때, 악(惡)을 가르쳐주거나 숨긴 일을 발설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 Whosoever, having committed a bad deed, hopes (saying), Let no one know me (as having done it, who is) a dissembler, let one know him as an outcast.
나쁜 행위를 하면서, 아무도 가지가 한 일을 모르기를 바라며 숨기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 Whosoever, having gone to another's house and partaken of his good food, does not in return honour him when he comes, let one know him as an outcast.
남의 집에 갔을 때는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 쪽에서 손님으로 왔을 때는 예의로써 보답하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 Whosoever by falsehood deceives either a Brahmana or a Samana or any other mendicant, let one know him as an outcast.
바라문이나 사문 또는 걸식(乞食)하는 사람에게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 annoy (v) 괴롭히다
* mother-in-law (n) 계모
* conceal (v) 숨기다
* dissembler (v) (행위, 의도 등을) 숨기다
* partak (v) (남과 함께) 먹다(마시다) (~of)
* falsehood (n) 거짓, 허위
* deceive (v) (거짓말 따위로) 속이다
* mendicant (n) 탁발승, 거지

오종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禪을 찾는 늑대 ㊦

로버트 M. 파시그



그림 · 심민섭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크리스의 말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인도를 떠난 그는 미국의 중서부로 돌아와 결혼을 하고 현실적인 여러가지 일을 하여 차 두대와 말 한필, 농장을 소유한 중년이 되었다. 그때 그는 이미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이성의 허깨비를 좇는 일도 그만 두었다. 그러나 나는 사상의 착란을 겪고 파이드루스라는 이름으로 사라진 과거의 자신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 그의 자취를 찾아 여행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해답을 찾기는 어렵다.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질문을 스스로 풀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르고 만 것이다.

소피스트들의 유해(遺骸)는 그 사상과 함께 이미 오래전에 티끌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티끌은 아테네의 몰락과 멸망, 마케도니아의 몰락에 의해서 폐허속에 묻히고 말았다. 그 폐허 위에 세워진 고대 로마, 비잔틴, 오스틴 제국, 근대국가의 몰락과 멸망에 의해 그 사상의 형식은 지중해 깊숙이 가라앉고 말았다. 그러나 그 사악함은 수십 세기라는 오랜 세월동안 살아남아서 한 광인(狂人)의 마음을 사로 잡았던 것이다. 나는 물려있는 모든 것을 발굴해 내려는 자신의 손을 보고 공포감을 품은 채 먼 과거의 기억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멘도치노 카운티의 바닷가에 와 있다. 이 지역의 풍광(風光)은 야생적으로 아름답고 시야가 사방으로 탁 트인 곳이다.

이제 나는 지금까지의 신앙을 버린 이단자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의 배교(背敎)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방법 같겠지만 사실 그 망막의 저 밑바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른다.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작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파이드루스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가 바라는 대로 인생을 이해하고 그것을 개성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 사태를 납득한다고 하더라도 좋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음의 고산지대에서 내려온 파이드루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최후까지 충실하게 믿고 나갔다. 이 점이 나와 파이드루스의 차이점이다. 이제 파이드루스는 실재하는 인간이고 나는 유령이 된 듯한 느낌이 든다.

나는 해변을 따라 우거져 있는 만자니타 숲을 통과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라고 말하는 크리스의 표정을 생각해 본다. 길은 꽃으로 덮혀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라는 크리스의 말이 여러가지 기억들을 되살려 주고 있다.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시련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깨달음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 스며든다. 우리는 그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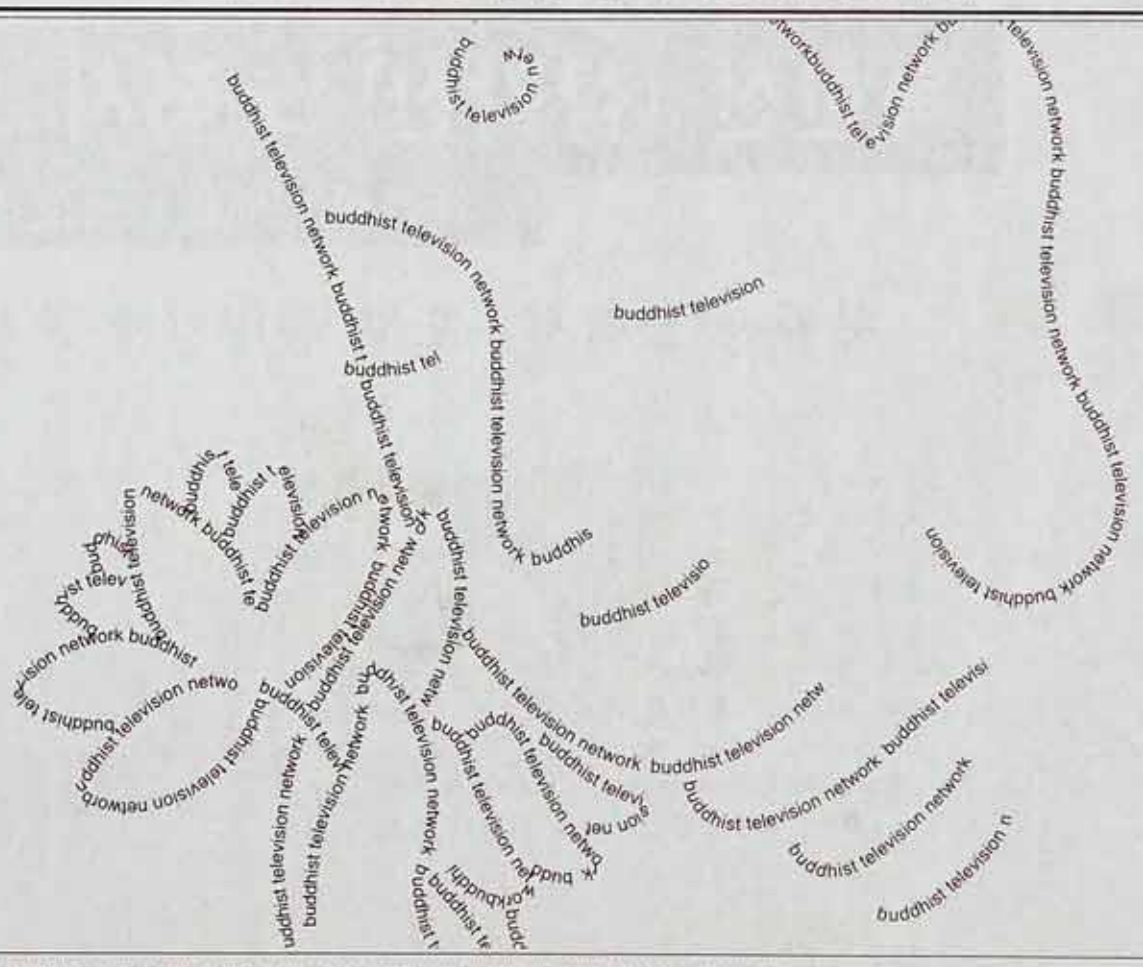
btn캠페인 ① 불교 TV시청자가 됩시다

부처님을 자주 뵈면 부처님이 됩니다

불교TV!
부처님을 매일 만납시다

불교TV를 보면 불교를 알게됩니다.
불교TV프로그램 하나하나에는
우리민족 정서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불교문화전통의 짙은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미소 그윽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이제 불교TV영상을 통해 만나보십시오.

btn 불교텔레비전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전화 (02)3270-3300 Fax 3270-3498


buddhist television network buddhist television network buddhist television network